

문화+서울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11월의 문화+서울
즐거운 나의 도시

EMERGING SPACE

대한민국 60년의 뿌리를 찾아서

CULTURAL WALKS IN SEOUL

인공과 자연의 아름다운 동거



2008 11





* 표지에 실린 작품은
Upset Press(안지미+이부록)의
〈창백얼굴paleface〉, 2008입니다.

COVER STORY

도시의 공간이 진화하고 있다.
사람들이 일상을 꾸려가는 이곳에서
매일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고,
그 작품은 다시 거리의 일상에 놓여져
삭막한 도시에 감성을 불어넣는다.
예술은 예술을 낳고
예술을 품은 도시는 늘 빛이 난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일 2008년 11월 1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발행인 안호상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발행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130-823)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홈페이지 www.slac.or.kr
디자인·제작 (주)에스아이케이알 TEL 02)2264-5298 스튜디오 Seouleye TEL 02)543-5257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의 숨어있는 문화육구와 정보가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contents

November 2008

06 IMAGE ESSAY

사물의 자유를 위해 시간을 정지시키다

08 COLUMN

문화, 뉴욕을 움직이는 힘

11월의 문화+서울

10

즐거운 나의 도시 서울거리에 피어나는 공공미술

14

공공 공간의 새로운 진화 아트팩토리, 예술생산 공간으로의 재생

18

젊은 미술가들의 동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들의 이야기

21

삶의 이야기가 공간을 극복할 때 가치가 탄생한다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는 베를린의 공공 공간

지금 서울은

26 HOT SKETCH

가을, Jazz에 빠지다

30

창의력과 상상력이 넘치는 곳, 우리 동네 놀이터예요 2008 '문화가 있는 놀이터'

35

백남준과 함께 놀아보자, 날아보자! 백남준 아트센터 나우 점프(NOW JUMP) 페스티벌

39

문화와 세상을 잇는 다리 서울창의문화예술교육 Arts-Echo project의 문화매개자 Arts-TREE

42 EMERGING SPACE

대한민국 60년의 뿌리를 찾아서 이화장(梨花莊)

다시 보는 서울

48 SEOUL SCOPE

명동, 이국적 화려함, 그 너머 대중가요 속의 명동

54 CULTURAL WALKS IN SEOUL

인공과 자연의 아름다운 동거 옥상정원

서울 내일의 얼굴

62 FOCUS INTERVIEW

현대 무용이 말을 걸어올 때 서울열린극장 창동 '모던 프로젝트' 참여 안무가 5인 인터뷰

74 YOUNG ARTIST 2008

세트 속 삶의 세트화, 초국적 감각을 발명하기 사진작가 김아영

78

이건 꿈이야, 꿈! 배우 정수영

82 한 장의 침표

영화 <사과>의 감독 강이관의 서울을 말한다

86 재단사업

홍대 앞, 그 젊음의 문화 한 가운데 서다 상상마당과 함께하는 '홍대 앞 재발견'

90 문화 캘린더

11월의 재단행사 및 공연일정

92 재단 소식

97 독자엽서



Monthly magazine Culture+Seoul published b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would like to bridge between artist's creativity and the public's everyday life. It communicates with the city's hidden cultural aspiration and information.

No articles or photographs on the Culture+Seoul are granted to use without permission of Seoul Foundations for Arts and Culture. Articles on the Culture+Seoul is all based upon every author's personal opinion.

A Special Feature: November 2008 'Cultural evolution of space'



Public Art – Public art is a democratic and public art performance that raises the quality of city life and helps to realize the right of the citizens. Not like the art that is generally told, Public Art has to fit in to the context of the space to be located. The context is the most natural when it flows from the daily life of the space if possible.



Art Studio – Art Studio aims to provide the stable working space and environment for the artists to only concentrate on the creation activities, to search inspiration for creation through interaction among the artist, to form a network among them and to prepare a cultural space where the public may share together.

Located in the midst of the Sky Park in Nanjido, Nanji Art Studio is the best space for the resident artists to solely focus on the creation activities. The studio supports various creation activities such as open studio, exhibitions of resident artists' work, workshops, lectures and seminars. It also provides art experiential programs such as Nanji Outdoor Environmental Sculpture Exhibition and Dialog with the Art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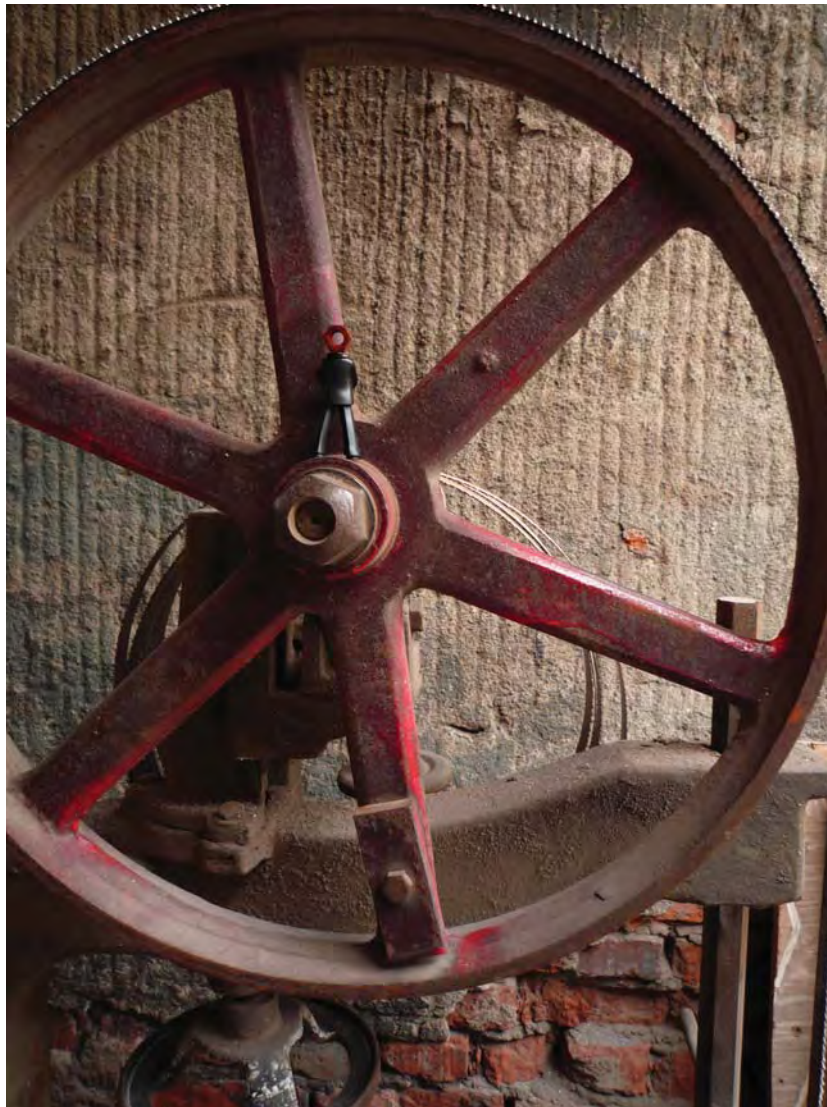


Cheonggye Art Studio aims to make Cheonggye area as the center of culture by operating the studio where creative artworks from many studios in Cheonggye area and artists are developed, made and exhibited. It provides art studios to the artists and operates open studio, various experiential programs, linked programs with local citizens and students and career development program for the artist.



Art Factory – 'Art Factory' is a creation village which the artists have formed by themselves. Back then, the artists who looked for lower rent naturally gathered and formed a creation village, but nowadays local governments promote formation of the art factories. Formation of the art factory receives attention because it provides improved creation condition to the artists, and the citizens may enjoy the expanded opportunity to share the art.

Eun Nim Ro
'99



창백얼굴paleface, 5cm+가변크기, 우레탄+자석+철, 2008

그 도시 안에서 그는 사물의 자유를 위해
가장 인상적인 장면에서 시간을 정지시켜
사물이 지구의 중심으로 끌려가는 모든 통로를
차단시켜 버렸다.



창백얼굴paleface, 5cm+가변크기, 우레탄+자석+철, 2008

Upset Press(안지미+이부록)

안지미 An Jimi _ 1995 ISCOM Paris FRANCE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

이부록 Lee Boorok _ 199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 전공

- | | |
|------|--|
| 2008 | Upset Newyork (판코갤러리, 서울) |
| 2008 | POP N POP (성남아트센터) |
| 2008 | SHOP 프로젝트 (청계창작스튜디오 갤러리, 서울) |
| 2007 | Sticker Project (아르코미술관, 서울/ 스페이스빔, 인천) |
| 2007 | [1번국도]전 (경기도미술관, 안산) |
| 2007 | 청각장애학생과 함께하는 [스티커 조각] 워크숍 및 자료집 제작 (서울농학교) |
| 2006 | [아시아의 지금]전 (쌈지스페이스, 아라리오베이징) |

문화, 뉴욕을 움직이는 힘

뉴욕은 화려하면서도 어둡고, 활력 있으면서도 때론 지나치게 바쁜 도시다. 이는 뉴욕을 지탱하는 두 축인 금융과 문화가 다른 색깔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그 한 축인 금융 산업이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도 나머지 한 축인 문화는 여전히 건재하다. 뉴욕의 문화를 이끄는 힘은 무엇일까.

뉴욕이 오늘날처럼 거대 도시로 발전한 것은 금융 산업의 발전 때문일 것이다. 불길처럼 치솟는 Fire 산업(Finance, Insurance, Real Estate) 즉 금융, 보험, 부동산 산업의 급격한 팽창과 더불어 뉴욕은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마천루는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며 자본주의의 대사원이다.

그러나 뉴욕은 가장 화려한 도시요, 매력적인 도시이며 활력이 넘치는 도시지만 가장 위험한 도시이자, 추한 도시이며 언제나 위기가 상존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1907년 주가 폭락, 1929~30년대 초반의 대공황, 1987년 금융위기, 2000년-2001년 네트 신화의 붕괴 등 늘 위기와 위험이 함께 있다. '섹스 앤 더 시티' 처럼 늘 낭만이 넘치고 매력적이며 화려한 성공신화와 패션 문화가 있는가 하면 테너먼트(지하철, 항구, 마천루 등의 건설 노동자가 사는 비위생적인 가난한 셋집), 스위트 쉘(저임금으로 이민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작은 제조공장), 후버빌(노숙자의 오두막 텐트)의 악몽과 파이프 포인츠의 위험이 지금도 도사리고 있다. 한마디로 뉴욕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우리 일행이 문화와 예술을 살펴보기 위해 이 거대한 도시 뉴욕에 도착했던 9월 하순은 마침 금융위기로 월가가 큰 충격에 빠져 있을 때였다. 금융의 몰락(Financial Meltdown), 제국의 황혼, 미국 자존심의 붕괴, 골드먼삭스의 굴욕 등 언론은 미국의 참담한 실정을 마구 쏟아냈다. 그러나 여전히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찾은 관광객은 하루 2만 5천명을 넘어서고 있었고 42번가를 중심으로 한 뮤지컬 극장가는 1일 2만 여명의 관객(주로 관광객)들로 붐볐다.

오페라의 유령(Majestic Theater), 미녀와 야수(Lunt-Fontanne Theatre), 시카고(Ambassador Theatre), 라이온킹(New Amsterdam Theatre), 렌트(Nederlandse Theater), 스텝프(Orpheum Theater), Wicked(Gershwin Theatre), Legally Blonde(Palace Theatre), Boeving(Longacre Theater), 39 Steps(Cort Theatre), Spring Awakening(Eugene O'Neill



Theatre), Young Frankenstein(Hilton Theatre), Patti Lump Gypsy(St. James Theatre), 애비뉴Q(Golden Theatre) 등 타임스퀘어 주변의 많은 뮤지컬 공연장들은 연일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특히 링컨센터는 연간 500만 명의 관람객과 함께 15억 달러를 벌어들여 뉴욕 경제를 살찌우고 있다. 뉴욕시의 재정이 최악이었던 80~90년대나 지금이나 문화예술은 뉴욕을 움직이는 힘이였다. 뉴욕시 애뉴얼 리포트는 뉴욕시 재정 수입의 20~25%가 문화예술임을 밝히고 있다. 금융산업이 위기일 때도 문화예술은 언제나 뉴욕의 효자였다. 뉴욕은 뮤지컬·연극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의 메카요, 패션의 중심지요, 현대건축의 보고이며 쇼핑의 천국이지만 특히 신진 예술가들의 활동 중심지이자 미술과 음악과 현대무용의 도시로 더 명성이 높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국립 자연사 박물관 등 16개 박물관, 미술관, 연구소 등)이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뉴욕 현대미술관, 폴케티 미술관, 링컨센터, 카네기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대형 예술기관의 운영은 대체로 연방정부(시정부)의 지원 15%, 관람료 수입 15%, 기부금 65%, 기타 5%로 운영되며(스미스소니언의 경우는 특별히 연방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지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대대적인 보수, 증축 등의 경우도 기부금에 의존한다. 2004년 증축을 마무리한 뉴욕 현대미술관(MoMa)의 경우 약 1조원이라는 막대한 증축비가 소요되었지만 대부분은 록펠러가의 기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다른 대표적인 미술관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현대미술관(MoMa)의 고가의 명화와 많은 소장품, 미술자료들은 미술관 자체구입보다는 대부분 기업이나 재단, 개인 컬렉터 기증에 의해 수장되어 있음을 볼 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모마(MoMa)로 애칭 되는 뉴욕 현대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프리크 컬렉션, 누 갤러리, 쿠퍼 휴이트 디자인 박물관, 아메리카 자연사 박물관, 국제사진센터 등이 줄이어 있는 뮤지엄 마일즈(미술관 거리)를 걷는 것은 뉴욕을 찾는 큰 즐거움이다. 엔터테인먼트, 뉴 미디어 등도 시청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실리콘 밸리로 불리우고 있는 소호(SOHO)의 고급 갤러리나 예술적인 패션 매장을 기웃거리는 재미 또한 뉴욕 관광의 호사스런 즐거움이다.

1990년 한 달간의 방문 이후 다시 찾은 뉴욕에서 뉴욕이 이처럼 예술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된 저력은 기부와 자선에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번에 방문한 링컨센터를 비롯한 미국의 중요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은 대부분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그만큼 뉴욕에는 뉴욕의 문화예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자력 있는 자선가, 열성적인 개인 기부자, 비영리 법인이 많았다. 미국의 주요 문화센터는 건립도 민간 기부에 의해 시작되고 그 운영도 비영리 재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인 워싱턴DC

우리도 메세나 운동이나 기부 문화가 빨리 확산되고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지을 수가 없었다.

링컨센터, BAM(Brooklyn Academy of Music)의 시니어 디렉터들은 한결같이 좋은 공연과 예술교육 그리고 관객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부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전략이 문화기관을 운영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되풀이하며 강조하고 있다. 수준 높은 공연과 양질의 예술교육, 기부금의 모금은 모든 문화기관의 공통된 목표이자 과제이다.

우리나라, 일본, 유럽 등의 문화시설 운영이 주로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반면, 미국은 기부에 의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뉴욕의 예술현장에서 기부는 문화를 이끌어가는 힘이며 문화는 미국을 이끌어가는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글 최진용(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

11월의 문화+서울



즐거운 나의 도시

- 서울거리에 피어나는 공공미술

공공미술 혹은 공공예술을 말할 때 우리는 종종 도시의 입장을 잊곤 한다. 도시는 사람들이 일상을 꾸려가는 곳이다. 도시의 일상 가운데는 분명 쉬어가는 페이지가 있고, 그 페이지를 채워주는 게 바로 공공미술이자 공공예술이다. 요란하거나 인위적이지 않고, 소리 없이 일상에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공공예술을 기대한다.



노은님_봄나들이
1999, 유리·조명 등 혼합재료, 1440×240cm
LG 강남타워와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연결 통로

집에서 일터로 오갈 때 걷는 일이 많다. 집과 일터가 멀지않은 탓도 있지만 건다 보면 마주치는 이런 저런 볼거리들 덕에 눈이 즐겁기 때문이다. 차들이 많이 오가는 큰길을 피해 골목길을 오르내리다 만나는 모든 것들이 정겹고 즐겁다. 곰곰이 뜯어 보면 뭐 별다른 예술 작품이 길에 널려 있는 것은 아니다. 작은 마음 씩씩이 때문에 마음이 훈훈하다. 공공기금이 들어갔을 색다른 놀이터를 지나 막 새 단장을 마치고 들어선 인상적인 외관과 색깔의 카페들, 거기서부터 번져 나온 길거리의 작은 설치물들과 눈인사를 하면서 지나간다. 손님을 끌려고 애를 쓴 것이 분명하지만 사람들의 시선만 끌려고 천박하게 다 벗고 나섰던 예전의 간판이나 가게의 외관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동네의 문화적 분위기에 맞추어 스스로 몸을 낮춘 결과이다.

일상을 담은 공간의 예술

내가 집과 일터를 오가며 누리는 호사는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배려한 집주인이나 예술가들 덕이다. 공공미술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놓인 예술을 뜻하는 것이라면 나는 공공미술의 혜택을 맘껏 누리고 있는 셈이다. 개인의 거실에 가두어 둘 수 있는 것들을 밖에다 두고, 혹은 닫힌 극장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할 수도 있는 공연들이 거리로 흘러나와 내 걸음을 한동안 잡아 놓는다. 공공미술의 가장 오래된 형태라 할 수 있을 기념비나 동상 같은 돈 들어가고 힘 들어간 물건들을 보

앞. 백남준_TV 나무
1995, 혼합재료, 800×800×1100cm
뒤. 백남준_TV 갈매기
1995, 혼합재료, 700×700×700cm
포스코센터 1층 로비



는 것보다 상업적 이유에서건 다른 어떤 동기에서건 정성들여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출근길의 작은 물건들이 훨씬 즐겁고 정겹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유별나기 때문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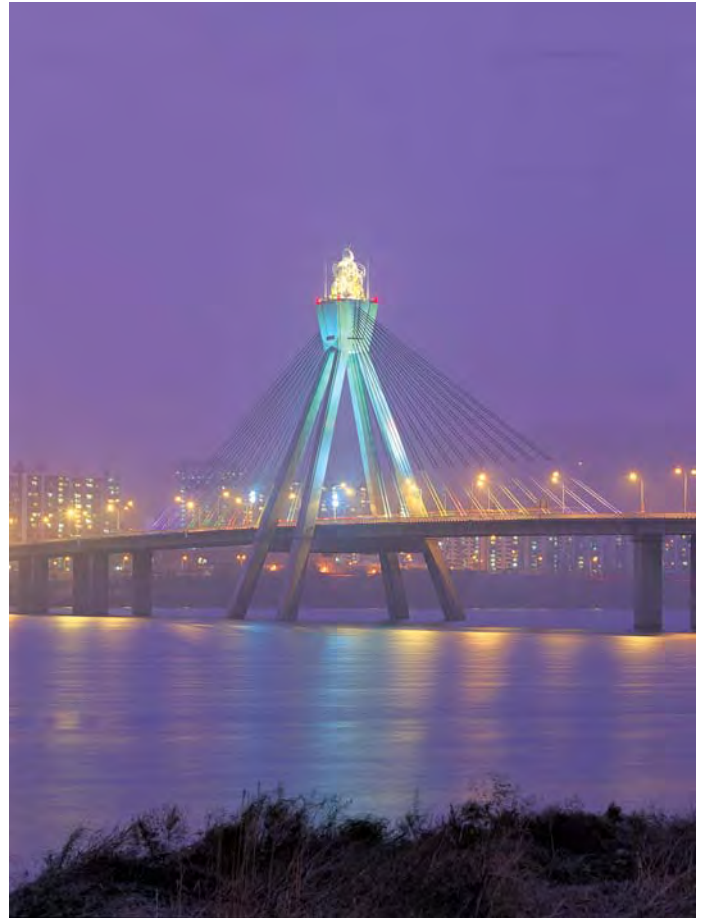
사람 사는 일은 어디든 크게 다르지 않아서 고단한 일상의 공간들과 사 이사이에 있는 여유가 뒤섞여 있다. 그 여유를 채우는 것이 문화이고 예술일 터이니 일상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물론 일상에서 한발 물러나 또 다른 성찰을 요구하는 예술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미술, 혹은 공공예술의 경우에는 그곳이 놓일 공간의 맥락에 잘 들어맞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그 공간의 일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가장 자연 스러운 것이고 밖에서 무언가를 부러 집어넣을 때도 그 맥락을 놓치면 곤란 한 경우가 많다.

공공미술과 관련된 논란들은 대체로 그 공간의 일상을 무시했을 때 생긴다. 1981년 뉴욕시에 설치되었던 리처드 세라(Ricahrd Serra)의 '뒤틀 린 원호' (Tilted Arc)는 1989년에 해체되었다. 이 작품이 설치되었던 공간을 가로질러 다녀야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겐 이것이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조각' 으로 보이기를 원했던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해물이었을 따름이다. 광장을 막아버린 이 벽이 늘 그 곳을 가로질러야 하는 사람들에게겐 짜증의 대상 이상일 수 없었다. 소설로 까지 출간될 정도로 유명한 이 사건과 비근한 예들은 전 세계를 걸쳐 수없이 찾을 수 있다.

10여년 전에 시작한 예술마을 헤이리의 실험은 일상의 공간들에 문화 예술을 넣거나 칠하는 것이 어려우니 아예 문화예술로만 마을을 만들어 보자는 기획으로 시작되었다. 아직까지 마을이 완성되지 않아서 지레 속단할 필요는 없지만 일상의 삶이 생략된 공간은 어딘지 테마파크 같은 느낌을 준다. 공간은 소위 '공공미술' 의 정신을 훌륭하게 구현한 것처럼 보인다. 다양한 예술적 볼거리들이 한가득 있다. 하지만 이것들이 예술가들이 뜨겁게 숨쉬고 치열하게 작업한 결과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우리 동네의 지저분한 골목길보다 재미가 없다. 역사도 없는 곳에 문화와 예술만 덩그러니 모여 있는 풍경이 쓸쓸하다. 쓸쓸한 풍경에는 축제가 어울리지 않는다.

흥겨움이 묻어나는 축제로

축제는 한 지역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드러내는 행사다.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무르익고 터져 나와 신명나는 놀이와 흥겨움의 마당이 펼쳐지는 것이다. 축제를 나누어 분류하자면 많은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즐거움을 선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축제는 종교적, 사회적, 혹은 지리적 집단에 소속감을 주고 소속된 사람들에게 집단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는 역할



윤동구_영원한 불
2001, 혼합재료, 800×800×1200cm
서울 올림픽대교



송번수_생의 오케스트라
삼성서울병원 본관 1층 로비



세자르 발다치니_엄지손가락
1963, 청동, 높이 250cm, 삼성서울병원 정문



헤수스 라파엘 소토_파란 구 Sphere Blue
1997, 두랄루민 튜브, 높이 1000cm 지름 825cm
삼성플라자 분당점 1층



조너던 보로프스키_망치질하는 사람 Hammering Man
2002, 철·알루미늄·모터, 높이 2200cm
흥국생명 신사옥

을 한다.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과 같이 특정한 날을 기려 열리는 축제를 통해 사람들은 역사 속의 중요한 일을 기억한다.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농익어 축제로 번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축제를 대부분은 자연스러운 경로에서 이탈해 버렸다. 산업화와 더불어 어떤 형태의 집단애든 소속감이 줄어든 사람들이 늘고 상업적 이해는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축제는 장삿속에 물들어 간다. 상업적으로 혹은 성공한 축제는 있지만 본래의 의미를 간직한 축제는 드물다.

축제를 위해서는 농익은 문화와 예술이 필요하고 그것들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을 가져야 생명력이 있다. 요즘 공공 기금이 지원하는 공공미술은 건물 옆에 덩그러니 서 있던 뚱뚱지같은 조형물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커다란 작품과 행사들에 집중하고 있다. 공공기금의 속성상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리라는 짐작은 가지만 작품과 행사를 즐길 사람들이 여유가 없다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흘러가고 나면 건질 것이 별로 없다. 오히려 장래성이 있는 투자는 많은 예술가들이 여러 곳에서 작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주변의 보통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들의 작업이 쌓이고 그를 이해하는 이웃들이 모여 축제를 만들 수 있을 때에만 그 도시에 사는 이들이, 그리고 그 도시를 걷는 이들이 즐거울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노학자가 축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유심히 본 적이 있다. 노동자 계급 출신이고 아일랜드 출신이었던 이 학자는 작은 선술집에서 고향 친구들을 만나 옛날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친구들이 늘어나고 선술집은 점점 아일랜드와 관련된 예술적 표현들로 뒤덮였다. 그리고 거기에 노래와 춤이 곁들여져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아일랜드 축제가 되었다. 많은 곳에서 이런 흐름이 시작되고 점점 그 흐름이 커져 지금의 인위적인 축제들을 대체할 때, 아마도 공공미술의 꽃이 피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으리라. 공공미술은, 공공예술은 민주주의와 비슷해서 전문가(예술가)와 대중의 협력 체계일 수밖에 없다. 그 협력의 고리를 맺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글 주일우(문지문화원 사이 기획실장) 사진제공 월간미술

공공 공간의 새로운 진화

-아트팩토리, 예술생산 공간으로의 재생

술한 물건이 쑥쑥 생산되는 도시에서 예술을 낳는 공장이 있다. 이곳의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작품을 생산해내는 예술가들이다. '예술 공장'의 영어이름쯤 되는 '아트팩토리'는 예술가들의 창작촌이다. 전혀 예술적이지 않은 곳에 둥지를 튼 예술가들의 사정은 각각이지만, 예술가들의 이주는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새로운 감성과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예술가가 되거나, 혹은 예술적으로 살거나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서 여가시간이 많이 늘어났다. 긴긴 주말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되지만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무작정 예술가의 창작실을 방문해보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만약 용기를 내어 작가의 작업실 문을 두드렸는데도 별다른 기척이 없다면 아마 당신은 호기심 때문이라도 창작실 문을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낯선 공간을 두리번거리며 작가를 찾다가 바닥에 깔린 오브제라도 밟게 된다면 흠칫 놀랄 수도 있다. 그러나 안심하셔도 된다. 아직 작품에 부착된 오브제는 아니니까. 창작실 방문은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체험을 주는 곳이다. 작가의 제작중인 미완성 작품들과 그 잡다한 재료들을 유심히 관찰하다보면 엉뚱한 상상에도 절로 입가에 미소가 흐를 것이다. 그러다보면 바쁜 일에 쫓겨 피곤해진 몸도, 짝조여 무장된 벡타이드도 느슨하게 풀어 헤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창작실들을 한곳에 모아놓은 것이 바로 아트팩토리다.



샌프란시스코 헌터스포인트의 오픈스튜디오 풍경
창작스튜디오 방문은 작품뿐만 아니라 창작의 과정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술체험을 제공한다.

예술생산 공간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도시의 개성

뒤돌아 볼 겨를도 없이 고속성장을 하기에 바빴던 대한민국은 도시건설에서도 속도가 우선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수명을 다하거나 용도 폐기된 건물이 곳곳에 늘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하상가나 동사무소 같은 공공시설물인데 이러한 유희공간의 재활용문제는 이제 정부의 정책과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한편으로는 최근까지 인기가 높던 주상복합건축 붐은 다소 주춤한 반면, 구 서울역사같은 손때 묻은 건물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와 함께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진 것과도 무관하지 않으리라. 각 도시들은 스스로의 개성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예술을 통한 도시개발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기존도시개발 방식은 비슷비슷한 도시경관을 양산하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국내사례는 있는가. 만약 없다면 정책이 현실을 너무 앞질러 가는 셈이다. 다행히도 민간의 자생적인 실천이 두



아트팩토리는 유희산업시설의 재활용과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매우 유망한 방법이다. 사진은 핀란드 복합문화공간 OKA

드러지는 곳이 있다. 영등포 문래동이 그렇다. 최근 이 지역은 매스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술가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창작촌 때문이다.

문래동은 1960년대 이래 대한민국 철강재 판매 1번지로서 우리나라 제조업과 건축업을 떠받쳐온 산업적 역사가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하지만 공업단지로서의 역사는 100년도 넘어진 반면, 산업구조의 변화와 값싼 중국산 철강재가 수입되면서 맥도 못 추게 돼버렸다. 뜨거운 불꽃과 '깡깡이 치는 고철소리 단절음' 등이 내는 오케스트라 합주 소리가 잦아들게 되자 문래동 곳곳은 빈 공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동네는 도심의 홍물처럼 슬럼화 돼가고 있었다.

남들이 다 꺼리는 이곳에 정착한 이들은 예술가뿐이었다. 이들은 주로 홍대지역과 대학로지역에서 활동하던 예술가들이다. 이 지역들의 유흥상권이 확대되자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예술가들은 썩 공간을 찾아 여기저기를 전전하다가 문래동으로 모여들게 되었다. 몇몇 작가들이 둥지를 튼 지 5,6년 정도 됐지만 불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개인 작업에만 몰두했을 뿐 이렇다 할 대외활동은 없었다. 그러다가 작년 봄부터 예술행사를 통해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다. 싸고 좋은 빈 공간이 많다는 입소문도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예술가들이 몰려들었다. 현재는 건물의 1층 철공소를 제외한 2,3층에는 빈 공간이 매우 드물 정도로 창작실로 채워졌다. 그 결과 50여 곳의 창작실, 소공연장 및 연습실, 전시공간이 모이게 되었고 활동하는 숫자도 150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의 전문분야는 회화, 조각, 디자인, 일러스트, 사진 등 시각예술장르 뿐만 아니라 무용, 마임, 거리연극, 상황극, 퍼포먼스, 국악, 굿, 풍물, 미술비평, 도시사회학, 문화활동가 등 매우 다양하다.

재래철공소의 장인적 에너지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예술의 현장이 달라지자 작가들은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되었고, 생경하지만 박진감 넘치는 철공소예술을 좋아하는 방문객들도 늘어났다. 현재 국제적으로 유명한 장소들이 대부분 예술가들에 의해 키워졌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문래동은 초기상황이지만 스스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에 기능하기 시작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통해 주변풍경을 점차 예술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또 다른 도시재생의 현장으로 가보자. 광주 대인시장에서는 창작실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작가들은 빈 점포를 임대하여 기존공간을 창조적으로 다시 꾸민 후, 비엔날레 행사와 연계하여 오픈스튜디오 행사를 개최하였다. 시장상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했고 작업실의 종류도 전에 영업하던 업태를 이어받는 등 기존 상권이 방해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면 홍어를 팔았던 가게에는 작가가 홍어를 소재로 작품을 제작하여 '홍어작품'을 진열해 판매했고, 야채가게 자리에는 아예 야채와 관련된 예술프로젝트 그룹이 입주해서 야채까지 전시하였다.

내부 인테리어를 할 때도 7,80년대 공간구조와 옛날집기를 그대로 활용하되 그 위



문래예술공단 행사풍경. 재래철공소의 장인적 에너지와 젊은 예술창작의 에너지가 만나는 곳



광주 대인시장 창작실 모습. 홍어를 팔던 가게에 작가가 홍어를 소재로 예술작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에 예술로 덧입혔다. 재래시장의 정겨움을 살리면서도 예술적인 작품으로 변신시킨 것이다. 작가들은 주변 상인들과 협의하여 예술티셔츠를 위탁판매 하는 등 시장의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도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대인시장 프로젝트는 재래시장 빈 점포에 작가들이 입주함으로써 모자라는 창작실을 보충하고, 그 속에서의 창조적 작업을 통해 시장경제와 문화 활성화를 동시에 시도한 경우다.

해외 모범운영 사례를 통해 본 앞으로의 가능성

프랑스의 프리고(Frigo) 그림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좀 더 일찍 유허건물을 활용하고 있다. 이 중 프랑스의 프리고, 독일의 타헬레스, 핀란드 케이블 팩토리 사례를 살펴보자. 프랑스어로 냉장고라는 뜻을 지닌 프리고는 1921년 지어져 프랑스 국유철도회사 소유의 냉동창고로 쓰이던 건물이다. 8,900㎡의 공간에 250여 명의 다양한 장르 예술가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식료품 저장창고로 사용되다가 1960년대 말 인근 시장(Halle)이 없어지면서 지역냉장고로서의 용도를 마쳐야 했다. 그 후 15년간 방치되다가 아트팩토리로 거듭나게 되었다. 1층에는 옛날 증기기관차와 철도가 보존되어 있어 이곳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프리고는 1년에 한번 씩 오픈스튜디오를 개최하고 있으며, 예술가들은 월 8만원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있다. 관리와 운영은 비영리 예술단체인 <91플랫폼>이 맡고 있다. 프리고와 같은 마당을 쓰는 레부트(Les voûte)는 프리고의 예술가들이 만든 공간이다. 오래된 기차터널을 그대로 살려 만든 카페와 레스토랑은 호주머니 가벼운 예술가들의 놀이터로 애용되며, 다양한 예술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파리의 아트팩토리 프리고의 전경

독일의 타헬레스(Tacheles) 독일의 수많은 예술스카트 중 세계적으로 알려진 곳을 꼽으라면 단연 베를린의 타헬레스를 추천할 것이다. ‘드러내다, 분명하게 말하다’라는 고대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타헬레스는 1990년에 창작공간으로 변했다. 이곳은 1907년 동베를린 유대인 지역의 백화점으로 지어져 운영되다가 파산하게 되자, 1928년 AEG사가 인수했다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당이 사용하였고, 5층은 프랑스 전쟁포로수용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2차 대전 막바지에 이 건물은 연합군의 공습을 받아 건물의 일부는 파괴됐다. 1948년 이후 파손되지 않은 건물의 일부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다가 90년에는 전부 헐릴 운명이었지만 예술가들의 스카트에 의해 역사적인 유산으로 살아남게 되었다. 그 후 타헬레스는 예술적이고 도시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국제적인 명소가 되었다. 이곳에서는 그림, 조각, 설치 작품 등의 전시회와 퍼포먼스, 콘서트 등 많은 예술행사가 벌어진다. 30개의 창작실에 회화, 설치, 조각, 사진, 영상, 실크스크린, 디자인 등의 작업을 하는 예술가가 활동하고 있다.



타헬레스 풍경
세계적으로 알려진 베를린 시내 북판에 있는 예술스카트이다.

핀란드의 케이블팩토리(Cable Factory) 노키아 회사 소유의 케이블팩토리는 헬싱키시의 중요한 산업시설 가운데 하나였다. 1939년에서 1954년 사이에 완공된 이 공장에서는 1980년대 말까지 전기 및 전화선을 제조했었다. 그러나 90년대 경기침체로 인해 비게 되었다. 시는 원래 학교나 탁아소, 건강센터 같은 시설을 세울 계획이었으나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컸다. 마침 예술가들은 창작실이 모자랐고 이에 발맞춰 노키아사가 빈 공장의 일부를 예술가들에게 싸게 임대하면서 예술가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다. 공장을 인수하게 된 시는 예술가들과 협의하여 예술 공간으로 용도를 바꾸었다.



핀란드 케이블팩토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주체들이 잘 협의하여 만들어낸 기념비적 아트팩토리다.

현재는 작업실, 숙소, 공연장, 전시실, 시 박물관 등 350여명의 다양한 예술종사자들이 입주해 있으며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있다. 케이블팩토리 디렉터인 메리안에 따르면 “시는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서 좋고, 시민들은 예술가들을 시내에 상주하게 하여 멋진 장소로 유지하게 해서 좋고, 예술가들은 싸게 작업실을 가지게 되어서 좋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모로 이익이 되는 구조이다. 역사적으로 공장을 기억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사의 흔적을 남긴다는 면에서 더욱 좋은 일이며 요즘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까지 되었다.” 고 자랑한다.

서울시의 야심찬 프로젝트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작년 말부터 아트팩토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우선 서울시내 6개 지역에 창작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창작공간이 부족한 예술가들에게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질 좋고 풍부한 예술을 꽃피우겠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문화향수도 크게 확대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문래동 지역에는 기존 창작촌을 지원하는 센터를 조성하여 아트팩토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웠고, 창작인프라가 부족한 대신 넉넉한 공간크기를 자랑하는 독산동 아트팩토리는 야심찬 예술프로젝트를 통해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중 굵직한 예술행사들이 벌어지는 홍대지역은 다양한 예술단체들의 활동을 매개하고, 신생 소그룹들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연화동 창작공간의 경우는 자연녹지와 어우러진 독립가옥들의 풍광을 살려 자연친화적인 문학 창작촌으로 조성된다. 남산드라마센터는 교육과 공연발표를 겸한 창작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태어날 예정이다. 또 재래시장인 신당지하상가의 경우는 편리한 입지조건을 최대한 살려 많은 창작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재래시장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역에 개성과 생명을 불어넣어야

전국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 재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조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 창작공간조성사업은 물리적인 건물조성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함한 예술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따라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성목적과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른 창조적 조성운영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사이트에 생명과 개성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공간조성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 관은 행정적 뒷받침을, 예술가들은 창조적 개입을,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은 창작공간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시설조성에서도 예술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창작실은 고도의 숙련된 예술활동을 진행하는 공간으로서 공간의 1차적 사용자인 예술가가 원하는 스타일로 꾸미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여건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예술가와 건물이 서로 걸들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오픈스튜디오란?

창작실은 원래 예술가가 작품을 생산하는 곳이지만 최근에는 오픈스튜디오라는 행사를 통해 자주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오픈스튜디오는 작가의 창작실이 작가개인만의 의미를 넘어 사회적으로 열려 있음을 알리는 예술축제다. 방문자는 약도를 손에 들고 작업실을 방문하여 작가의 작품세계와 창작실의 다양한 모습을 현장감있게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창작의 현장에서 작가와 직접 만난다는 것은 작품뿐만 아니라 예술창작의 과정까지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느끼기 어려운 창작실 만의 특별한 경험이 된다.



독산동 아트팩토리 예정지. 창작생산공간이자 지역문화시설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가들은 물리적 시설을 포함한 주변 환경까지도 작품으로 만들어놓고서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들이다. 바로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창작촌을 찾는 방문자들은 낮설고도 재미있는 풍경에 감탄하며 이곳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 것이다. 모든 열쇠는 예술가들의 자율적 공간운영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적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균형 감각에 있다. 

글 김윤환(서울시 창작공간조성추진단 전문위원)

젊은 미술가들의 등지

-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들의 이야기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
창작의 터전을 넘어서 이들의 삶과 작업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은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도심 한복판에서 누리는 호사

- 청계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김영미

일반인들과 다르게 청계천은 미술학도들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 청계천에서만 볼 수 있는形形色색의 재료는 하고 싶은 게 무척 많은 미술학도들의 필요를 너끈히 채워주곤 했다. 동경의 대상일 뿐이었던 청계천에 위치한 청계창작스튜디오가 많은 작가들에게 더없이 멋진 공간임은 말할 것도 없다.

서울에서 미술대학을 다녔다하는 사람들 중에 청계천 혹은 을지로를 기웃거리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창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재료는 곧 새로운 작품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청계천이나 을지로만큼 작가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가끔은 우리들이 만들어 내지 못할 것들을 여기에 오면



청계천 예술축제 중 새로운 시각으로 광장시장을 탐험하는 프로젝트, 「광장시장 퀘스트」의 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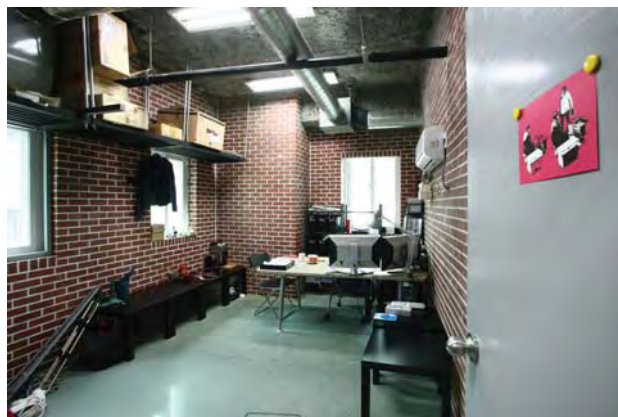
만들 수 있어 한두 군데 단골을 만드는 센스를 발휘하기도 하였다. 반면 청계고가에 있던 시절, 가지각색의 재료를 위해 자주 들르긴 했지만 청계천은 얼른 빠져나오고 싶은 공간이기도 했다. 항상 어둡고 어수선했으며 재료를 찾아 돌아다니느라 지친다리를 쉬어갈 공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청계천은 특유의 매력을 지니고 있는 공간임에 틀림 없었다. 이런 공간을 곁에서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매력에 이끌려 청계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지도 벌써 1년이다 되어간다. 청계천은 다양한 재료를 구할 수 있어 작가들이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보다도 청계천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매력’에 더 끌렸다. 청계천은 종로와 을지로를 마주하고 있으며 도시공간의 오래된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주거공간으로써 복촌이나 사간동이 서울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면 청계천은 상업공간으로써 그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청계천 상가들의 실개천 같은 골목골목을 걷노라면 2~30년 전의 치열했던 대한민국 산업화의 향기가 느껴지고, 현대적 도시계획이라는 미명하에 싹쓸이 된 우리의 미묘한 상거래 정서가 아직 남아있음을 느낀다.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개발이 덜 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작가들을 위해 만들어진 많은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은 비싼 임대료를 피해 도시 공간과 동떨어진 데 있다. 그에 반해 이곳 청계창작스튜디오는 도시 한 가운데, 그것도 작가들이 동경하는 청계천 한 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입주하여 생활하는 지난 시간이 만족스러웠음은 당연한 이야기다. 아직 남아있는 서울의 근대 도시공간을 전하기 위해(나는 이것이 서울이 남길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서는 그 공간에서 지내고 같이 호흡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계창작스튜디오는 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돕고 있다.

청계천에는 관광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사러 오는 소비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곳에는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가장 많고 그들의 이야기가 빈번하다. 청계창작스튜디오는 앞으로도 작가들의 창작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뿐만 아니라 상인과 소비자, 관광객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글 김영미(청계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김영미 작가의 청계창작스튜디오 내부 작업실

젊은 작가들의 튼튼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라며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이배경

한강 자락 최고의 전망에 위치한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는 작가들의 아늑한 동지다. 이곳에 깃든 작가들은 작업과 더불어 다른 작가들과 교류하면서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창작스튜디오의 미래는 경쟁을 넘어선 소통과 연대에 있다.

필자가 독일로 유학을 떠났던 1995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창작스튜디오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우선 크게 반기는 입장이다. 작가라는 직업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다른 직업들과 비교해 볼 때 여러 모로 창작활동에 집중하기가 열악한 현실이다. 그나마 창작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충분한 숫자는 아니지만 일정기간 작업에 몰입할 수 있고, 자신의 작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감사하다.

특히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는 최고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한강이 굽어보이는 전망과 마치 산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아늑함을 준다. 무엇

보다도 무료로 1년 동안 작업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작가들에게 경제적인 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여러 분야의 작업을 진행하는 작가들과의 유대와 작업진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작가들과의 교류는 창작스튜디오가 아니면 불가능한 특권이다. 그밖에도 작가들은 자신의 작업방향을 돌아보고 새로운 기법이나 주제를 시험하거나 자신의 작업을 심화하는 시기로 창작스튜디오입주기간을 이용한다.

다만, 창작스튜디오라는 잘 짜인 시스템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 하는 쪽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입주기간을 마감하는 오픈 스튜디오 행사나 워크숍을 통해 일정부분 작가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시민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들과 작가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있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들은 상당부분 정해진 틀에 맞춰 치러지는 연례적인 행사라는 느낌이다. 대외적인 홍보와 주목을 받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작가와 평론가 또는 큐레이터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작가가 자신의 작업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치들의 부재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충분한 시간과 인력의 확보 또한 꼭 필요한 요소다.

최근 들어 여러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작스튜디오를 만들고 있고, 이미 만들어져 사업을 진행 중인 곳도 있다. 이들이 전시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미래가 있는 사업이길 바란다. 더불어 미술을 전공한 작가뿐만 아니라 평론가, 큐레이터, 문필가 등이 함께 입주해 서로 소통하고 다양한 상생 효과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글 이배경(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이배경 작가의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내부 작업실

삶의 이야기가 공간을 극복할 때 가치가 탄생한다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는 베를린의 공공 공간

도시가 입은 역사의 흔적은 그것이 좋고 나쁘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치있다. 특히 역사의 오점에 대해 하나같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을 보면 역사를 토대로 발전을 추구한다는 명제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역사의 상처를 극복해 가치를 만들어 낸 도시가 있다. 바로 베를린의 공공공간이다. 2차 세계대전의 상흔을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 낸 베를린 공공디자인의 힘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지난 10월 서울문화재단의 지하1층, 문화교육센터팀에서 실시한 공무원매개자 교육 3기생 중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 50평생 넘도록 단 한 번도 자신의 오른 팔 장애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 교육에서는 스스로 밝히고 싶었다. 그러는 동안 자기정화의 시간을 가져 좋았다는 것이다. 그가 공무원매개자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며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난 지난 9월 독일의 공공디자인 워크숍(지식경제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는 베를린의 공공 공간정책이 시민들의 정체성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성숙시킬 수 있는지 그가능성을 확인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지난 역사를 드러내는 카이저 빌헬름교회

19세기 말에 세워진 카이저 빌헬름교회(kaiser Wilhelm kirche)는 2차 대전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80m에 달하는 첨탑과 예배당 건물이 처참하게 반파되고 말았다. 베를린시는 부서진 교회를 허물고 그 자리에 최신공법의 새로운 교회를 신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베를린 시민들이 교회신축을 반대하는 시위를 거세게 하여 결국 짓지 못했다. 대신 폐허가 된 교회의 원형 옆에 독일의 대표적인 건축가 에곤 아이언만(Egon Eiermann)이 현대적 디자인의 교회와 타워 등 보조건물을 나란히 세웠다. 그 이후 카이저 빌헬름교회는 제2차 세계대전의 상흔을 숨기지 않는 역사적 존중감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로써 각광받고 있다.



베를린의 변화가인 쿠담거리에 위치한
카이저 빌헬름교회(kaiser Wilhelm kirche)

두 번째 이야기-거리 곳곳에서 만나는 문화자원 안내판

한편 베를린 시내를 다니다 보면 거리 곳곳에서 투명 아크릴 안내판을 만날 수 있다. 거기엔 그 지역의 인물부터 건축물 등 해당된 동네의 역사이야기가 고스란히 쓰여 있는데 고색창연한 흑백사진이 곁들여져 세월의 묵직한 무게마저 느끼게 한다. 통일 독일시대를 열었던 베를린 장벽 역시 동베를린 현장 뿐 아니라 도심 곳곳에 조각조각 절단되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도 당시의 사진, 역사적 배경 등을 꼼꼼히 설명하여 관광객은 물론 후대에까지 그네들의 역사를 전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우연히 내린 프리드리히스하인(Friedrichshain) 지하철역이었는데 그곳의 전광판 광고가 남달랐다. 흔히 지자체장들이 특산물을 들고 어설픈게 지역을 홍보하는 우리네 광고판과 달리 거기엔 지하철역이 생기기 전 당시의 지역 사진이 비록 빛은 바랬지만 당당한 자부심으로 걸려있었다. 1989년 통일 독일 후 베를린의 명소로 꼽히는 소니센터라는 거대한 복합문화공간도 마찬가지다. 그곳은 포츠담플라츠(Postamtplatz) 지하철역과 연결되는데 시민들이 오가는 지하도 우측 벽면에 소니센터 건립 전부터 지금에 이르는 사진 이미지와 완성되기까지의 이야기가 빼곡하다. 박물관섬에 위치한 페르가몬박물관(Pergamonmuseum) 공사 현장 또한 투철한 역사인식을 보여준다. 공사현장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한 쪽 면에 박물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까지 돋보기로 장치하여 지나가는 관광객부터 시민들까지 맘껏 상상력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터였다. 베를린 도시의 거리를 걷다보면 패전국에 분단국가였던 그네들이 우리네 시선과는 달리 잘났든 못났든, 자신들의 역사에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주요 거리에 서있는 투명 아크릴 스토리텔링판

세 번째 이야기- 문화양조장으로 부활한 맥주공장

쿨투어브라우어(Kulturbrauerei)

1887년 세워져 1967년 이후 문을 닫은 후 이십여년 간이나 버려져 있다가 1998년 리모델링과 함께 2001년 초 문화양조장으로 부활한 곳이다. 이곳 역시 정부는 옛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술가집단들이 하나 둘씩 건물을 점거하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쳐 지금의 문화양조장이 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였다.

현재 슈퍼마켓, 영화관, 클럽, 카페 등의 편의시설을 비롯하여 장애인연극교실, 사진거예술포럼, 콘서트홀 등 20여개 공간에서 연간 2,000여건의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는데 과거, 호모를 발효시키던 맥주공장이 이제는 예술가와 시민들의 꿈을 발효시키는 곳으로 거듭난 것이다. 요즘 지역마다아트팩토리조성이 유행인데 일방적으로 예술가를 유치할 일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스스로 모여 들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 먼저이지 싶다.



박물관 개축현장 가림막에 설치된 박물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행인까지도 발길을 멈추고 박물관 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한다.



옛날 지하철역 지역을 소개하는 현재 지하철역 전광판 이미지



소니센터 건립과정 안내판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마우어 안내판

도시의 열등감도, 내아픈 역사도 스토리텔링하라

도시든 사람이든 내 잘난 얘기만 자랑하고 과대 포장하는 대상은 또 다시 찾아가거나 만나고 싶지 않다. 배운 것이 짧다고, 가진 것이 적다고, 혹은 상처가 많다고 그것을 누가 알까봐 숨기고, 감추는 비굴한 대상은 더더욱 매력 없다. 그렇다면 어떤 도시, 어떤 사람에게 과연 매력을 느끼고 끌리는 걸까? 나의 경우, 아픔도 열등감도 너끈히 극복하는 당당함과 그것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에 이끌린다.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건 간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답게 살아온 고유한 문화가 있어야 매력적이다. 지나온 삶에 대해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긍정을 할 줄 아는 대상이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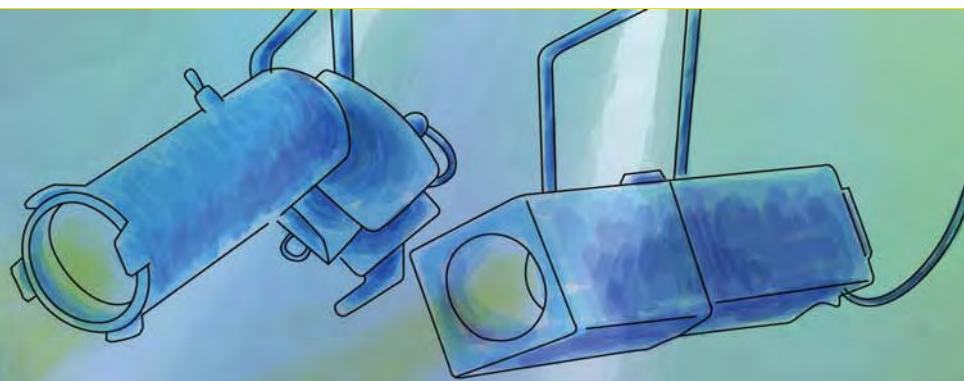
베를린 중앙역 앞 공원을 새롭게 조성한 한 건축가는 공원으로 내려오는 오래된 계단을 헐지 않고 그 옆에 기존 계단 폭의 1/3 넓이 정도만 새로 늘였다. 이유를 묻자 독일 사람들의 기본 정서가 '세계대전 후 잃은 것이 너무나 많아 옛날 것은 가능한 지킴자!'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종로의 피맛골도 오폐스텔을 뒤로 숨고, 뉴타운 개발로 미아리며 행당동 등 동네 골목골목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다. 최근엔 통일운동가 백기완 선생이 명륜동4가 개발로, 20여년간 통일운동의 본거지 역할을 해 온 노나메기 통일문제연구소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코엘류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걸까?

베를린 사례에서 보았듯이 동네마다 품고 있는 고유한 역사적 가치를 존중할 수는 없는 걸까? 도시든 개인이든 살아있는 모든 것의 역사는 누추하지 않다. 

글 오진이(서울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자료 및 사진제공 박연행(세종대학교 디지털영상디자인기술지원센터 연구원)





지금 서울은



음악도 가을을 탄다. 한창 더운 여름, 빠른 비트의 댄스 음악이 휩쓸고 간 자리에 가을이 되니 재즈가 슬며시 자리 잡았다. 재즈가 가진 감상적이고 즉흥적인 특유의 분위기는 유독 가을의 색깔과 잘 어울린다.

2008년 가을,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풍성한 재즈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었다. 재즈에 빠진 올 가을의 풍경을 만나본다.

가을, Jazz에 빠지다



가을이 되면 커피 향이 진해진다. 와인도 맛을 더한다. 커피와 와인뿐만 아니다. 재즈 역시 가을이 되면 성큼 다가선다. 가을이라고 커피와 와인이 특별히 변신하는 것은 아닐 터이다. 상념을 더해가고 쓸쓸함이 느껴지는 가을이기에 무언가 포근함을 찾으려는 심리가 빚어내는 조화가 아닐까. 가을 특유의 음울한 감성에는 재즈가 어울린다. 그래서 커피와 와인 향에는 재즈가 흘러야 비로소 구색이 맞는다. 심각하지 않지만 의외로 진지한 재즈가 커피와 와인에 깊숙한 정취를 더하기 때문이다.

풍성한 공연, 재즈의 세계로 안내하다

가을이기 때문일까. 재즈 공연에 유독 눈길이 간다. 올 가을은 특히 재즈 페스티벌이 풍성했다. 10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린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위시하여, 울산 재즈 페스티벌(10월 2일~5일), 마

포 문화센터 맥 재즈 페스티벌(10월 8일~12일), 고양 아람누리의 재즈 콘서트 시리즈(10월 2일부터) 등이 열렸다. 10월 14일에는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재즈와 함께 떠나는 가을여행' (김기철 밴드)의 공연이 있었다.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콘서트(9월 19일~21일)가 문화일보 홀에서 있었고, 재즈 디바 다이안 리브스도 9월 25일에 LG 아트센터를 찾았다. 이외에도 이루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재즈 공연이 열리고 있다. 필자가 80년대 일본에 있을 때 도쿄에서만 하루에도 수차례 재즈 공연이 열리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던 상황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90년대 초, 친분이 있던 독일 재즈 레이블 엔자(Enja: 유러피언 뉴 재즈의 이니셜을 조합)의 사장인 홀스트 베버의 예언처럼 우리나라의 재즈가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그는 '독재정권이 몰라났으니 한국재즈가 발전할 것' 이라고 했다. 민주주의의 발달과 재즈 확산의 깊은 상관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재즈는 자유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제 군부독재에의 기억이 없는 젊은이들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재즈에 빠져들고 있다.

이 가을에 열린 수많은 공연 가운데 필자가 열광했던 무대는 9월 3일, 세계의 거장들이 대거 참여한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에서 열린 '재즈마스터즈시리즈' 둘째 날 공연이었다. 현시대의 베이스를 대표하는 스탠리 클라크, 마커스 밀러, 빅터 우튼의 3명 베이스스트가 들려준 베이스 합동연주였다. 신들린 듯한 현란한 손놀림과 코드워크에 대부분의 관객들은 시종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재즈 역사를 보면 현대로 올수록 베이스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에 이르러 베이스는 독주악기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반면, 재즈 구성의 근간을 이루는 피아노, 베이스, 드럼으로 구성되는 재즈 트리오의 재즈의 에센스를 보여주는 형식이다. 자라섬(10월 4일)과 고양 아람누리의 재즈 콘서트 시리즈(10월 5일)에 출연했던 프랑스 피아니스트 장-미셸 필크 트리오의 철학적 사고를 지닌 음악적 아이디어로 미래의 정통재즈가 나아갈 방향을 예견하였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피아노 트리오의 어법을 바탕으로



로, 한 단계 나아간 테크닉과 이미 고전이 된 곡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모습에서 마치 구도자 같은 진지한 모습이 돋보였다. 필자는 그의 존재를 '가장 심지가 깊은 연주자'라 정의한다. 가끔 휘파람을 불며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은 재즈에 새로운 맛을 불어 넣는다.

재즈는 살아있다

재즈는 클래식이나 락 뮤직에 비해 청중의 층은 두텁지 않지만 청중들의 열광도는 가장 크다. 고급예술로서의 위상과 연예인으로서의 엔터테인먼트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종교나 철학 등 심각한 주제를 다루는 클래식과는 달리 우리의 일상을 노래하기에 대중음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면 그 음악적 몰입도나 과감한 표현방식 등은 한번 빠져든 이들에게는 중독 증세를 보일 정도로 강력하다.

재즈는 지속적으로 다른 음악을 흡수하며 그 모습을 달리해간다. 1900년 경 처음 생겨난 이래 클래식을 흡수하더니 집시음악 등 민속음악과도 만났다. 1950년대에는 로큰롤 뮤직을 넣기도 했지만, 1970년대에는 거꾸로 로큰롤이 넣은 락 뮤직의 여러 가지 요소를 다시 흡수했다. 이렇듯

그 표현법의 다양성은 경계가 없다. 이제는 동양의 전통음악과 만나 새롭게 변해 간다. 그래서 흔히 '재즈는 살아있다'고 한다. 즉흥적으로 펼쳐지는 애드리브는 우리네 삶이 예견할 수 없듯 어디로 흘러가는지 예측이 불가능한 연주 방식이다. 재즈에서 활용하는 용어도 생명에 비유하여 '펄스' (맥박: 리듬에 내재된 최소 단위), '바운스' (반동력: 리듬에 내재된 활력) 등이 널리 쓰인다. 젊은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불확정성에 갖든 진지함과 아름다움에 열광한다. 이렇듯 재즈는 아무도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폭넓은 변화를 보여준다.

'신명'의 정서, 우리의 재즈를 세계로 이끌다

우리에게 재즈의 위상은 대단히 높다. 일부 고급 취향을 지닌 애호가들이 즐기던 재즈가 땅위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지 불과 십년 남짓 되었지만 그 위세는 상상을 초월한다. 많은 학교에서 실용음악이라는 이름으로 재즈를 가르치고 있고, 미국 재즈 명문 버클리 음대는 수많은 한국 유학생들로 북적이다. 1980년 대, 미국 줄리어드 음악학교에서 악기를 배우던 한국 학생들이 이제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 선두에 올려놓았듯, 재즈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양음악이 이 땅에 들어온 지 약 일백 년 만에 우리의 클래식 연주력이 세계 정상에 올랐지만, 재즈의 경우는 이보다 빨리 세계 정상에 도약할 것으로 본다. 이는 개성적 사운드 유무로 위상을 판단하는 재즈의 속성상 우리에게 아직 세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전통 음악의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음악인 시나위는 전개방식과 구성요소가 재즈와 동일하다. 그 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명'이라는 우리의 독특한 리듬적 정서는 21세기의 재즈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소재가 된다.

1980년 대 일본이 재즈의 종주국이었던 사실을 기억하자. 그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넓은 재즈 인구를 저변으로 80년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이런 사건은 미국이 팝에 열광하던 시기, 틈새를 파고들어 경제력을 앞세운 현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음악적 독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새로운 재즈 어법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사조를 확립하지 못했다. 당시 일본의 재즈평론가가 필자에게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한국재즈는 이제 시작인데, 독창성을 보여준다. 일본은 본토인 미국에 지지 않는 연주력을 지녔다. 이를 잘 조화시켜 새로운 재즈를 만들어 보자.' 나의 답변은 이랬다. '기술이야 배우면 되지만, 독창성은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당신 말대로 한다면 결국 일본 재즈는 한국에 흡수될 것이다.' 냉정히 이야기하면 나의 답변은 옳지 않다. 재즈 빅밴드 하나 없던 시



절에 이미 3,000여 개의 빅밴드를 보유한 그들의 저변에기가 죽어있었기에 부아가 나서 한 말이었다. 일본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있다. 그 수준도 높다. 우리 재즈는 일본 재즈를 흡수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우리는 머지않아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은 재즈가 무엇인지 배우는 과정이다. 우리의 재즈가 세계성을 지니기 위해 일본의 경우를 통해 배울 것이 많다. 젊은 재즈 연주자들의 다양한 경험이 요구된다. 머지않아 한국의 재즈가 세계 재즈에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아직 가을이 남아있다. 주위를 돌아보면 이 가을을 마무리하는 좋은 재즈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낭만적인 재즈 무대를 찾아 열광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의외로 진지한 재즈가 있기에 이 가을이 더욱 풍성하게 다가온다. 

글 김진목(음악평론가)



창의력과 상상력이 넘치는 곳, 우리 동네 놀이터예요

- 2008 '문화가 있는 놀이터'

이제 놀이터가 감성의 힘을 입는다. 2008 서울디자인올림픽에서 선보인 '문화가 있는 놀이터'는 이제 까지 방치되어 있던 쓸쓸한 놀이공간에 문화를 입혀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놀이터에 '놀이'가 부활하기까지 앞으로 다양한 실험이 계속 될 것이다.

어린 시절 동네 한 구석에는 꼭 놀이터가 있었다. 고운 모래밭 위에 간단한 놀이 기구들이 자리하고 있는 놀이터는 어쩌면 온통 아스팔트뿐인 도시에서 유일하게 아이들에게 배려된 공간인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은 삼으로 모래를 뜨며 쉽게 도구의 원리를 배웠고, 미끄럼틀을 타면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느껴지는 중력을 느꼈으며, 시소를 타며 무게 중심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게 된다. 그곳에서 모래를 만지다 인사를 튼 친구들과 처음으로 '인간 관계'라는 것도 경험한다. 다 큰 후에야 그때 몸으로 배웠던 것들이 훗날 세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원리를 체험 학습할 수 있는 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곤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즘, 문득 동네 놀이터를 볼 때마다 아쉬움이 잔뜩 든다. 체험 학습 보다는 주입 교육의 편리함을 안 아이들은 놀이터를 떠나 학원을 찾는다. 놀이터에서 무릎이 깨지고, 팔꿈치에 상처자국을 남기며 배울 것들을 학원에서는 간단한 수식 몇 개로 알려주니까 말이다. 아이들이 없는 놀이터는 쓸쓸하다.

아이들이 없어서 놀이터가 방치되었는지, 놀이터가 방치되어서 아이들이 떠났는지 그 선후 관계는 알 수 없지만, 요즘의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찾지 않을 만한 이유도 있다. 색이 다 벗겨져 부식된 각종 철근 놀이기구들, 공사장 철근이나 각종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모래밭을 보면 왜 아이들이 선뜻 놀이터를 찾지 않는지 알 것 같기도 하다. 놀이터는 위험한 수준을 넘어서 흥흥하기까지 하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이터는 불가능한 것일까. 학원에서 한 줄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더 알찬 배움을 얻을 수 있고, 나이가 진정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이 놀이터일 수는 없을까.

서울문화재단은 놀이터가 원래의 기능을 되찾고 나아가 창의적인 발상과 주민 화합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부터 ‘문화가 있는 놀이터(이하 문화 놀이터)’ 사업을 실시했다. 시작한 해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공모해 우수 작품을 시상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간에 재현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모색했다. 그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현대건설과 MOU를 체결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걸리버 여행기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문화놀이터는 이번 서울디자인올림픽에서 지난 2005년도와 2007년 개발된 문화놀이터 디자인을 전시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거꾸로 놀이터’, ‘큐리어스스페이스’, ‘동물원 놀이터’, ‘미로 놀이터’ 총 4종의 실물 전시 모델이 보조경기장에, 6종의 문화놀이터 모형은 기업·단체전의 서울문화재단 부스에 전시되었다.

실물로 재현된 문화놀이터는 가히 놀이동산을 방불케 했다. 그림책에서나 보던 모습의 놀이터가 눈앞에 나타나면, 어른도 아이도 마치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다. 겉모습만 다른 게 아니다. 놀이터 속에 몸을 맡겨보면, 문화놀이터 곳곳에 묻혀있는 재미난 놀잇감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특

히 과거 놀이터는 단순하게 미끄럼틀, 철봉, 시소 등 익숙한 동선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문화놀이터 실물에서는 좀 더 다양한 동선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놀이터

문화놀이터는 단순히 시설물만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문화놀이 프로그램을 더불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문화놀이 프로그램에는 아이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다. 어른, 아이, 언니, 오빠 등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놀이터의 가능성을 제시한 셈이다.

이번 서울디자인올림픽에서는 2편의 연극놀이를 선보였다. 10월 15일, 22일에는 ‘얼음공주 구출작전’ 이, 10월 26일에는 ‘동화나라 친구들도 와주자’ 라는 제목의 연극놀이가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의 진행으로 실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놀이기구를 상상의 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공간을 탐색해 스스로 감각을 깨울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은 연극놀이를 통해 ‘즐겁게 놀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성취감까지 맛볼 수 있었다.

’08~09 문화놀이터의 선택

서울문화재단과 현대건설은 2008년 여름, 어김없이 문화놀이터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도 시민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공모하는 방식이었다. 창의적인 예술이 넘치는 놀이터 디자인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공공디자인 및 놀이터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창의성, 조



형성, 실현가능성, 교육효과 및 안정성을 기준으로 지원작들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당초 5개로 예정된 당선작에 2개의 입선작을 추가 선정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08~09 문화놀이터의 금상작은 이성재(데오스웍스)의 작품 'Natural Energy Park' 다. 이 작품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최근의 이슈를 적절히 반영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아이들에게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생각의 전환을 통해 주변의 모든 요소들이 에너지가 될 수 있음을 '놀이 체험'으로 깨닫게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은상작은 유준상(하버드 건축대학원 재학 중)의 작품 'Playing in the air' 와 정길택의 '가이아글로벌' 이다. 'Playing in the air' 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놀이공간이 되는 새로운 시각을 제안했으며, '가이아글로벌' 은 에베레가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형상화 해, 아이들에게 꿈을 북돋아줄 수 있는 작품이다. 동상은

박진구(인터조경연구소)의 'soil LAB' 과 정성우 · 정영호의 'Push & Pull' 이 차지했다. 입선은 이은숙(숭실대 대학원 실내디자인 전공)의 '보이지 않는 세상' 과 배성진(그룹 한)의 '생각이 자라는 놀이터' 가 선정되었다. 한편, 이번 문화놀이터 시상식은 서울디자인올림픽 전시 첫날 오프닝사에 이루어졌다.

서울문화재단의 '문화가 있는 놀이터' 는 공간디자인 개선이라는 하드웨어적 변화와 놀이 문화 제안이라는 소프트웨어적 변화를 동시에 모색하면서 놀이 공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끔 한다.

앞으로 더 많은 디자인이 개발되고, 이 디자인을 우리 동네에서 만나게 될 때, 허름하고 쓸쓸했던 놀이터는 다시 제 기능을 찾게 될 것이다.

수상자 인터뷰

금상 수상자 이성재(데오스웍스)

-한창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Natural Energy Park' 라는 출품작의 주제가 매우 시의적절하다. 어떻게 구상하게 되었나.

세계는 지금 석유로 인한 분쟁과 지구온난화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석유는 고갈되고, 점점 더 비싸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영원히 고갈되지 않고 지구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풍부한 에너지원이 있다. 태양열, 풍력, 수력 등을 이용한 생태적 대안 에너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놀이터의 콘셉트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아이들에게 지구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생각의 전환을 통해 주변의 모든 요소들이 에너지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체험 학습 놀이터이다.

- 'Natural Energy Park' 를 통해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 작품은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그 원리를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한다. 특히 아이들 스스로 돌리기, 뛰기, 흔들기, 오르기 등의 놀이 행위가 곧바로 에너지로 전환되어 가는



금상작 'Natural Energy Park'
디자인 : 이성재(데오스웍스)



Natural Energy Park



발전량 표시 흔들 놀이기구



증기 뿜는 태양열 열주

과정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생기게 된 에너지가 어떻게 순환되는지 배울 수 있다. 재미있게 배우는 과학 학습이 가능하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모형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자연에너지 전환기구인 물레방아와 풍차의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7가지 정도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핸들링 풍력 발전 열주, 자가발전 사이렌 회전놀이기구, 증기 뿜는 태양열 열주, 벤저민 프랭클린의 연, 신호등 켜는 물레방아, 발전량 표시 흔들놀이기구, 페달로 듣는 라디오가 그것이다.

-어떤 재료들이 사용되나. 실제 상용화에는 문제가 없는지.

하드우드, 집성목, ply wood, steel, 스테인레스, 폴리 카보네이트, 강화유리 같은 재료가 쓰인다. 여러모로 고려된 재료라 상용화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품작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은.

에너지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은상 수상자 유준상(하버드 건축대학원 재학 중)

-이번 '문화가 있는 놀이터'에 출품한 작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모래밭에 조금씩 다른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놀이기구가 떠오르는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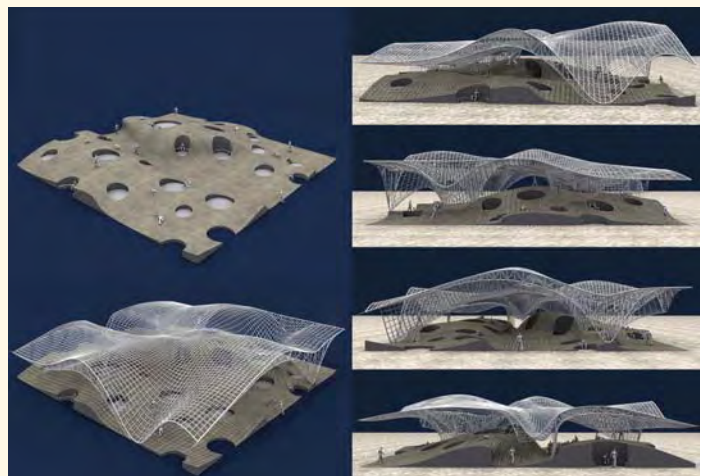
일률적인 놀이터가 아닌, 그 터 자체가 하나의 놀이공간이 되는 놀이터이다. 이 공간에서 아이들은 창의적으로 놀거리와 노는 방식을 찾아낼 것이다. 또한 이 공간은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가능한 하나의 공원 개념인 놀이터이다.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게 되었나.

처음부터 놀이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놀이터는 말 그대로 놀이기구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노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터를 디자인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형태는 도시 속에서 재창조된 자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유곡선으로 이루어진 바닥 면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무 위를 올라타듯이 놀 수 있는 장치 정도는 더 다양한 놀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정글짐과 같은 기능의 캐노피를 설치했으며 바닥과 마찬가지로 유기적인 형태가 되었다.

-이 놀이터가 상용화 될 경우, 아이들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나.

강요된 놀이가 아닌 창의적인 놀이가 가능할 것이다. 언제부터 기성세대가 만들어준 놀이 기구에 맞춰 노는 것에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아이들은 스스로 자연에서 놀거리를 찾아내는 놀라운 창의력을 보여줬다. 이 속에서 아이들이 찾아낼 새로운 놀이를 지켜보는 것도 즐거운 일일 것이다.



은상작 'Playing in the air'
디자인 : 유준상(하버드 건축대학원)

-놀이터를 디자인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창의성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나 좀 더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줌으로써 창의적인 놀이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놀이터가 실제 만들어졌을 때 모형과의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

아무래도 유기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시공의 어려움과 비용이 문제가 되겠고, 안전성을 고려한 형태와 재료가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큰 개념은 유지하되 예산이나 기타 고려 사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디자인을 조정한다면 큰 차이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어차피 건축물처럼 디자인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공간의 개념이 중요한 만큼, 형태와 규모 변화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요즘 공공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놀이터도 일종의 공공 디자인 중 하나일 텐데, 공공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모든 이용 가능한 사람들의 입장을 고루 생각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이터도 단지 아이들의 공간이라고 하기 보다는 좀 더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하나의 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디자인 되었다고 생각한다.

동상 수상자 정성우 · 정영호(영남대 건축학과 4학년)

-이번 놀이터 출품작의 콘셉트가 '담' 이다. 어떻게 '담' 을 놀이터의 공간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게 되었나.

'학교 담장 허물기' 운동을 기억하나. 이 운동은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소

통과 교류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실행되었다. 그런데 담장을 없애면서 이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생겼다. 부모들은 담장이 없어져서 아이들의 '보안성' 이 위기라고 말한다. 그 사이 유괴 사건도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초등학교 담장의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싶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지역사회와 초등학교는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코드가 맞아 공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담장을 활용한 놀이터가 어떨까 생각했다.

-놀이터를 디자인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동선과 소통이다. 먼저 아이들이 놀기 쉽도록 아이들의 높이에 맞는 동선을 연구했다. 책을 찾아보니 아이들의 신체 치수에 의한 ground area, young area, local area의 세 레벨이 제시되어 있었고, 이를 이용했다.

-이 놀이터가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모형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나.

이번 입상작들을 보니 거의 업체 쪽에서 많이 당선된 것 같더라. 우리는 아직 대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실현성 면에서 원래와 다를 가능성도 있다. 물론 재료나 색깔 등이 조금 차이를 보일 수도 있지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른도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는데.

놀이터에서 부모의 역할은 그저 아이들의 놀이를 바라보는 것 밖에 없었다. 관찰자의 입장에 머무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놀이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번 작품도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평소 공간을 통한 소통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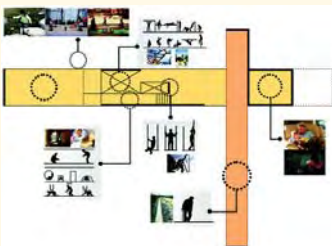
이전에 '담장' 을 소재로 한 디자인을 해 본 적이 있다. 주변에 있는 공원에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이를 이용했다. 노인들이 벽면에 다가서면 아이가 되는 콘셉트다. 특수 반사가 되는 벽면을 통해서 어른과 아이를 어떻게 감성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생각했다. 사실 건축은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공디자인에서는 감성을 실현시킬 수 있어서 흥미롭다.

※위의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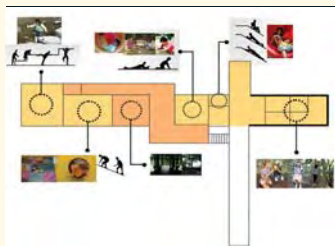
글 전지영 기자

동상작 'Push&P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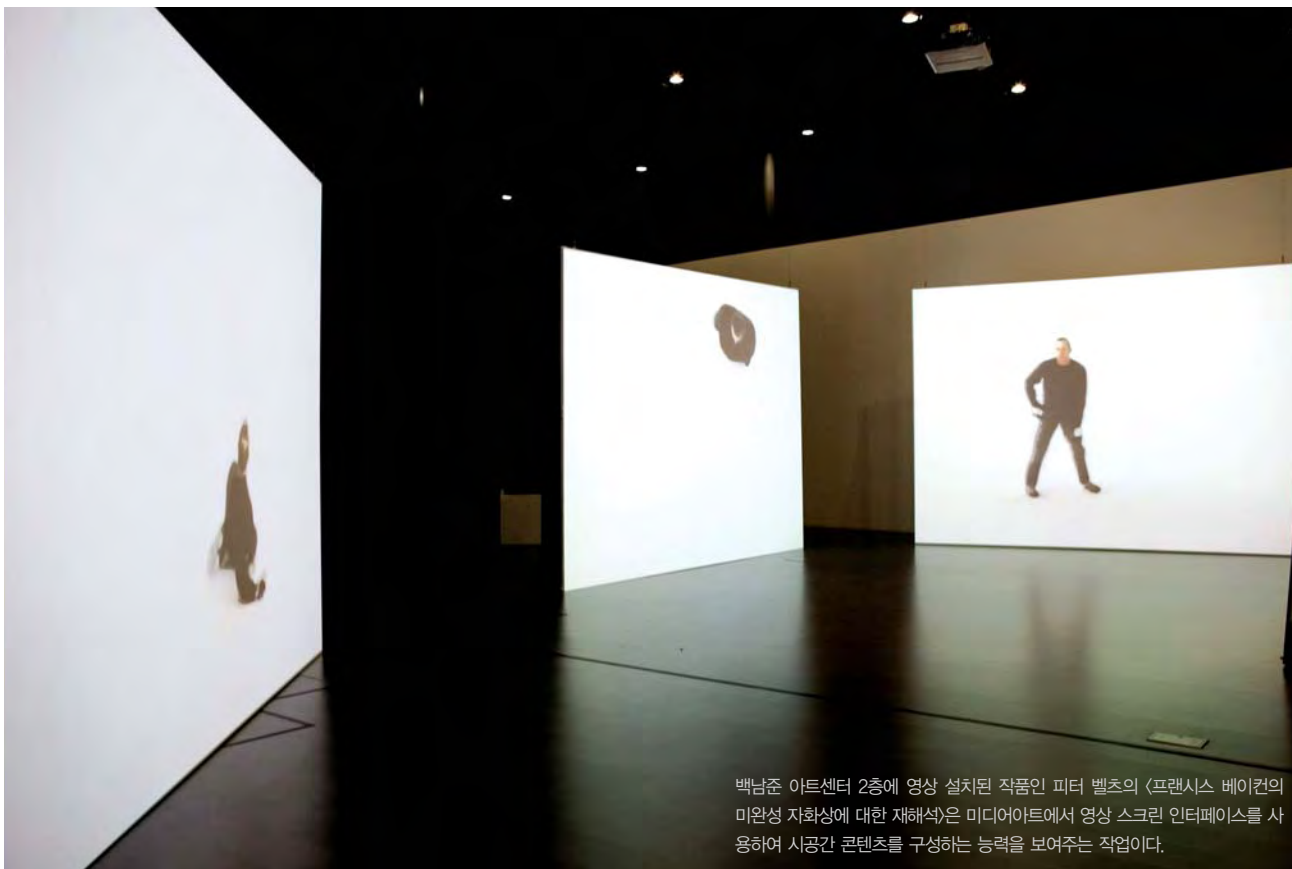
디자인 : 정성우 · 정영호(영남대학교 건축학과)



1st plan diagram



2nd plan diagram



백남준 아트센터 2층에 영상 설치된 작품인 피터 벨초의 <프랜시스 베이컨의 미완성 자화상에 대한 재해석>은 미디어아트에서 영상 스크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시간 공간 콘텐츠를 구성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백남준과 함께 놀아보자, 날아보자!

- 백남준 아트센터 나우 점프(NOW JUMP) 페스티벌

우리는 과연 백남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백남준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의 미디어아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이라 이름 붙여진 백남준 아트센터는 우리가 백남준이라는 이름을 아는 만큼, 미디어아트가 무엇인지 알게끔 인도해준다. 백남준이 생전에 '잘 노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을 강조했던 것처럼, 즐겁게 말이다.

이번 '나우 점프 페스티벌' 에서 백남준의 미디어아트와 함께 신나게 날아보자.

비디오아트의 아버지이며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인 백남준의 예술 콘텐츠를 문화적으로 학습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이 미술관이라는 이름이 아닌 아트센터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출발이라고 한다. 한국인이었던 그는 일본에서 본격적인 공부를 했으며, 독일에서 새로운 예술적 실천을 하였고, 미국에서 비디오아트를 완성했다. 글로벌 인간으로 한 세상을 열정적으로 놀다간 그의 삶과 예술이 이제 우리와 벗할 수 있게 되어 즐거운 일이다. 잘 노는 것이 중요하고 놀 줄 알아야 한다고 역설하던 백남준이 오래 살 집이 마련되어 새로운 놀이터로 우리를 반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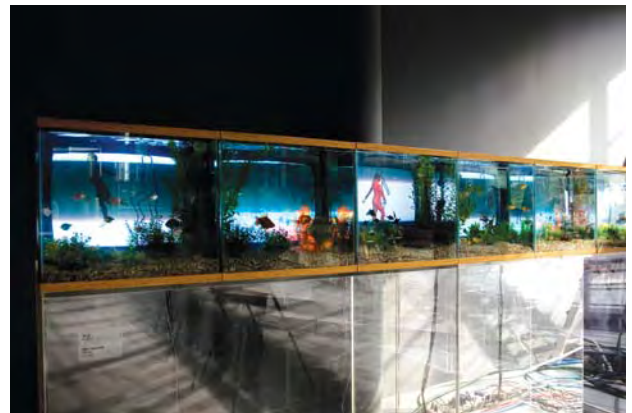
백남준 예술세계와의 조우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으로 명명되는 백남준 아트센터가 지난 10월 8일 문을 열어나우 점프(Now Jump)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개관한지 얼마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한다.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경기도 박물관과 함께 자리 잡고 있는 백남준 아트센터는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소중한 곳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비디오아트의 아버지인 백남준은 죽은 후엔 미디어아티스트로 기억되길 소원했다. 사실 그는 원래 미디어아티스트였다.

미디어아트는 미디어로서의 몸의 표현예술과 미디어로서의 사진, 영화, 비디오, 오디오, 컴퓨터, 디지털아트 그리고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분야다. 최근에는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미디어 퍼포먼스 등이 무용을 중심으로 한 공연상품, 전시상품, 이벤트 등에 접목되어 새로운 놀이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백남준은 인간의 사회문화적 인식과 실재, 인간과 테크놀로지 간의 간극을 조망하고 조율하는 연구와 실천을 ‘미디어와의 놀이’로 풀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예술가였다.

백남준 아트센터는 백남준 예술세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사실 백남준을 모르는 한국인은 거의 없으나 백남준의 예술세계, 더 나아가 그가 왜 미디어와 함께 한 세상 즐겁고 신나게 놀다 갔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마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불교를 안다고 대답하면서도 사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찌 백남준을 모르는 한국인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 어린이 위인전에도 백남준 할아버지는 등장한다.

백남준과 그의 예술세계에 대해 구체적이며 정교하게 배울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백남준 아트센터다. 지금 개관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백남준 페스티벌은 5개의 스테이션(St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스테이션



위부터 차례로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총체적으로 재조명하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스테이션1의 〈엘리펀트 카트〉, 〈TV물고기〉, 〈TV정원〉

마다 다양한 전시와 행사들이 펼쳐져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훌륭하게 구성된 페스티벌의 백미는 바로 스테이션1의 전시장이다. 스테이션1 전시장 풍경은 일종의 미디어 정원처럼 느껴진다. 미디어 정원을 거닐며 백남준의 예술세계의 전체와 부분을 넘나드는 공부를 할 수 있다. 새삼 강조하지만 사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백남준 전시 풍경은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페스티벌 동안 여러 행사들이 있지만 처음 나들이에선 스테이션1 전시장에서 백남준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가 아닐까 싶다.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총체적으로 재조명하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스테이션1에는 〈TV정원〉, 〈TV물고기〉, 〈엘리펀트카트〉 등 백남준의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백남준 및 그와 친분을 맺었던 친구와 동료 그리고 그와 연관이 있는 예술가들의 작품들과 그들에 관한 기록들을 접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콘텐츠가 된다. 조지 브레히트, 앨런 카프로 등의 플럭서스 멤버, 조셉 보이스, 존 케이지를 백남준과 함께 접할 수 있도록 꾸며진 전시는 아주 정감하고 깊은맛이 난다. 백남준의 창의성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미디어와의 놀이는 어떻게 변형되고 확장되었는지를 조망할 수 있는 관점을 만들어준다. 적어도 백남준, 그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 왔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들과 함께 살펴 볼 수 있다. 스테이션1에서 접하는 자료들은 보물이다. 백남준의 어린 시절 관련 자료, 살롯 무어먼과 함께 공연한 〈오페라 섹스트로닉〉 자료, 존 케이지 관련 자료, 존 케이지의 스톡하우젠 음악관련 악보 등 이런 자료들은 그 자체가 콘

텐츠이며 예술이 된다.

‘백남준은 비디오아트의 아버지’ 라는 말로 인해 우리는 백남준과 비디오 짝짓기 놀이를 오랫동안 해오며 즐겼다. 그런데, ‘백남준은 미디어아티스트’ 라는 말에도 사실상 같은 반응을 한다. 왜일까? 그것은 백남준 표 비디오아트 상품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술상품인 경우에 그것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소홀할 때가 많다. 이는 만큼 보고 느낀다고 한다. 스테이션1에서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부하면 그다음엔 더 즐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살아 움직이는 미디어아트

스테이션2는 장르와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실천들이 펼쳐지는 장인데, 20여 개의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스테이션1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모든 퍼포먼스를 다 보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 중에서 2008년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 소개된 로메오 카스텔루치의 〈천국〉, 한국에서 이미 개인전도 열었던 윌리엄 포사이스의 〈추상의 도시〉, 크리스 베르동의 〈듀엣〉 그리고 료지 이케다의 〈스펙트라 II〉는 놓치지 말자. 특히 료지 이케다의 작업에서 일본적인 정교한 힘을 파악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자. 같은 것을 보고 또 보는 연습을 통해 예술을 감상하는 새로운 안목이 생겨난다. 료지 이케다에 시간을 투자해보자. 필자 개인적으로는 보고 또 보고할 만큼 따뜻하게 다가오는 작품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배울 점이 있는 좋은 작가다. 생각하고 표현하는데 일관성을 갖는 모듈이 구체적으로 작동



스테이션1 백남준 관련 자료전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일본 야마구치현의 YCAM에서 개인전 오프닝 이벤트로 진행된 사운드 퍼포먼스에선 순간적으로 시공간을 장악하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백남준 아트센터 2층에 영상 설치된 작품인 피터 벨츠의 <프랜시스 베이컨의 미완성 자화상에 대한 재해석>은 미디어아트에서 영상 스크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시공간 콘텐츠를 구성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이런 기법들은 전문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미디어 퍼포먼스에도 자주 활용된다.

그 외 스테이션3에선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풀어내는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으며, 스테이션4에선 백남준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린다. 그리고 사운드(음악)와 퍼포먼스를 결합시키는 미디어아트 영역을 다룰 예정인 스테이션5는 2009년에 오픈한다. 백남준 아트센터가 설치한 스테이션들이 원활하게 작동된다면 그것은 '백남준 제대로 알기'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본다.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에 놀러 가서 백남준과 만난 1995년의 어느 날 밤이 기억난다. "백 선생님, 디지털 시대에서 예술을 제대로 하려면 근대 이전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남준 가라사대,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고대로, 고대 이전으로 돌아가서 공부해야지."

백남준 아트센터가 미디어아트를 지향한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만약에 아트센터가 비디오아트 컬렉션으로 운영되는 집이 된다면, 백남준은 그 집에서 결코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 기회에 한국의 미디어 아트가 테크놀로지의 물성에 끌려가지 않고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고 활용

하는 콘텐츠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미술관 전시장 내부 풍경을 만드는 개념 놀이의 미디어아트 전시나 퍼포먼스에서 벗어나 폭넓은 문화수익 모듈로 운용되는 장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예를 들어, 다양한 미디어를 스스로 갖고 노는 미디어의 운용(Media Performance)을 통한 통섭적이며, 주체적 힘이 있는 미디어아트의 놀이 유형이 펼쳐져야 미디어 아트를 도구로 활용해 우리의 문화가 글로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역동적이고 신나는 놀이판을 만드는 기제인 미디어아트는 특히 한국에선 미술관이나 갤러리만의 풍경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제 미디어아트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의 작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아트가 문화표현의 도구가 된다. 예술이 곧 산업이 되는 지점과 만나는 곳에 미디어아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표현 능력을 개발하는데 미디어아트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다.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의 점프(Jump)들이 집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아트센터 바깥으로도 힘차게 튀어나오길 기대해 본다. 

글 김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미디어아트전공 주임교수, YMAP 디렉터)

백남준 아트센터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446-905)
관람시간 매일 오전 10시~오후 10시(입장마감 8:30 P.M)
전화문의 031)201-8529



스테이션1 백남준 관련 자료전시

문화와 세상을 잇는 다리

- 서울창의문화예술교육 Arts-Echo project의 문화매개자 Arts-TREE

속속들이 문화의 힘이 미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아마도 사회와 문화를 잇는 다리가 아닐까 한다. 이 다리를 통해 서로 다른 영역이었던 각 분야가 '문화'라는 새로운 소통의 도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와 세상을 잇는 다리가 바로 문화매개자다. 서울문화재단의 문화매개자 Arts-TREE의 일환으로 진행된 문화매개자 교육 현장을 살펴본다.



문화매개자란 무엇일까.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용어일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가교'라는 단어를 쓰면 어떨까. 문화매개자는 문화·예술 요소와 교육, 행정, 사회 분야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문화와 사회 각 분야를 이어주면서 문화의 영향력을 다양한 분야에 전파시키는 역할을 한다. 교사, 공무원, 복지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모두 문화매개자가 될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매개자 Arts-TREE를 통해서 창의적이고 소통 가능한 매개자가 되도록 교육을 진행한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해외 39개국 한글학교 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주목을 받았으며, 공무원 대상 교육은 9월 25, 26일, 10월 1, 2일, 10월 9, 10일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세 개 그룹, 총 100여명의 공무원이 참여했다. 연극, 무용, 미술, 전통 분야를 전체적으로 연계한 통섭교육을 중심으로 공연 및 전시 관람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강의형, 단순체험형, 결과도출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했다.

문화매개자 Arts-TREE는 문화를 사회 각 영역으로 전파해 문화예술이 소통의 매개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화'를 통해 말하고, 대화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방법을 배운 교육 참가자들은 이제까지 단순하게만 느꼈던 문화의 힘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공무원 문





화매개자 Arts-TREE에 함께 했던 교육 참여자의 후기를 통해 더욱 생생한 교육 현장을 전해들어본다.

문화매개자, 쌍방향 소통 관계의 중심 - 허재혁(중랑구청 총무과)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된 문화매개자 연수교육은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2년 여박에 안 된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사실 그동안 교육 훈련이라면 항상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만 접근해 왔던 나는 이번 교육도, 그 내용의 새로움은 차치하고라도 형식에서는 기존에 술하게 접해 왔던 지식전달형 강의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그 예상은 시작부터 기분 좋게 빗나갔다. 첫날 교육장소를 잘못 전달 받아 엉뚱한 곳에서 길을 헤매다 변경된 장소인 잠실의 '살아있는 미술관'에 험레벌떡 도착했다. 이미 1교시가 시작됐기에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선 숨을 돌리려 하는 데 대뜸 고양이 그림을 그려 보라기에 별 생각 없이 그러서 제출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람들이 그 우스꽝스러운 그림을 창문 삼아 그 너머에 있는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 해석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어떤 형태로건 나는 뭔가를 표현했고 그것을 계기 삼아 사람들의 생각이 소통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했다.

이틀 동안의 교육과정이 모조리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생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혼자서 혹은 함께 만들어 냈다. 서로의 창작물들을 보고 느끼고 해석하면서 자아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안에 잠재해 있는 욕망과 상상력 그리고 창의력을 어렵

פותה케나마 느낄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시간이 지나고 서로 말을 건네기 시작하면서 서먹했던 교육생들 사이의 관계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처음보다 능동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일련의 체험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애초에 수수께끼 같은 개념으로 다가 왔던 '문화매개자'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매개자 Arts-TREE의 기획의도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교육과정이 계몽주의적 기획의도에서 도출되었다면 '문화전파자' 정도로 불리지 않았을까? 주위의 문외한들에게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전파하는 일군의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문화전파자' 말이다.

내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문화매개자'란 창의적인 문화예술의 요소를 교육, 행정, 사회 각 분야에 응용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다양한 공간에 산재해 있는 사람들의 잠재적 표현 욕구를 촉진하고 활성화하여 그들이 그것을 쉽게 외부로 표출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집단이다. 그들이 형성하는 관계의 유형은 일방향의 관계, 즉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전달해 주는 관계가 아니라 쌍방향의 소통 관계, 즉 매개자 자신도 또 하나의 표현 주체이자 해석 주체가 되어 서로 생각과 정서를 오가게 함으로써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관계이다. 그 과정에서 각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자기 혁신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공동체의 쇄신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나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예컨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노인문제나 입시위주 교육의 폐해가 누적되어 가고 있는 공교육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문화매

개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무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쳐 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정서적 여유로움을 제공해 주는 데에도 '문화매개자'는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본다.

요는 현재 우리 사회에는 물질적 풍요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 정신적 풍요로움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데 '문화매개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것이다. 나 또한 내가 생활하는 영역에서 문화의 메아리(Arts-Echo)가 더욱 넓게 울려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작은 나무(Arts-TREE) 한 그루가 되어 보리라 다짐한다.

예술은 참여와 체험이다 -김용선(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계절은 가을인데 유난히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업무에 짜증만 더해가던 9월말 경,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전해온 '창의문화예술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보고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웬지 교육내용이 멋지고 흥미로울 것 같은 예감이 들어 교육신청을 하게 되었다. 교육이란 본래 유익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누구나가 인식하면서도 부담을 받기 싫어서 자의적이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이번 교육만은 상상력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문화예술분야의 교육이라는 점이나 호기심과 감성을 자극했다. 또한 가을의 계절적 감각과도 절묘하게 일치하여 교육에의 참여동기를 더욱 유발시켰다.

교육 첫날은 '미술로 풀어보는 소통교육 -우리는 누구일까?'를 통해 인간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과 재능을 밖으로 표출하여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살아있는 미술관' 전시 관람에서는 작품 속에 숨어있는 작가의 의도와 상상력, 표현기법 등을 통해 작품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느껴보는 기회를 접했다. 또한 그 느낌을 자신의 상상력을 적용하여 손수 미술과 사진의 기법으로 표현해 보는 '나만의 작품 만들기'라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소중한 체험의 시간을 갖게 하였다.

둘째 날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창의문화예술교육 'Arts-Echo projec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장르간의 상호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배한성 성우의 '상상과 공상, 그리고 늘 새로운 나의 도전'은 한 개인이 끊임없는 상상과 공상을 통해 40년이 넘도록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며, 다가오는 미래의 변화의 격랑 속에서도 좌초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었다는 점에서 많은 공감을 주었다. 또한 '상상력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만의 살아있는 미술관' 프로그램은 교육생들 간에

팀을 구성하고 팀원들의 상상력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진행되었다.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을 매개로 과거시대의 일상생활의 단면을 오늘날의 일상생활로 변환시켜 다양한 연극으로 시현함으로써 미술, 연극, 무용 장르의 소통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멋진 시간이었다. 연극 <39계단>을 관람하는 것으로 모든 교육과정은 마무리되었다.

교육과정을 통해 절실하게 느낀 바가 있다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문화교육이 사회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는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에서 만든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시작부터 끝까지 각 프로그램간의 연계성이 우수하고 이론과 실기 그리고 체험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자기능력을 표출해 볼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기획으로 조화를 이룬 점이 높이 평가할 만 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발전적으로 개발된다면 많은 호응을 얻으리라 기대된다. 교육받는 내내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각 프로그램들을 숙지할 수 있었으나 교육기간이 짧아 아쉬움이 많았으며, 이처럼 독창적이고 유용한 교육 방식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생들도 모두 좋아하고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번 교육이 헛되지 않도록 문화매개자로서의 역할을 다짐해 보며, 이같이 좋은 프로그램이 서울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청, 학교,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에게 계까지 확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이번 교육을 기획하고 이끌어 주신 관계자들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EMERGING SPACE

대한민국 60년의 뿌리를 찾아서
이화장

梨花莊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다. 건국이나 광복이나를 두고도 말들이 많은 시점인데, 그시작점에서 있었던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는 말할 것도 없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그에 대한 평가가 분분한 가운데, 그가 머물던 이화장은 쓸쓸한 모습으로 세간의 관심 뒤로 밀려났다. 망각의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이화장에 다시 가 보았다.



지금은 거의 사라지거나 기껏해야 전직대통령을 약간은 비꼬는 의미로 ‘봉하마을’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상도동이 곧 김영삼이었고 동교동은 김대중의 다른 이름이었다.

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갖는 인물의 경우 호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이나 집안이 살고 있는 동네 전체의 이름을 대신 사용하는 전통은 조선 후기 세도(勢道)정치가 본격화되면서 자리 잡았다. 안동 김 씨를 장동(壯洞)이나 교동(校洞), 풍양 조 씨를 전동(石邊에 專洞)으로 부르거나 아예 장김(壯金), 전조(石邊에 專趙)로 약칭하기도 했다. 흥선대원군의 별칭도 운현(雲峴)이었다. 운현궁에 살았기 때문이다.

물론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광복이 되고 3년 동안 국가건설을 위한 치열한 노선투쟁이 전개되는 동안 그 흐름을 주도했던 이승만, 김구, 여운형, 김규식 등을 칭할 때는 지역명이나 집 이름 보다는 호를 즐겨 사용했다. 우남, 백범, 몽양, 우사 등이 그것이다. 박헌영의 경우에도 이정이라는 호가 있긴 했지만 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호는 사용하지 않았다. 좌익 근본주의자인 박헌영으로서 호를 사용하는 게 ‘봉건잔재’로 여겨졌을 수 있다.

이처럼 40년대와 50년대에는 우남(雲南), 백범(白凡), 몽양

(夢陽), 우사(尤史) 등이 각각 이승만, 김구, 여운형, 김규식보다 더 익숙했다. 그래서 어느 한 지도자를 추종했거나 그에 반대하는 노선에 섰거나 간에 우남이나 백범이라는 호를 듣거나 한자(漢字)로 된 그분들의 호를 눈으로 볼 때 각자 느끼게 되는 감회가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이화장을 만나기까지

필자의 경우 부산에서 나오 자랐기 때문에 ‘운암’ 공원을 통해 이승만 박사를 처음 알게 됐다. 실은 60년대에는 이름이 이미 용두산공원으로 바뀌어 있었고 어른들만 우남인지 운암이니 구분도 안 되는 말로 운암(우남)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내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 가서야 운암이 아니라 우남이며 그 우남이 바로 이승만 박사의 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슨 역사의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학교를 오가는 길에 6.25 당시 이승만 박사가 머물고 집무를 봤던 곳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승만 박사는 훌륭했는데 아래 사람들이 이 박사의 귀를 막고 정치를 잘못해 4.19가 일어났다’는 정도의 교육을 받았다.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필자의 경우 ‘우남’이라는 뉘앙스가 긍정적이었다.

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며 문제의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 ‘좌경’ 의식화 교육을 받은 결과 ‘이승만은 이나라 만악(萬惡)의 뿌리’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됐다. 우남은 사라지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도 아닌

그냥 '이승만' 이었다. 우남이라고 할 때의 '일말의 존경심' 은 싹 가시고 좌익학습에 의해 만들어진 분노와 적개심으로 '이승만' 을 불렀다. 사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필자의 경우에는 1995년 1년 동안 조선일보에 '거대한 생애 이승만 90년' 이라는 기획연재를 하면서 '우남 이승만' 을 다시 받아들였다. 재발견, 아니 새로운 발견이었다.

당시 연재를 하면서 처음으로 서울 한복판에 '이화장(梨花莊)' 이란 게 그대로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더욱이 처음 이화장을 찾았을 때 오른편 언덕자락에 너무나도 초라하게 자리 잡고 있는 '조각당(組閣堂)' 에서 느껴야 했던 쓸쓸함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 초라함과 쓸쓸함은 뿌리를 망각해 버린 대한민국의 초라함과 쓸쓸함이면서 실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뿌리조차 제대로 몰랐던 한 청년 지식인의 초라함과 쓸쓸함이기도 했다.

검소한 사저를 돌아보며

최근에는 당국의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지만 1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이화장은 그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대학로 뒤편 낙산자락 골목길로 들어가 30여 미터쯤 되는 오르막길에 올라서면 이화장의 모습이 보인다.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철제대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은 왼손에 책을 들고 오른손을 높이 쳐든 이승만 박사의 동상이다. '아, 이 박사는 여전히 망명중이신지 모른다.' 문득 이런 생각이 뇌리를 스쳐갔다. 광복이나 건국이나며 지난여름 거친 논란이 있었지만 정작 광복과 건국의 주역인 이승만 박사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문제는 제기조차



되지 않았다. 그나마 몇 년 전 국회 안에 제헌의회 초대 의장으로서 흉상(胸像)이나 세워질 수 있었던 것에 만족해야 하는 건지. '이제 대한민국 중심 거리 어딘가에 당당하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동상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적어도 동상건립을 위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려는 토론회라도 열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며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낳은 산실(産室)인 조각당을 둘러본다. 조각당으로 오르는 길 옆에는 최근에 세운 자그마한 한옥 건물이 있고 이름은 '통일기념관' 이다.

조각당이라고 해봤자 손바닥만 한 부엌을 빼면 각각 2평 남짓



되는 마루와 방이 전부다. 그나마 방안에 걸린 이박사의 친필액자 ‘방구명신(邦舊命新)’이 반갑다. 이 구절은 시경(詩經)에 나오는 ‘周雖舊邦이나 其命維新(기명유신)’이라, 즉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지만 그 명(命)은 새롭다는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 40여년 독립투쟁과 3년간의 건국투쟁을 거쳐 마침내 초대 대통령이 되어나라의 첫 골격을 짜던 당시 이승만 박사의 절박하고도 절절했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명구(名句)다. 이승만 박사는 한시에 능했던 시인이기도 했다.

조각당에서 내려오면 좌측 아래쪽에는 이승만 박사의 양자인 이인수 전 명지대 교수 부부가 생활하는 공간이 보이고 정면에 있는 1층짜리 단출

한 한옥이 바로 이화장의 본채다. 1945년 10월 오랜 하와이 망명생활을 끝내고 환국한 이승만 박사는 잠시 조선호텔에 머물다가 한민당 장덕수의 도움으로 돈암장에 거처를 마련한다. 돈암장은 중급 규모 사찰의 대웅전 크기와 비슷한 단아한 한옥이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 문제를 놓고 이승만과 하지중장이 극한대립을 계속하자 장덕수는 돈암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고 어쩔 수 없이 이 박사는 미군정이 앞선해준 마포장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마포는 당시만 해도 교통이 좋지 않아 이 박사는 하지가 자신을 연금시킨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1947년 말쯤 하지가 추진했던 좌우합작노선이 실패작임이 드러나고 이승만의 건국노선이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당시 비서실장이던 윤치영이 나서 이승만 박사를 적극 지지하는 실업인 30여명의 모금으로 이화장을 사들여 이 박사에게 기증했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마포장은 아쉽게도 이제 그 터만 남아 있다.

본채는 ‘ㄷ’ 자(字) 모양을 하고 있는데 ‘ㄷ’ 자안쪽 외벽에는 이승만 90년 생애를 보여주는 사진 화보들이 다소 무질서하게 전시되어 있다. 오랜 기간 망각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유족들로서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그나마라도 ‘기념관’의 명맥을 유지해온 것이 놀랍고 고마울 따름이다. 본채 한쪽에는 이승만, 프란체스카 내외분이 이화장에 머물 때 사용했던 침실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다. 물론 많이 낡았다. 처음 이화장을 방문하는 사람은 침실이 너무나도 협소한데 놀라고 또 믿기지 않을 만큼 모든 게 검소한데서 더 놀라게 된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친정에서 보내온 종이 박스마저 옷장으로 사용했던 두 사람의 근검절약 정신에 나도 모르게 다시 옷깃을 여민다.

돌아나오는 발길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자위도 해본다. 미국인보다 미국정치를 더 꿰뚫고 있었던 우리의 건국 대통령과 한국인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미래를 걱정했던 오스트리아 출신 초대 영부인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이화장의 존재이유는 충분하다. 30분 남짓 이화장을 둘러보는 일. 그것은 대한민국 60년의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는 역사의 산책이다. 

글 이한우(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다시보는 서울

명동, 이국적 화려함 그 너머

-대중가요 속의 명동



옛 명동입구

1950년. 명동은 지역을 넘어서 하나의 '브랜드'였다. 명동에서 먹고마시고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모던 보이, 모던 걸들의 삶이었다면, 그들의 삶을 동경하는 중하층 사람들에게 명동은 화려한 꿈이자 좇고 싶은 유행이었다. 한 시대, 욕망의 핵심이었던 명동과 그 곳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중가요에도 흐르고 있다. 당시의 대중가요 속에서 명동의 성쇠를 살펴본다.



충무로 입구 풍경



충무로 안쪽에서 본 혼마치

이제 명동에서는 묘한 골동품 냄새가 나는 듯하다. 어느 골목길을 돌아 서면 일본에 와 있는 듯한 느낌조차 든다. 일본에서 온 쇼핑 관광객들을 위해 여기저기 붙여놓은 일본어 간판 때문만은 아니다. 화려하게 덧붙인 간판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가려지지 않은 1950, 60년대 건물의 흔적들이 그런 냄새를 풍기는 것일 게다. 우리나라는 빨리 허물고 빨리 짓기 때문에 새 건물이 많은데, 일본에 가보면 마치 우리나라 1960년대의 디자인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예스러운 건물이 아주 깨끗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은가. 명동은 서울에서는 매우 드물게, 주택이 아닌 옛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명동이 이런 느낌의 공간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격세지감이 있다. 명동은 아주 오랫동안,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최첨단 상업 지구였고 늘 땅값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기도 했다. 마치 1990년대 압구정동이 그랬듯이, 명동이란 이름은 세련되고 화려한 소비문화의 상징이었다.

시대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

식민지시대 그곳은 명치정(明治町)이었고, 그 옆은 당시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곳인 혼마치, 즉 본정(本町)이었다. 조선의 협객 김두환의 전설 같은 이야기에서도 일본인 주먹패 하야시의 본거지가 바로 이곳 혼마치였다. 해방 후 본정은, 충무로라는 이름(충무공의 힘으로 일본의 기세를 누르려는 의도적인 작명이 돋보인다)으로 불렸지만, 우리가 명동이라고 부르고 찾아갔던 그곳은 꼭 명동만이 아니라 그 옆의 충무로와 건너편 신세계백화점까지를 아우르는 넓은 지역이었다. 즉 식민지시대에는 본정을 둘러싼 일본인 상업·금융의 중심가가 바로 이곳이었던 것이다.

식민지시대 대중가요에서 이곳의 건물 이름이 등장하는 노래가 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 나와 유명해진 노래 <오빠는 풍각쟁이>이다.

오빠는 트집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
난 싫어 난 싫어 내 편지 남 몰래 보는 건 난 싫어 /
명치좌(明治座) 구경 갈 땐 혼자만 가구 심부름 시킬 때는 엄병땡 하구 /
오빠는 핑계쟁이 오빠는 안달쟁이 오빠는 트집쟁이야
박항림 <오빠는 풍각쟁이> 2절(1938, 박영호 작사, 김승규 작곡)

이 노래의 1절에는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구 오이지 콩나물만 나한테 주구’라는 구절이 있다. 이 집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자. 기본 반찬은 오이지와 콩나물 같은 것이지만 가끔이나마 불고기를 해먹는 집안, ‘날마다 회사에선 지각만 하구 월급만 안 오른다구 짜증만 내’는 회사원 오빠와, 그에 맞서서 앙탈 부리는 여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동생이 있는 집안이다. 자녀들을 모두 교육시키고 가끔 고기반찬도 해먹을 수 있으니, 그래도 안정된 중상류층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이런 가정의 여학생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명치좌’이다.

명치좌는 1935년 일본인 흥행업자가 지은 영화관으로 공연장으로도 자주 쓰인 문화공간이었다. 바로 지금 명동예술극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이다. 해방 후부터 1970년대 장충동 국립극장 건물이 생길 때까지 국립극장으로 쓰였고, 그 이후에도 예술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연극 등을 공연하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금융회사가 쓰고 있었다. 화신백화점도 삼성그룹에 의해 헐리고 동양극장도 현대그룹에 의해 헐린 후, 이 공

간만은 지켜야 한다는 연극인들의 염원이 이루어져 이제 정부가 맡아 리모텔링을 하고 있다. 이 명치좌는 일본 등 외국 영화를 주로 상영하였고 공연도 일본의 연극이나 고급음악 등을 주로 올린,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비싼 공연장이었다.

명동은 이런 곳이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미스코시백화점(현재 신세계백화점), 조선은행(현재 한국은행) 등 화려한 건물이 있고 가스등과 네온사인, 상들리에로 분야성을 이루었다. 그곳은 청계천 건너, 조선인들의 공간인 종로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화려하고 멋진 곳이었다. 일본어와 일본식 근대문화에 능란한 모던보이, 모던걸들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충무로를 포함한 명동은, 바로 일본이 만들어놓은 식민지적 근대를 가장 멋지게 구현한 곳이었던 셈이다. 식민지시기에 태어나 일본어를 ‘국어’로 배우며 성장한 1910, 20년대 생들은 도쿄와 가장 비슷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을 수 있다.

해방과 분단을 겪으면서 이름을 바꾼 이 지역은, 여전히 화려한 소비의 중심지였다. 물론 모습은 전쟁으로 크게 파괴되었고, 명동성당만 동그마니 보존되었다. 하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명동과 충무로는 여전히 화려한 곳의 대명사였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빠르게 복구되어 화려함을 되찾았다. 1950, 60년대야말로 이곳이 대중의 마음속에서 가장 화려하게 꽃피었던 정점의 시기가 아닐까 싶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1950, 60년대의 명동은 서울에서 가장 한국 같지 않은 곳, 한국의 구질구질함을 벗어버리고 세련되고 화려한 상상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점이다. 즉 명동은 이 시대의 욕망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건립 중인 명동예술극장

봄비를 맞으면서 충무로 걸어갈 때 / 쇼윈도 그라스에 눈물이 흘렀다 /
이슬처럼 꺼진 꿈속에는 잊지 못할 그대 눈동자 /
샷별같이 십자성같이 가슴에 어린다(중략)
네온도 꺼져가는 명동의 밤거리에 / 어느 날이 버려졌나 흩어진 꽃다발 /
레인코트 깃을 울리며 오늘밤도 울어야 하나 /
베가본드 맘이 아픈 서울 엘레지
현인 <서울야곡> 1,3절(유호작사, 현동주작곡)

1950년대 명동에 모인 사람들의 태반은 돈 없고 시간만 많은 지식인들이었고, 커피 한 잔에 하루 종일 다방에 죽치고 있다가 술 시준다는 사람을 따라서 빈대떡에 막걸리로 저녁을 버티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의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명동 풍경은 이런 것이었다. 네온사인, 쇼윈도 그라스에 넘쳐나는 미제물건들, 화려한 양장점, 양복점, 구두가게들이 있는 곳이다. 레인코트를 입고 비를 맞으며 거니는 낭만적인 ‘깃’을 해도, 버려진 꽃다발이나 누군가 내던진 담배꽂초에 상념을 담아도 용서가 되는 공간이었다.

이런 멋진 풍경을 담아내는 음악은 트로트가 아니라 새로 들어온 양풍의 음악 탱고였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일본 음악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한, 이국적 풍모의 가수 현인이었다(게다가 이 곡의 작곡자 현동주는 현인의 본명이다).

빌딩의 그림자 황혼이 짙어갈 때 / 성스럽게 들려오는 성당의 종소리 /
걸어오는 발자욱마다 눈물 고인 채 침춘 /
죄 많은 과거사를 뒤우쳐 올 적에 / 오 산타 마리아의 종이 울린다
나애심 <미사의종> 1절(세고석작사, 전오승작곡)



명치좌 현 건물인 대한투자금융



옛 명동일대 거리

이 노래 역시 블루스적인 리듬과 선율을 지니고 있다. 여자가수의 목소리는 블루지한 탁성이다. 사랑이 깨어지고 과거를 뒤우치는 비극적 순간도 명동성당의 성모마리아 앞에서라면 훨씬 품이 난다. 거름 냄새가 덜 가신 왕십리 어느 골목길이나 새우젓 냄새 나는 마포나루에서 울고 있는 것보다, 명동에서 성모마리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다니 얼마나 멋진가 말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돈이 좀 생겨서 품 나게 놓고 싶으면 무조건 명동으로 갔다. 당시에는 야간통행금지가 있었고,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날은 일 년에 딱 두 번, 성탄절과 1월 1일뿐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선달그믐 밤에는, 정말 모든 서울의 젊은이들이 모인 것처럼 명동이 북다거렸다. 아니, 걸을 수가 없어서 밀려다녔다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물론 특별히 용무가 있어서는 아니다.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보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냥 명동에 나가는 거였다. 왜? 명동이니까.

명동의 시대가 저물다

그러나 명동이 이렇게 멋진 거리로 표현되는 것은 1960년대가 마지막이었다. 벌써 1960년대가 되면, 세련됨을 자처하는 노래에서 '명동'이라는 특정 지명이 거론되는 것이 다소 기피되기 시작한다. 서양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노래로는 패티김의 〈서울의 모정〉 정도에서나 명동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뿐이다. 명동을 두드러지게 제목에서 내세우는 노래들은 대부분 당시 첨단 유행에서 뒤졌다 싶은 트로트 계열의 노래들이었다. 오기택의 〈명동 부르스〉, 배호의 〈비 내리는 명동〉, 문주란의 〈명동 왈가닥〉 등이 다 그런 노래들이다. 명동이 멋지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티를 내면서 명동을 내세우는 것이 다소 촌스럽다고 느껴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아마 이렇게 명동을 티 나게 내세우는 노래들은 평소에 별로 명동에 나가보기 힘든 사람들이 좋아했을 노래가 아니었을까 싶다. 정작 명동을 밥 먹



명동성당 예전 모습

듯 다니는 사람들은 명동이란 지명을 내세울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명동 거리를 거닐면서 뉴욕이나 도쿄나 파리의 어느 거리를 걷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바로 그러한 '탈 한국'의 욕망 때문에 그들이 명동을 좋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명동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명동 그 이상'을 꿈꾸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하층 사람들에게 여전히 명동은 꿈의 공간이었고, 그것이 대중가요의 제목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청년문화 시대가 되면 달라진다. 당시 문화를 선도하는 최첨단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명동을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게 된 것이다. 1970년대는 전후 세대들이 청소년기에 도달하여 기성세대와는 구별되는 자신들의 생각과 문화를 내세우는 시대였다.

학교 앞에 책방은 하나요 대폿집은 열이요/
이것이 우리 대학가래요/
학교 앞에 책방은 하나요 양장점은 열이요/
이것 정말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교수님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후렴) 내 친구야 묻달 말어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요 새야 새야 참새떼야 말 많은 새야/
매연가스에 쫓겨 가다니요/ 밤이 되면 짧은 치마의 주정뱅이들/
연탄개스에 조심하라구요/ 명동거리 걸어가는 아가씨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후렴)
서유석 <파란 많은 세상> 1, 2절(서유석 작사, 밥딜런 작곡)

어쩌다 만난 그 여자는/ 숙넵 하고 색안경 썼네/
어쩌다 만난 그 여자는 월남 갔다 와 영어만 하네/
나는 그런 여자 싫어 무서워서 나는 싫어/
나는 그런 여자 싫어 아니꼬워 나는 싫어
사월과오월 <내가 싫어하는 여자> 부분(백순진 작사·작곡)



이대 앞 거리



동숭동 거리

통기타에 단순한 선율을 얹은 이런 노래를 부르는 세대들에게 명동은, 그리 편한 공간은 아니었다. 물론 그곳에서 생맥주를 마시고, 라디오에서도 듣기 힘든 록과 포크의 생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건돈이 많을 때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이미 명동은 기성세대들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유명 양장점, 양복점들도 돈 없는 대학생으로서는 드나들기 힘든 곳이었다. 명동은 미팅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에, 주머니에 돈을 좀 두둑이 챙겨 넣고서야 나설 수 있는 곳이다.

그들이 이렇게 명동에 거리를 두니, 명동 분위기를 이제 비판적으로 그려낼 수 있게 되었다. 위의 노래에서 그리고 있는, 짧은 치마에 술 취한 여자들, 짙은 화장에 색안경 끼고 영어를 과시적으로 늘어놓는 여자들의 공간이 바로 명동이다. 즉 명동은 화려하지만 품격은 떨어지는 공간이 되었다.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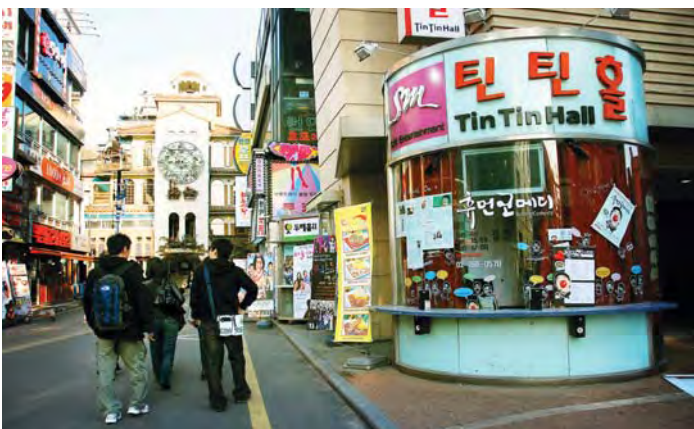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은 영어와 미국문화, 댄스홀과 다방을 세련된 문화로 받아들이던 기성세대들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그들에게 편한 공간이란 자신들의 생활공간, 즉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종로(북촌에 학교들이 밀집해 있었고 종로에는 단과반 학원들이 즐비했다), 재수 학원을 다니던 광화문(대성학원이 광화문에 있었다), 신촌의 대학가 같은 곳이었다. 좀 더싼 값으로 놀 수 있는 곳, 만만하고 편안한 곳은 명동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었다.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젊은이들이 모여 술 마시고 노는 공간이 대학로로 옮겨가더니, 1990년대에는 급기야 압구정동 오렌지족이 신세대 소비문화의 상징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이제 명동의 시대는 완전히 저물었다.

글 이영미(대중예술평론가)



동숭동 거리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일대

옥상정원 인공과 자연의 아름다운 동거

도시와 자연이 동거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우리의 머리 위에서 말이다. 절대 함께 지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둘이 건물 옥상에서 재회하면서, 사람들의 삶에 색다른 행복이 찾아왔다. 옥상정원은 시멘트를 닳아가던 도시 사람들에게 자연과 휴식의 소중함을 찾아준다.

아외 탁자, 산책로, 홀마리 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초화류와 세덤류를 식재해 놓은 국립극장의 옥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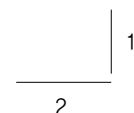
녹색 모자를 눌러쓴 빌딩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건물 옥상에 싱그러운 정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삭막한 도심의 스카이라인에 조금씩 녹색 물이 들기 시작했으며, 모눈종이처럼 빈틈없는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색다른 휴식 공간을 갖게 됐다.

아픈 현실이지만 도시는 아스팔트 도로와 콘크리트 건물의 거대한 진열장이다. 이제 도심 한복판에서 흙의 보드라운 감촉과 자연의 충만한 생명력을 느끼기란 난망한 일이 되어 버렸다. 옥상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저 빨래를 널거나 소용없는 물건들을 아무렇게나 쌓아두는 곳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아예 문을 굳게 닫아 건 채 외부인의 발길을 마다한 옥상들도 수두룩했다. 그렇게 시멘트 사막화에 일조하던 옥상의 표정이 차츰 바뀌고 있다. 무미건조하던 공간에 다양한 식물들이 식재되고 그럴 듯한 정원이 만 들어지면서 작지만 소중한 생명의 땅으로 거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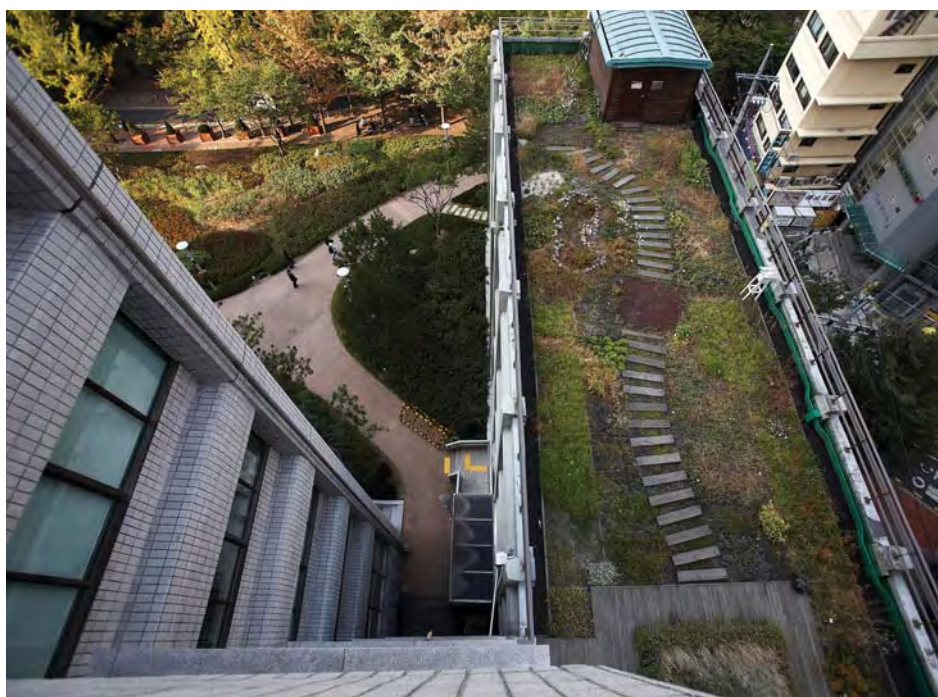
나고 있는 것이다. 각다분한 일상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보듬어주며, 일부는 시민들을 위한 생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제 옥상정원은 시멘트의 바다로 변한 도시가 나름의 활력을 얻기 위한 지혜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도 오는 2010년까지 10만 평에 이르는 옥상을 녹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며, 각 지자체도 의욕적으로 ‘녹색 지붕’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소를 뿜고 빗물을 머금다

아직까지 그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계획적인 조성과 세심한 사후 관리만 병행된다면 옥상정원은 여러 모로 쓰임새가 많다.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은 기본이고 도시 환경 개선에도 나름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옥상을 50제곱미터 정도 녹화할 경우 한 사람이 하루 동안 호흡하는데 필요한 산소를 생산해낼 수 있으며, 도시 기온을 5도가량 떨어뜨림으로써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 1 _ 한국유네스코회관의 옥상정원 작은 누리 이름처럼 아담한 세상이지만 그 안에 큰 우주가 깃들여 있다.
- 2 _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옥상에 조성된 정원 초록들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유명한 덕수궁 돌담길이 내려다보인다.





3

4

3 _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죽은 공간' 옥상이 안온한 휴식처로 다시 태어났다.

4 _ 옥상정원에는 다채로운 화초뿐만 아니라 야채와 과실수를 심기도 한다.



있다. 토심 10센티미터로 옥상 공원화 시 소음이 20데시벨 정도 감소하며, 100제곱미터 당 200~300리터의 빗물을 저장해 도시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또 옥상 공원화로 냉난방 에너지를 16.6퍼센트 절감하고, 지붕 방수층의 기대 수명도 40년 이상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3동 옥상에 마련된 '초록뜰'은 옥상정원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곳이다. 옥상녹화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가 일종의 모범 사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2000년 당시 47종의 식물이 식재됐는데, 현재는 100종 이상의 초본식물들이 더불어 살고 있다. 무당벌레를 비롯한 30여종의 곤충도 관찰할 수 있다. 초록뜰에서는 재미있는 점이 한 가지 발견된다. 정원을 조성할 무렵 직접 식재한 종류보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풀씨들이 정착한 종류가 더 많다는 것이다. 옥상정원이 공중을 떠다니는 생태계 방랑자들을 위한 또 다른 안식처가 되고 있는 셈이다. 2006년 새롭게 발견된 75종의 이입 식물 중에는 바람을 통해 번식

하기 쉬운 국화과의 식물들이 대종을 이루지만, 교목의 종묘가 자리를 튼 경우도 있다. 새얼굴 가운데 꿀풀이나 부처꽃 등은 5월부터 7월 사이에 특유의 보랏빛 자태로 정원을 화사하게 수놓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이 작은 우주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곤충 전문가들은 매년 2~3번에 걸쳐 초록뜰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역시 지난 2006년에 있었던 곤충 모니터링에서는 호리꽃등에, 꼬마꽃등에 등을 포함해 8목 25과 46종의 곤충들이 관찰됐다. 꽃등에는 보통 몸의 길이가 1.4~1.6센티미터 정도 하는데, 꽃의 꿀을 빨아 먹고 애벌레는 비교적 지지분한 물에 산다. 초록뜰의 여름을 주름잡는 곤충은 알락귀뚜라미와 왕귀뚜라미다. 온 힘을 기울여 목청껏 울어댄다. 하지만 가을로 접어들면 대부분의 곤충들이 추위를 피할 곳을 찾아 분주히 움직인다. 생명체들은 제각기 돌아갈 시각과 위치를 알고 겸허한 자세를 보여준다. 잎들도 떨어져야 할 시각을 맞추고 동물들도 활동을 멈춰 겨울잠 잘 곳을 찾는 것이다.

큰 자연이 깃든 작은 세상

중구 명동에 자리한 한국유네스코회관은 '작은 누리'라고 명명된 옥상정원을 보듬고 있다. 총 190여 평의 공간에 꽃과 나무, 벤치와 분수등을 갖추고 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생태 연못이다. 여름철이면 연못을 휘젓고 다니는 소금쟁이와 송사리 떼를 볼 수 있다. 도심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갯버들과 부들 등의 습지 식물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작은 누리'의 생태 연못을 오도카니 들여다보고 있지 않나 언젠가 방문했던 경남 창녕군의 우포늪이 떠오른다. 우포는 두말 할 나위 없이 국내 최대의 자연 늪이다.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에 서부터 이방면 안리, 유어면 대대리 그리고 세진리에 걸쳐 있는데, 그 면적만 해도 무려 70만 평에 이른다. 호호막막한 늪지에는 수많은 물풀들이 머리를 내밀고 있다. 부들, 창포, 갈대, 줄, 붕어마름, 연꽃 등이 무더기로 자라며 늪에 반쯤 밀동을 담고 있는 나무들이 태곳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우리나라 전체 식물 종의 10퍼센트, 수

생 식물의 50퍼센트가 서식하고 있으니, '천연 생태 은행'이라는 표현이 과분하지 않다.

우포는 계절 없이 아름답다. 봄이 되면 수생 식물이 푸른빛을 띠기 시작하고, 늪 주변 산등성이와 평지의 나무들 가지에 수액이 오르며, 개구리와 뱀들이 겨울잠에서 눈을 떠 움직이기 시작한다. 시간의 퇴적층에서 떠오른 수생 식물들을 바라보면 마음속에 샅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야말로 안전한 시간이다. 여름의 우포늪은 더욱 강렬한 냄새를 풍긴다. 붕어, 가물치의 씨알이 굵어가고 곤충들의 나라가 된다. 뜨거운 피약벌에서도 생명체들은 성장 호르몬과 정액 냄새를 피운다. 물밀은 적자생존의 전쟁터다. 생존을 위한 먹느냐, 먹히느냐의 이수라장이다. 그러나 수면 위의 가시연꽃은 향기를 뿌리고 물옥잠들도 평화롭기 그지없다. 가을의 우포는 은빛의 역세로 뒤덮여 절정의 운치를 뽐낸다. '작은 누리'의 연못과 우포는 분명 비교할 계제가 못 된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어디 규모로만 따질 일인가. '작은 누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단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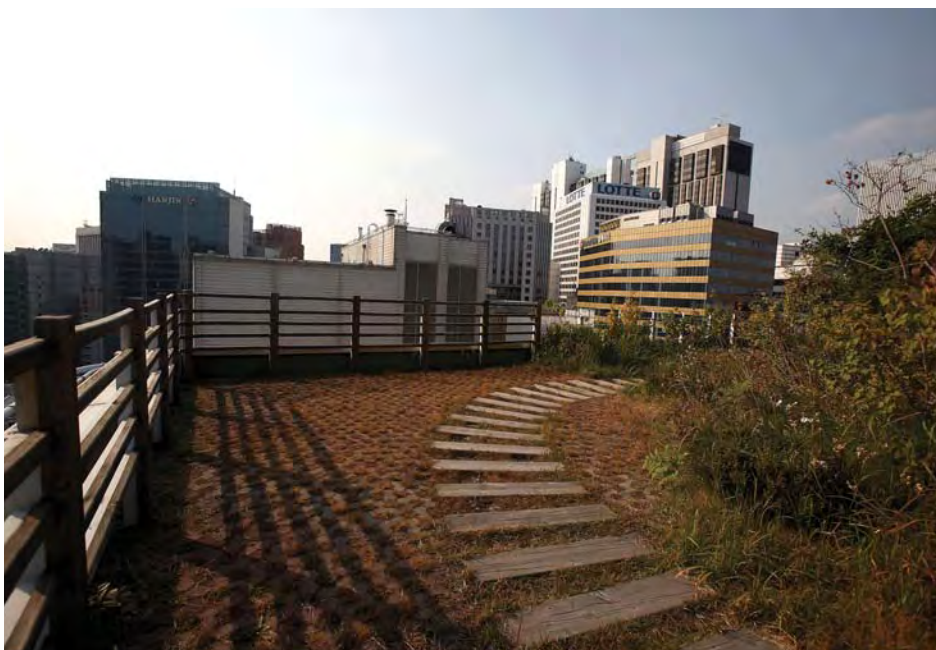


1

2

3

- 1 _ 옥상정원 작은 누리 한쪽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나무 벤치가 마련돼 있다.
- 2 _ 작은 누리의 백엽상. 가상 관측용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조그만 집 모양의 흰색 나무 상자다.
- 3 _ 옥상정원은 콘크리트 빌딩으로 둘러싸인 도심 속 생태계의 보고이자 한 줄기 삼상한 바람과도 같은 존재다.





1

2

- 1 _ 영등포병원의 옥상정원에는 지압 보도가 설치돼 있다. 맨발로 걸으면 건강에도 좋다.
- 2 _ 국립극장 옥상정원에 놓여 있는 장독. 미니어처 같은 조그만 초가집이 얹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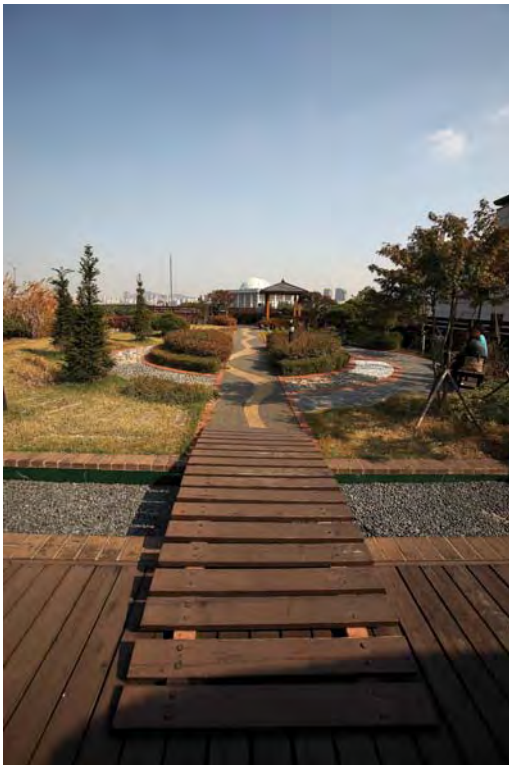
연못에도 인간이 만질 수 없고 언어로 개입할 수 없는 생태계의 도저한 법칙이 흐르고 또 흐르는 법이다. 하늘 아래 나무와 풀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햇살과 바람을 빨아들이며 익어간다. 김용택 시인의 표현대로 누가 가꾸지 않았어도, 우리들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도, 나와 언제 그러마고 약속을 하지 않았어도 마치 지상의 모든 것들과의 굳은 약속인 양 저렇게 눈이 시리게 풀꽃들은 피어난다.

가을이 내려앉은 정원

대한민국 공연의 메카인 국립극장에도 최근 옥상정원이 들어섰다. 지난 3월 말부터 공사에 들어가 5월 초순 정원을 완성했다. 763제곱미터의 국립극장 관리동과 520제곱미터의 기계동 옥상바닥에 배수관을 간 다음 산책로와 야외 탁자 등을 설치했다. 식물로는 구절초, 두메부추, 제주양지꽃 등을 심었다. 군데군데 놓인 장독들이 일견 평범해 보이는 정원의 분위기를 잡아준다. 옥상정원에서 만난 국립극장의 한 관계자는 “정원을 만들면서 자연스러움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귀띔해주었다. 건물의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점은 못내 아쉬웠다.

정원에 핀 꽃들은 그 유래와 이면에 담긴 사연들을 알고 나면 더욱 흥미롭다. 들국화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구절초는 꽃무리가 아름다워 오랫동안 관상용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보통 추석 무렵이면 들녘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예부터 부인병이나 두통 및 탈모 예방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늘에서 열흘쯤 말렸다가 차를 끓여 먹거나 베개 속에 넣고 자면 머리카락이 하얗게 세는 것을 막아준다는 민간요법도 내려온다.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인 두메부추는 일반 부추가 흰색 꽃을 피우는데 반해 화려하기 짝이 없는 자색 꽃을 선보인다. 양지꽃은





3 | 4

3 _ 휴게 공간과 산책 공간이 잘 어우러져 있는 화학시험연구원의 옥상정원.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주변 전망도 빼어나다.

4 _ 억새가 심어져 있는 화학시험연구원의 옥상정원은 가을빛이 완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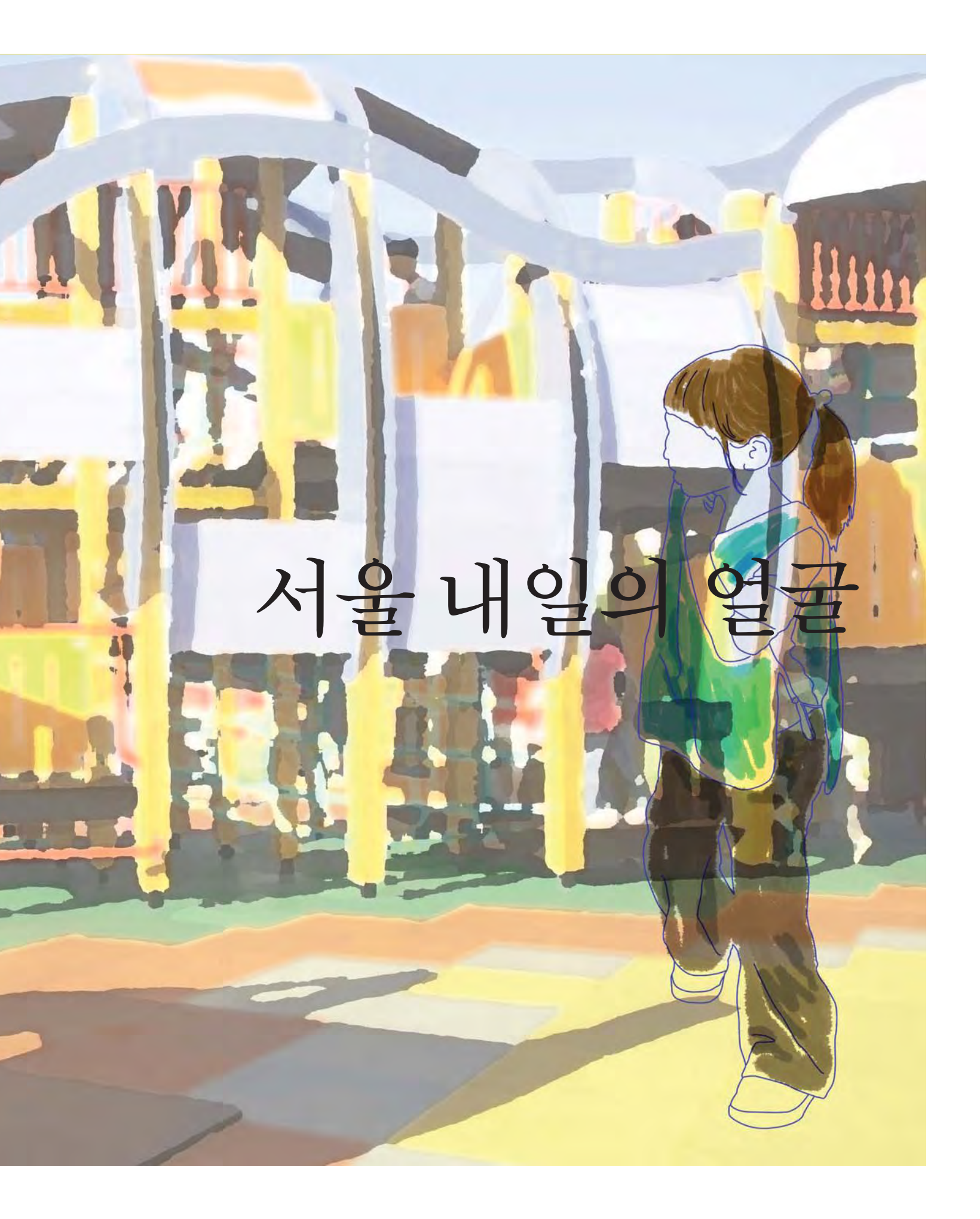
빛이 많고 건조한 양지에서 자란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햇빛을 잘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진한 노랑 빛을 띤다. 양지꽃은 모두 합쳐 20종쯤 되는데, 양지꽃보다 조금 늦게 피면서 앞과 꽃이 닮은 나도양지꽃, 높은 산허리에 자라는 너도양지꽃, 온몸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솜양지꽃, 돌이나 바위틈에서도 잘 자라는 돌양지꽃, 물가에서 서식하는 물양지, 기는 가지로 번식하는 누운양지꽃, 제주에 분포하는 제주양지꽃 등 그 각각의 이름표가 생김새만큼이나 정감 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화학시험연구원의 옥상정원은 전망이 유달리 활달하다. 정원에 서면 한강이 시원스레 펼쳐진다. 시선이 멀리까지 거침없이 뻗어나간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상량한 바람에 몸과 마음 모두 상쾌해진다. 정원 한쪽에

심어진 억새가 쉼 새 없이 부는 바람과 실랑이하는 모습이 운치 있다. 가을에, 가벼워진 햇살의 알맹이들은 마른 곡식처럼 바스락거린다. 억새 위로 쏟아지는 햇빛 한 자락이 찬연하다. 큰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파리의 연인〉과 영화 〈키다리 아저씨〉가 이 아름다운 정원을 일찍이 거쳐 갔다. 영등포병원 옥상정원은 병원이라는 특성에 맞게 지압 보도가 설치돼 있어 맨발로 건강을 다질 수가 있다. 다른 옥상정원에 비해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심신이 지친 사람들을 위한 안온한 휴식처임에는 틀림이 없다. 건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옥상정원을 찾은 사람들은 날로가 팔라져가는 비명 같은 삶의 속도를 늦춘 채 권태의 쾌감과 무위의 일락을 마음껏 누린다. 

글 사진 노중훈 (여행 칼럼니스트)





서울 내일의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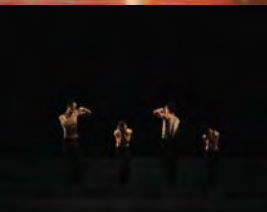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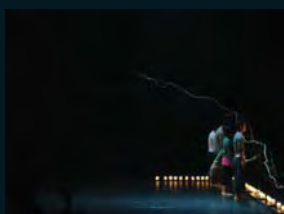


현대 무용이 말을 걸어올 때

서울열린극장 창동 '모던 프로젝트'
참여 안무가

5 인 인터뷰

제임스전 | 안성수 | 홍승엽 | 이태상 | 최재희



10월의 첫째 주 다양한 주제,
다양한 몸의 언어가
버무려진 현대 무용의
정찬을 서울열린극장
창동에서 맛볼 수 있었다.
중견 안무가 3인과
신진 안무가 2인이 참여한
‘모던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과 더불어
발전하는 예술 메카를
꿈꿔온 서울열린극장 창동이
개관 4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공연. 이번 무대를 통해
관객들은 현대 무용의
진수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모던 프로젝트’에 참여한
5명의 안무가를 만나본다.

지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대한민국 대표 안무가 5인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모던 프로젝트’가 서울열린극장 창동무대에 올랐다. ‘모던 프로젝트’는 서울열린극장 창동의 개관 4주년 기념 공연으로 대한민국 현대 무용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특히 중견 안무가 3인과 신진 안무가 2인이 참여해 중견의 노련함과 성숙함, 신진의 재기발랄한 아이디어와 안무력을 느껴볼 수 있었다. 그야말로 다양한 소재, 다양한 느낌이 공존하는 현대무용의 정찬인 셈이다.

이번 ‘모던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견 안무가의 면면은 단연 우리나라 현대 무용을 대표하고 있다. 서울발레시어터(SBT)의 제임스 전, 안성수 픽업 그룹의 안성수, 댄스시어터 온의 홍승엽이 공연의 선두에 섰다. 여기에 바통을 이어받은 신진 안무가는 2008 젊은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나트(NArT)의 최종 선정자 이태상댄스프로젝트의 이태상, CDP무용단의 최재희였다. 첫날(1일) 무대에 오른 제임스 전은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Edvard Munch)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은 〈MASK〉를 올렸다. 제임스 전의 무대가 끝난 후 이태상은 〈소극의 의미〉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둘째 날인 3일에는 안성수와 최재희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안성수는 미완성 신작 〈장미〉를, 최재희는 단절에 대한 극복 의지를 담은 작품 〈소통〉을 선택했다. 마지막 날(5일)에는 홍승엽의 작품이 단독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이미 지난 공연에서 호평을 받은 〈달보는 개〉와 〈데자뷔〉를 선보여 관객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달 ‘포커스 인터뷰’에서는 ‘모던 프로젝트’에 출연한 안무가 5인방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인터뷰 및 정리 전지영 기자

※ 포커스 인터뷰는 서면 질문지를 통해 받은 답을 기초로 구성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를 담은 그릇 제임스 전

서울발레시어터의 상임안무가 제임스 전은 한국 '모던 발레'의 선두 주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와 서울발레시어터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다양한 작품들은 단순히 작품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는 '시도', '실험'의 범주에 속했으며, 선구자적이었다. 특히 그는 작품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 감성을 끌어내고, 이를 한국적 정서와 접목시키려고 꾸준히 노력해 왔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열정을 더해가는 제임스 전의 이번 공연 소감을 들어본다.



〈Mask〉가 이번 '모던 프로젝트'의 첫문을 열었다. 공연 소감은 어떤가. 마스크는 작년 서울발레시어터의 유럽 순회공연(터키, 이스라엘, 세르비아)에서 초연하여 호평을 받았고,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초청작으로 공연했었다. 서울열린극장 창동 개관 4주년을 기념하는 '모던 프로젝트'를 통해서 1년 만에 다시 공연하게 되었다. 초연 때 보다 더 멋진 작품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내심 부담감도 있었다. 하지만 다시 공연하게 되어서 기쁘다. 창동극장에서 모던 발레는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레를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던 발레도 좀 더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번에 선보인 〈Mask〉는 몽크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다. 몽크의 그림은 어떤 방식으로 차용되었나?

몽크의 11개 작품을 토대로, 그 작품이 나타내는 인간들이 살아가며 겪는 고뇌와 감정들을 발레로 표현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과 몽크의 작품이 잘 맞아 떨어진 것이다. 각기 작품마다 나타내는 주제가 달라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공연 전반에 흐르는 원색적인 조명, 의상이 인상적이다. 이렇게 색감이 강한 조명이나 의상을 쓴 이유가 있나.

몽크 작품들은 거칠고 강하다. 물론 몽크 자신만의 표현 스타일이지만, 나 역시 인간의 질투와 욕망, 사랑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해 강한 색감을 선택했다.

각 장을 풀이해 놓은 내용을 보았다. 〈3장-남자와 여자〉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행복과 슬픔의 시작'이라고 했으며, 〈5장-입맞춤〉은 '사랑보다는 서로 서로 필요한 순간'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죽음, 질투 등의 중심 내용을 보니 인생에서 느껴지는 '환희' 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슬픔'이나 '결핍'을 더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

우리 인간의 삶에는 희로애락이 다 있다. 그러나 나는 인간에 대한 오직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다루고 싶었다. 몽크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듯이 삶의 힘든 부분, 인간적인 아픔을 더 표현하고 싶었다.



한국적 색깔을 입히는 데 관심이 많은 것 같다. 2007년 선보인 〈호두까기 인형〉에서도 2막에서는 한복을 입은 어린이 무용수들이 나와 전통 춤을 추고, 상모돌리기까지 선보인다. 〈Inner Moves〉도 한국적인 리듬이 인상적이다. 이번 작품도 한국적 색채가 전면적으로 드러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한국적 색채를 가미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일부러 어떤 효과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한국적인 냄새, 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 되었다. 예를 들어 음식 중에서 불고기와 샐러드를 접목한 불고기 샐러드가 있다. 나는 단순히 퓨전과 믹스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한국인만이 표출해 낼 수 있고 관객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 한국적인 맛을 낸다. 서울발레시어터의 작품을 통해 해외에서도 이런 한국적인 독특한 맛과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것을 인정받고 싶다. 이것이 글로벌화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이다.

아직도 무용계는 경제적 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다. 서울발레시어터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즐거움만큼 힘든 부분도 많았을 것 같다. 서울발레시어터를 대표적인 현대 발레 단체로 이끌어 오면서 느낀 바가 있다면.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발레를 더 대중적으로 만들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고, 우리의 발레를 세계화하며, 국내 프로발레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는 것과 서울발레시어터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단체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많이 노력했고 외국으로 작품도 수출하고 있다.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이 있다. 야구선수 이승엽이 말했듯이 “혼을 담은 노력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계획이나 준비 중인 작품이 있나.

작년에 서울발레시어터와 성남아트센터가 합작한 〈호두까기 인형〉을 올해 더욱 발전시켜서 관객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ABT에서 주역무용수를 초청하여 월등한 기량을 보여 줄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발레 안무가로서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다면.

없다. 나는 철학으로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가르칠 철학도 없다. 나는 그저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느끼고 사랑하는 것을 나의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을 뿐이다.



◆ 제임스 전 프로필

서울발레시어터 상임안무가 / 줄리어드 예술대학 졸업 / 전 모리스 베자르 발레단 단원 / 전 플로리다 발레단 단원 / 전 유니버설 발레단 솔리스트 / 전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 / 현 한국체육대학교 생활무용학과 교수

수상경력

1998년 무용예술사 선정 올해의 안무가상 수상 'Being 1,2,3' / 2004년 제11회 무용예술상 작품상 수상 '백설공주' / 2005년 서울무용제 안무상 수상 '봄, 시냇물' / 2005년 올해의 예술상 무용 부문 우수상 수상 '봄, 시냇물'

주요작품

〈현존 I, II, III〉, 〈사계〉, 〈창고〉, 〈Inner Move〉, 〈백설공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2를 위한 변주〉, 〈호두까기인형〉, 〈봄, 시냇물〉, 〈마스크〉 등 다수

온화하고 정성스러운 안무가 안성수

그에게 춤은 종교다. 그는 안무를 할 때 늘 신에게 제의를 드리듯 정성스러우며, 그에게 안무는 늘 반복을 거듭하는 구도자의 자세를 불러일으킨다. 늘 '공부하는 자세'로 새 작품에 임한다는 안성수가 이번 '모던 프로젝트' 무대에 올린 작품은 <장미>. 내년 8월 완성될 예정인 이 작품이 안성수의 손에서 어떻게 다듬어질지 자못 기대 된다.



미완성인 작품 <장미>를 선보였다. 미완성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터라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공연 소감은 어떤가.

부담감보다는 미리 한번 관객들과 만날 수 있어 즐거웠다. 특히, 관객들의 대부분이 무용인이 아닌 대중들이고, 그들이 즐겁게 보는 것이 기뻐다. 미완성이지만 움직임과 구성적인 면에선 지난 1년간 꾸준히 준비해와 튼튼한 뼈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드러난 성과나 보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이번 공연의 성과라고 한다면 내년 8월까지 작품 '장미'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섰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음악 상에서 미흡해 보이는 부분들을 더 정교하고 흡집이 보이지 않도록 다듬으려 한다.

<장미>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장미>는 '봄의 제전'을 재구성한 기존 작품들과 어떤 면에서 다르게 접근했는지 궁금하다.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음악의 스토리는 14개의 단편이고, 나는 그 구조에 충실하려 했다. 단 음악의 구조위에 각 음악을 들으며 읽은 타로카드의 스토리로 재구성 하였다. 예를 들면 1번 음악을 들으며 타로

카드를 읽었을 때 나온 카드는 시간과 바보카드였다. 이것을 해석하면 '자연과 우주의 적당한 타이밍 속에서 어떤 창조적인 원천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움직임을 만들어 구성할 때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기존의 '봄의 제전' 작품들과 나의 '장미'가 특별히 다른 접근방법을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내 작품은 나만의 생각과 영감이 들어있을 뿐이다.

타로카드를 모티브로 차용해 온 게 인상적이다. 타로카드를 '봄의 제전'과 엮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다.

나는 타로카드를 가끔 취미삼아 읽는다. 시대적이나 내용적으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은 타로카드와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원래 '봄의 제전'에서는 의식에서 처녀가 제물로 바쳐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장미>에서는 남성이 희생되는 것으로 나온다. 남자



가 이 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나 남자가 제물로 바쳐진다는 설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2번째 음악의 스토리는 조상신을 부르는 것인데, 이 때 읽은 타로 카드는 매달려 있는 사람과 계시카드이다. 매달려 있는 사람도 남자이고 계시카드에서 불속에서 해탈하고 있는 사람도 남자이다. 땅은 내게는 여성을 의미함으로 자연과의 조화라는 의미에서 남성을 희생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장미〉라는 제목이 작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없다. 제목을 ‘장미’라고 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다.

땅에 대한 예찬과 희생이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의 스토리인데, 나는 새 생명을 주는 땅을 여성으로 생각한다. 나의 작품은 여성에 대한 예찬과 희생이다. ‘장미’는 나에게 성스러운 여성을 뜻한다.



앞으로 완성될 〈장미〉의 완성본을 지금 대략 그려본다면.

미술적으로 색채감과 입체감이 입혀질 것이고, 음악적으로 좀 더 정교해 질 것이다. 무용수들의 움직임도 발전될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년 8월 무대에 올라가 봐야만 알 수 있다.

예전 [문화+서울] 인터뷰에서 후배 안무가가 ‘안성수 선생님은 매 순간, 매 동작 정성스러운 점을 존경한다’고 했다. 이번 작품 〈장미〉도 동료 무용수와 함께 공부하며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함께 작품을 준비해나가는 과정에서 안무가로서 가진 철학이나 신념이 있다.

나는 춤을 종교로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해주는 무용수는 종교를 지탱해주는 신으로 여긴다. 그래서 무용수의 몸은 존엄성을 갖고 있고, 나는 그들을 고귀하게 생각한다. 우리 그룹은 하나의 작업을 1년 이상 준비한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좀 더 나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번의 탈고와 편집을 거치면 정교해지고 단단해 진다.

특히, 이번 ‘장미’는 2년에 걸친 연습과정을 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안무를 하는 나와 무용수들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이란 음악을 매개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이다.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의해 만들어진 구체적인 뼈대가 하나의 작품이라는 정밀한 몸이 되기까지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의 신념이라고 한다면 작품으로서 나를 만족시켜야 만이 대중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안무가로서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꾸준히 동료무용수들과 공부하고 작업하려 한다.

◆ 안성수 프로필

Mary Street 무용단원, Mary Luft 무용단원 / Ballet Randolph 단원 및 안무자 (Miami) / NewWorld School of Arts 무용과 강사 (Miami) / New York 시립예술고등학교 무용과 강사 / 용인예술대학원, 숭의대학, 한양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강사 / 안성수 Pick-up Group 예술감독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수상경력

2004년 제11회 무용예술상 작품상 수상 『백설공주』 / 2005년 서울무용제 안무상 수상 『봄, 사넛물』 / 2005년 올해의 예술상 무용부문 우수상 수상 『봄, 사넛물』

주요작품

〈피아졸라 공부〉, 〈제한〉, 〈돌의 침묵〉, 〈정중한 인사〉, 〈Queen〉, 〈Whatever〉, 〈Bim〉, 〈Garland Hirsch's Low〉, 〈Findings〉, 〈Femme〉 등 다수

냉소적인 몸의 유머 홍승엽

홍승엽의 춤은 차가우면서도 따뜻하다. 무용수들의 절도 있으면서도 섬세한 동작들은 차갑지만 그 동작들은 모두 이어져 따뜻한 유머, 재기발랄한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그가 이번 '모던 프로젝트'에서 선보인 작품은 〈달보는 개〉와 〈테자뷔〉. 이 두 작품에서 홍승엽에게서 만 찾을 수 있는 춤의 진수를 볼 수 있었다.



지난 10월 5일 열린극장창동에서 열린 '모던 프로젝트'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다. 적은 관객 수에도 불구하고 무대는 꽉 찬 느낌이었다. 이번 공연을 마친 소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해 달라.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공연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모던 프로젝트'에서 많은 레퍼토리 중 특별히 〈달보는 개〉와 〈테자뷔〉 두 작품을 무대에 올린 이유가 있다.

이번 작품 선택에는 열린극장창동이 '모던 프로젝트'를 기획한 의도를 반영했다. 현대무용이 생소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 두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다.

〈테자뷔〉에서는 무용수들이 매직펜을 들고 나와서 투명아크릴판에 다양한 모양의 물고기를 그리는 작업을 한다. 이러한 작업을 생각해 낸 계기가 있나? 이 작업은 전체 작품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 작품 전반에서 아크릴 판에 무용수들이 다양한 그림을 그린다. 무용수가 물고기라면 이런 작업은 어항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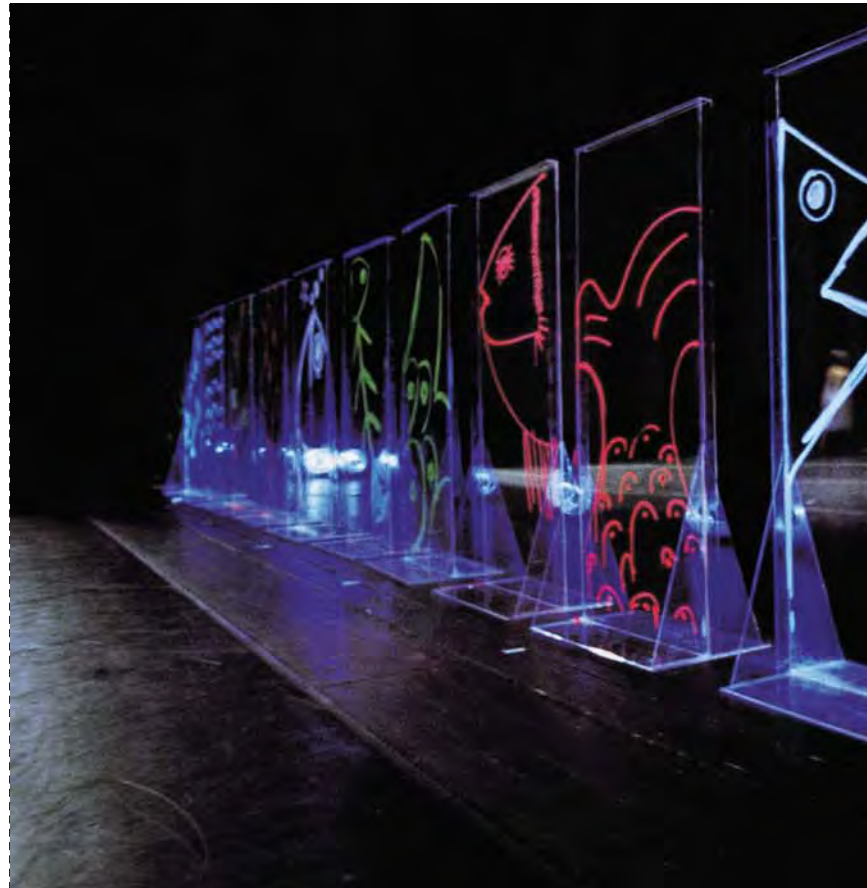
〈테자뷔〉를 보고 나면 빛, 물고기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강하게 남는다. 이 두 개의 이미지를 연결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이 작품은 '시간과 존재'에 관한 의문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 불꽃은 시간 개념 중 '찰나'를 이야기하고 물고기는 '존재'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전체 시간의 개념은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긴 하지만) 학부 때 공학을 전공했다. 본인의 배경이 안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영향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오히려 남들이 더 잘 보고 있는 것 같다. 미치는 영향은 잘 모르겠지만, 무용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는 무엇보다 '춤을 추면 잘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공연을 보고 나오는 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관객이 있었다. 전공자가 아니어서야 아직도 현대무용은 관객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다. 관객들이 안무가의 의도를 간파하고 현대무용을 즐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당연히 모른다. '운명 교향곡' 혹은 '모나리자의 미소' 같은 것들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 대부분의 예술작품은 감성의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관객이 감상하는 경계는 작가 의식과 방향이 비슷하게 향한다. 문학처럼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비슷하게 향한다. 사람마다 자신이 가진 제량에 따라서 달리 받아들인다.

안무가로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완벽주의자는 아니다. 실제 작업할 때 상당부분 타협과 포기를 반복한다.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나가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접는다. 중요한 건 옳다고 믿을 때까지 가는 것이다.



◆홍승엽 프로필

전 유니버설 발레단 단원 / 전 박명숙 현대무용단 단원 / 전 국립발레단 객원 트레이너 / 경희대학교 섬유공학 학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석사 / 현 댄스시어터 온 대표

수상경력

제 14회 동아무용콩쿠르 대상 / 제 8회 대한민국 무용제 연기상 / 제 18회 서울국제 무용제 안무가상 / 제 10회 일본 하이타마 국제콩쿠르 특별상 / 제 21회 서울무용제 안무상 / 2001년 한울문화상

주요 작품

〈뿔(horn)〉, 〈阿 Q(아큐)〉, 〈싸이프리카(Cyfrica)〉, 〈모자이크(Mosaic)〉, 〈새도우카페(Shadow Cafe)〉, 〈두 개보다 많은 그림자(Shadows More Than Two)〉, 〈빨간부처(Red Buddha)〉, 〈데자뷰(Deja vu)〉, 〈달 보는 개(Moon-Looking Dog)〉 등 다수



비상을 꿈꾸다 이태상

이태상의 작품 행보를 보면 단연 '젊음'이 느껴진다. 역동적인 실험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탐구, 발상의 전환은 그의 춤 안에서 혹은 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여실히 느껴진다. 날갯짓을 닮은 그의 춤이 더 많은 관객들을 찾아가길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



열린극장창동에서 열린 '모던 프로젝트'에서 신진 안무가를 대표해 공연했다. 공연을 마친 소감은 어떤가.

신진안무가란 말과 대표성을 가지는 안무가란 말에 좀 숙연해진다. 너무나 좋은, 젊고 유능한 안무가들이 많은 가운데 단지 이태상이라는 안무가가 공연을 올렸을 뿐이다. 선생님 연배의 안무가 제임스 전과 내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던 프로젝트의 기획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소극의 의미〉는 처음 어떻게 구상하게 되었나.

〈소극의 의미〉는 〈나방과 가야금〉의 변경된 제목이다. 소설작가 류 경 씨와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류 경 씨의 단편 소설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곧 내 삶의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류 경 씨는 이 소설이 실패작이라고 해서 더욱더 구미가 당겼다. 실패한 단편소설을 무용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지금까지 정리되어진 저의 삶을 작품으로 이야기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소극의 의미〉에 대해 '현대인의 탈출 욕망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다른 작품인 〈나방과 가야금〉에서도 비슷한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주제 의식이 전작과 달리 이번 〈소극의 의미〉에서는 어떻게 녹아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방과 가야금〉이라는 주제와 동일하다. 나방 한마리가 가야금 속에 갇혀 가야금 밖으로 나가려고 혼자 발버둥 치다 죽는다는 스토리다. 나방은 곧 우리자신이고 가야금은 현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감옥과 같은 한정되어진 공간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 나방은 실제로 수직으로 밖에 날지 못한다고 한다. '가야금 줄 사이에 갇혀있는 나방은 계속해서 바깥세상을 향해 날갯짓을 하고, 날갯짓하는 나방은 가야금을 튕기며 그 가야금으로 인해 소리를 내고,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고 조금만 비켜서 날았다면 바깥세상으로 날아갈 수도 있었을텐데.....' 이러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들이 곧 현대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음악적으로도 실험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전작 〈하늘을 뜬 개〉를 보고 동구권 풍의 독특한 브라스 밴드의 라이브 음악을 쓴 점도 주목 받았고, 〈소극의 의미〉에서도 처음에는 무대에서 라이브로 연주되는 음악, 무용수가 몸에 지닌 마이크에서 나는 소리 등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들었다. 이런 음악을 쓸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작 〈하늘에 뜬 개〉는 유럽풍 브라스 밴드의 음악을 썼다. 이 음악의 질은 우리 음악과 다르지만, 그 안에 묻어있는 정서나 문화는 우리나라의 것과 아주 흡사하다고 생각했다. 한 예를 들면 독일은 한때 분단 국가였고 전쟁을 많이 치렀던 국가이며,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와 비슷한 문화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브라스 밴드와 같은 음악을 썼다. 그러나 〈소극의 의미〉에서는 라이브 연주나 무용수 몸에 마이크를 부착하지 못하였다. 첫째 제작비에 문제가 있었고, 둘째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음악적인 콘셉트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평소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궁금하다.

무엇보다 무용수들과 이야기를 많이 한다. 먼저 안무가로서 콘셉트를 명확하게 하고 무용수를 만난다. 그 작품을 위해 모인 무용수들이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용수들이 이 작업을 이해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일이 중요하다. 단순한 움직임으로 얼마만큼 파생시키며,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본인의 것으로 소화시킬 것인지. 무용수들이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지. 멋있고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무용수들과 함께 움직임의 언어를 찾고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집중훈련을 한다.

안무 아이디어는 주로 어떻게 얻게 되나.

주로 서점에 가서 리서치를 할 때가 많다. 간혹 인터넷을 보다가 아이디어를 얻을 때도 있고 작가와 대화중에 얻는 아이디어도 있으며 여행을 하다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딱히 정해진 바는 없다.

준비 중이거나 구상 중인 작품이 있나.

내년 3월 중 신작 〈코뿔소〉를 공연할 계획이다. 외젠느 이오네스코의 희곡, '코뿔소'를 나만의 해석을 거쳐 무용극으로 만들어 보려고 리서치 중이다.

앞으로 자신의 춤에서 다뤄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글쎄..... 제 심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씩 엉뚱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 같다. 좀 더 경험하고 노력하고 공부한다면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태상 프로필

중앙대학교 무용과 및 동대학원 졸업 / 동아무용콩쿠르 은상 / 신인무용콩쿠르 차석상 / 전국대학무용콩쿠르 안무상, 은상, 대상 / 2005 프랑스 국제 덤보 아트페스티벌 참가 / 2006 문화관광부 공연예술작품 해외진출 무용가 선정 / 2008 젊은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나트(NArT) 선정

주요 작품

〈나방과 가야금〉, 〈하늘에 뜬 개〉, 〈소극의 의미〉 등 다수

몸을 통한 소통의 힘

최재희

몸의 힘을 믿는 무용가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다. 최재희는 늘 몸이 가진 언어로서의 기능과 힘에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는 기교적인 움직임을 넘어서 몸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최재희는 이번 '모던 프로젝트'에서 몸이 말하는 <소통>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한다.



열린극장창동에서 열린 '모던 프로젝트'에서 신진 안무가를 대표해 공연했다. 공연을 마친 소감은 어떨까.

먼저 '모던 프로젝트'라는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을 통해 신진안무가를 대표해 공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훌륭하신 분들과 같은 공간, 같은 무대에서 공연하게 되어 매우 감사한 일이라 여기고 있다.

이번 작품 <소통>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평소에 소통하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살아있는 모든 것, 무생물들까지도 자기들만의 독특한 소통의 코드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형상화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서울문화재단의 젊은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NArT를 통해 <소통>이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

전작 <침묵>이나 이번 작품 <소통>을 보면, 평소 '몸이 가진 언어로서의 기능과 힘'에 남다른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안무가로서 '몸이 가진 힘', '움직임이 가진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몸이 가진 힘'. 이것은 기교적인 움직임 없이 몸 자체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표현해 낼 수 있는 원천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기하학적인 움직임 또는 기교적인 움직임을 통해서가 아니라 몸 자체만으로 충분한

표현과 힘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으며, 이것은 본능적인 움직임 또는 순수하고 원초적인 움직임까지도 포함한다. 몸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이러한 '몸이 가진 힘'을 토대로 몸에 더 집중하여 움직임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기능이나 수단이라는 의미보다는 '몸이 가진 힘' 그 자체가 바로 '움직임이 가진 힘'이지 않나 생각한다.

관객이 <소통>에서 얻길 바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소통이 가능한 통로를 보길 바라며, 작품 안에서 무용수들이 소통하는 방법과 코드를 보기 바란다.

평소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궁금하다.

무용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끌어 내고 그 안에서 움직임을 만들어 간다. 각자의 움직임들을 취합해 시간, 공간의 변화를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시도한다.



안무 아이디어는 주로 어떻게 얻게 되나.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상황들의 배경과 분위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꼼꼼히 적힌 모든 것을 안무할 때 적용하여 만들어가고 가끔은 영화 속에서, 성경책 속에서, 때론 무심코 읽게 되는 자그마한 글귀에서, 자연 속에서 얻게 된다.

같은 날 공연했던 안성수의 작품 〈장미〉를 보았다. (보았다면) 소감은?

너무도 인상적이고 매력적이었다. 몸의 움직임들 통해 연주하는 몸의 소리를 본 듯하였고, 세심한 리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치밀함이 놀라웠다. 개인적으로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준비 중이거나 구상 중인 작품이 있나.

서울문화재단 NArT에 선정된 〈소통〉이라는 작품에 대해 더 많이 연구를 해야 한다. 2009년 3월에 60분 정도의 작품으로 완성을 시켜야 하며, 진정 소통을 위한 통로를 찾고자,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자신의 춤에서 다뤄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멀지 않은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형상화 작업을 하고 싶다.

◆ 최재희 프로필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졸업 / 전북대학교 체육교육대학원 박사 과정 / CDP(Coll. Dance Project)무용단 대표,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겸임교수 Implustanz 참가 및 수료(2001, 2006) / 뉴욕댄스 스페이스 센터(Dance Space Center) 연수 / Bates Dance Festival 참가 및 수료 / 뉴욕 DNA(Dance New Amsterdam) 연수 / 2008 서울문화재단 젊은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나트(NArT) 선정

수상경력

제28회 서울무용제 경연대상부문 〈마르지 않는 샘〉 안무(남자연기상 수상) / 제27회 서울무용제 자유참가부문 〈건너다(Get Crossing)〉 안무(우수작품상 수상) / 춤과 사람들 주최 젊은 작가전 〈벽〉 안무(우수 안무가상 수상)

주요 작품

〈침묵〉, 〈마르지 않는 샘〉, 〈머물며 서다〉, 〈건너다〉, 〈Pass over, 그래도 길은 있었다〉, 〈기억창고〉, 〈벽(壁)〉 등 다수



세트속삶의세트화

초국적 감각을 발명하기

사진작가
김아영



김아영은 이질적인 것들을 모아
카메라에 담는다. 그가 모은 서로 다른
삶의 편린들은 하나의 보편성 위에
다시 나열된다. 차이를 ‘충돌’ 이 아닌
‘보편화’ 로 이끌어낸 그녀의 작품은
초국적이며 전 세계적인 감성을
담고 있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이질적인 것들이 불러낸 보편적인
감성은 이 세상 어떤 질병과 궁핍도
극복하게 만들 만한 힘을 지니고 있다.

1 | 2

- 1 _ “북한을 핵 보유국 클럽에 가입시키거나 당장 폭격하라 2006.10.11”,
가디언 언리미티드, 160x120/100x76cm, 라이트젯 프린트, 2007
- 2 _ “독살된 스파이 미스터리 2006.11.1”,
CBS뉴스, 160x120/100x76cm, 라이트젯 프린트,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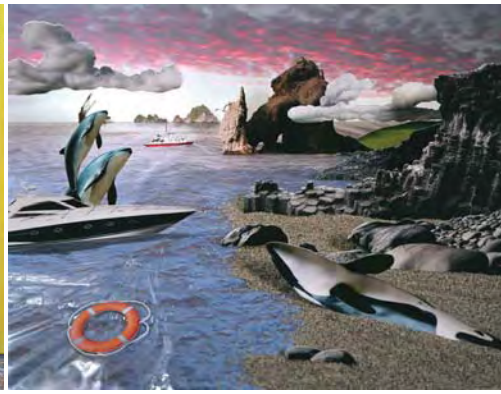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런던에서 사진을 공부한 김아영의 첫 번째 개인 전 Ephemeral Ephemera가 스페이스바바에서 열린다. 전시와 함께 출간되는 도록에 그녀 작업과 작가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실리겠지만, 이 글에서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김아영 작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제안해보고자 한다.

거대한 세트안의 삶, 그 허구적 장치

모든 사람들은 영화를 본다. 우리가 보는 영화의 대부분은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세트장을 활용한다. 그러나 영화를 보면서 영화 세트장을 인식하는 관객은 없다. 그것은 영화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영화는 자신이 세트되었다는 것, 가상의 무대 안에 설정되었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한다. 카메라가 1초에 24장씩 사진을 찍고 이것을 연속적으로 보여줬을 때, 즉 사진에 시간을 부여할 때, 관객들은 이 영상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고 믿는다. 여기에는 소위 봉합이라고 하는 영화 고유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고다르프 대표되는 6,70년대 모더니즘 계열의 유럽 감독들에 의해 이뤄졌고 이것에 상응하는 담론적 생산물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핵심은 영화는 자신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허구적 생산물을 그렇게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

영화적 삶을 한번 상상해보자. 기 드보르의 ‘스펙터클의 사회’ 라는 개념을 말 그대로 가져다 쓰자면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이미지-기계에 의해 재생산된다는 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똑딱이 카메라, 6mm 카메라, 방송용 카메라, 영화 필름 카메라 등. 또 이것을 기록하는 매체가 있는데 디지털, 아날로그의



홍수 속에서 우리 삶은 이미지-기계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영화적 삶이란 무엇 일까? 세트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화처럼 어떤 허구적 장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을 뜻하는 것일까? 김아영의 작업에서 징후처럼 드러나는 여러 공통적 현상들, 즉 연예인 자살, 국제적 가십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수치에 불과한 전 지구적 경제 지표와 자금의 이동이 각국의 여론을 들쭉거리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작동 방식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사건을 세트 안에 넣고 사람들이 거북하게 느끼지 않도록 봉합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 말이다. 음모 이론 아니냐고?! 음모라기보다는 삶의 우연성을 잇게 만드는 초국적 장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에서 하는 소리이다.

초국적 보편성을 담은 그녀의 무대

‘영국에서 사진을 공부한 아시아 여성’이라는 단어의 조합은 작가의 작업에 대해 의외로 많은 단서를 제공한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추측할 것이다. 그녀 사진은 자신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영국과 원래 태어나고 문화적 소양을 쌓았던 한국 사이의 차이, 그 차이의 충돌에 기반하지 않을까. 그러나 김아영의 작업만큼 이런 기대를 무너뜨리면서, 차이가 아닌 보편성의 토대 위에서 작동되는 작업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세계 안에서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는 어떤 초국적인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이 초국적인 것을 지구인의 교양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공통적인 것’이라는 이름 아래 묶을 수 있는 여러 이질적 요소들로 생각할 수도 있다. 김아영은 이질적인 것을 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자기만의 무대를 만들고 그것을 카메라-기계에 담은 작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 삶의 가상성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 수치화될 수 없는 아날로그적인 것들, 냉전 시대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없이 돌출되는 현재와 과거의 유산들이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초국적인 보편성은 국적, 성별, 나이, 학력 수준을 가리지 않고 모든 세계인들이 보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읽고 그것에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성은 우리 모두의 삶을 무화시키고 그순간을 허구적인 것으로, 즉 영화 세트장처럼 있을 직한 것으로만 보이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독이 된다. 또한 이것이 초국적 보편성이 될 때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마치 단일한 삶의 목표와 과정을 겪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김아영이 활용하는 보편적 감성은 보편성을 하나의 도구로 전용하는 그녀만의 전략이다. 그녀가 만드는 무대는 우리에게

$$\begin{array}{r|c|c} 3 & 4 & 5 \\ \hline & 6 & \end{array}$$

- 3 _ “연예인의 잇단 자살, 왜? 2007.02.10”, 연합뉴스, 160x120/100x76cm, 라이트젯 프린트, 2007
- 4 _ “제주 해안서 죽은 고래 발견 2006.11.12”, 에코저널, 160x120/100x76cm, 라이트젯 프린트, 2007
- 5 _ “대공습의 과몰이 일으킨 혼란 2007.5.15”, 더 런던페이퍼, 160x120/100x76cm, 라이트젯 프린트, 2007
- 6 _ “템즈강에서 머리 없는 시체 발견 2007.4.21”, BBC뉴스, 160x120/100x76cm, 라이트젯 프린트, 2007





7 | 8 | 9

게 초국적인 보편성의 감성을 자극한다. 우리가 대중문화 즉 코믹스, 대중영화, 국제적 가십 등을 통해 습득하고 공유하는 교양을 활용하면서.

메를로龐티는 “작가는 작품의 뒤편에서 활동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이미지가 아닌 언어를 재료로 삼는 작가를 지칭했던 것이지만, 결국 핵심은 이미지나 언어를 다루는 작가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축어적으로 해석하자면 정말 작가는 작품의 뒤편에서, 사건의 뒤편에서 사고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김아영의 사진이 특히 그렇지 않은가. 그녀는 카메라 기계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삶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이상한 사건들에 주목한다. 하지만 명심할 것이 있다. 이런 사건은 카메라 기계가 우리 삶을 관찰하고 있기에 하나의 사건으로 인정받은 것들이다. 버스 위로 투신자살한 남자, 독살당한 전직 KGB 요원, 해안가로 나와 죽은 고래 시체, 도쿄의 한 아파트에 모래로 채운 욕조에서 죽은 영국인 등. 이 사건들은 하나의 이미지로 결정화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건들이다.

김아영의 사진 작업의 프로세스를 생각해보자. 우선 사건을 선택하고 그 의미를 읽고 그것을 풀어낸다. 이 프로세스는 모든 작가들에게 공통되는 것이지만 우연을 가장하며 방문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의미에서 특히 중요하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외국의 반응은 단일하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지점은 매우 복잡한 반응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영국 사람도 도쿄의 어느 아파트에서 자살을 했다. 이 뉴스는 하나의 사실이지만 어떤 정서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매끈한 TV 기사와는 틀리다. 작가의 작업 노트는 시지프의 신화에 나오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된다. “무대 장치들이 문득 붕괴되는 경우가 있다.” 김아영이 낯설고 이상한 사건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스튜디오 세트 안에서 다시 재현할 때, 그녀는 우리에게 익숙한 보편성의 논리를 전도시킨다.

무대 장치는 쉽게 붕괴되지 않는다. 누군가의 노력으로 무대 장치가 붕괴되진 않는다. 영화가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허구적 생산물을 그렇게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연히 찾아오는 손님처럼,

- 7 _ “70FT 높이에서 투신한 남자 버스 지붕에 부딪히다 2007.5.29”,
내셔널 뉴스, 160x120/100x76cm, 라이트젯 프린트, 2007~8
- 8 _ “모래 욕조 속에서 발견된 영국인 교사 2007.3.28”,
가디언 언리미티드, 160x120/100x76cm, 라이트젯 프린트, 2008
- 9 _ “CCTV에 담긴 죽음의 추격 2007.7.29”,
더 런던페이퍼, 160x120/100x76cm, 라이트젯 프린트, 2008

낯설고 이상한 계기들이 우리 삶을 객관화시키고 무대를 붕괴시키기도 한다. 여기서 무대는 보편성의 논리이고 우리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자. 김아영이 신문의 기사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대를 만들었다면 그 무대는 너무 연약해서 금방 부서질 수밖에 없고, 허구적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조약함 그 자체이자, 영화 제작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처럼 매체의 물질적 기반을 흔드는 그런 위치에 다름이 아니라고. 동시에 그 무대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전시의 이름처럼, 대수롭지 않은 물건들을 지칭하면서 동시에 쓰임이다 한 뒤에 수집되는 전단지, 티켓 등 자질구레한 물건이 연장된 공간이기도 하다.

“삶의 가치와 유한성에 대한 모순적 집착이기도 한 이 작업을 해 나가는 동안만큼은 나 자신의 유한성을 잊어도 좋다는 또 다른 역설이 내게로 온다. 그저, 모두가 최선을 다 해 가는 각자의 삶엔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궁핍조차도 감내할 만큼 강력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작가노트 中)

붕괴될 수밖에 없는 무대를 만들면서 작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삶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삶을 더욱 허구적인 것으로 만들고, 우리를 알고 평평하게 만드는 카메라 기계가 아닐까.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지만 작가의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누군가의 인생의 편린으로 만들어내는 이미지 속 대상들이 작품의 피사체가 아니라 삶에 대한 그녀의 윤리적 태도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글 임경용(미디어버스 에디터)

YOUNG ARTIST 2008

이건 꿈이야, 꿈!

배우

정수영



뮤지컬 마니아들은 정수영을 드라마 〈환상의 커플〉 속 ‘강자’로 기억하기 전에 뮤지컬 배우 ‘정수영’으로 기억할 것이다. 큰 배역을 맡지는 않았지만 늘 강하게 기억에 남는 배우. 그녀의 존재로 인해 무대가 한층 단단해졌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배우. 올 봄, 그녀는 드디어 ‘갈매기’의 니나 역을 품에 안았다.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을 찾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는 정수영. 그녀는 니나 속에서 자신을 찾아낼 수 있을까.

땡! 우연히 마법이 풀리는 순간

약간 위로 풀린 눈, 무심한 듯 호기심 어린 표정, 길기만 한 몸매. TV 화면으로 처음 알려진 정수영의 모습이다. 2년 여전 ‘환상의 커플’이라는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모두 강자를 기억한다. 아, 그 맛이 간... 이라고 하려는데 정수영은 말한다. 강자는 요즘 세상에서 심하게 순수한 요정 같은 존재이지 미친 건 아니라고.

동숭홀에서 공연한 뮤지컬 〈리틀 습 오브 호리〉에서 마녀 역할로 공연하고 있을 때, 제작사 쪽에서 오디션을 한번 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왔었다. 우연히 뮤지컬을 관람하러 온 제작진들의 눈에 띈 것이다. 낯선 얼굴,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당시 제작진이 찾던 강자의 모습이었다. 드라마의 말미에 강자가 외치는 외마디 땡!은 온 지구가 울릴 만큼의 느낌으로 외치라는 감독의 주문이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그 순간 정수영이라는 이름이 비로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스무 살, 무대에 서다!

스무 한 살, 정수영은 뮤지컬 제작사인 신시에 단원으로 들어갔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연출하는 교사 연극의 뮤지컬 공연을 하고, 열아홉 살에 대학로에서 〈셰익스피어 여인들〉을 공연하며 무대에서는 재미를 맛본 후였다. 중·고등학교 때 성악을 전공했으니 일단 무대에서 노래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았다. 2000년에 있었던 신시 단원 공개 오디션에서, 정수영은 노래 밖에는 보여줄 게 없었지만 다행히 그 자리에 심사위원으로 있었던 음악감독 최무열 씨의 눈에 들어 단원이 될 수 있었다.

갬블러 일본 투어, 렌트, 유린타운 초연 등 뻘뻘하기로 소문난 신시 스케줄에 아무 생각 없이 몸을 맡기고 그렇게 1년여를 보냈다. 뻘뻘한 몸으로 춤을 추고, 하루 10시간 씩 연습하는 노동에 땀도 눈물도 많이 흘렸다. 연습이 끝난 저녁마다 사우나에 가서 다리 찢었던 기억은 우습지만 처절하기도 하다. 정수영은 극단 막내가 늘 그렇듯, 객석에서 가장 먼 곳에서 있는 앙상블만 하다가 연출가 심재찬 씨가 맡았던 뮤지컬 〈유린타운〉 공연에서 작은 역할을 제안 받았다. 비록 언더 스터디이지만 극중 화자인 리틀 샬리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언더 스터디는 역할을 맡은 배우가 무대에 못 서게 될 때를 대비해 연습시켜 놓는 스페어 같은 배우다. 그야말로 배우는 자리이지 무대에 보여 지는 역할은 아니다. 그러나 정수영은 악착같이 캐릭터를 연구하고 이것저것 연출 앞에서 보여주다가 주말 4회를 무대에서는 행운을 얻게 된다. 작은 역할이지만 이름을 가진 배역을 맡는 첫 순간이었다.

가족을 업고 가족을 품다

정수영은 대가족 문화에서 자랐다. 형제만 5남매이고 부모, 조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있다. 엄격한 가톨릭 집안이고 할아버지는 시인 정한모, 아버지는 도예가 정진원 씨인 예술인 가족이다. 아하, 어쩐지. 뭔가 잘 풀리는 애들은 배경이 다르다,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데 그것이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는 한끝차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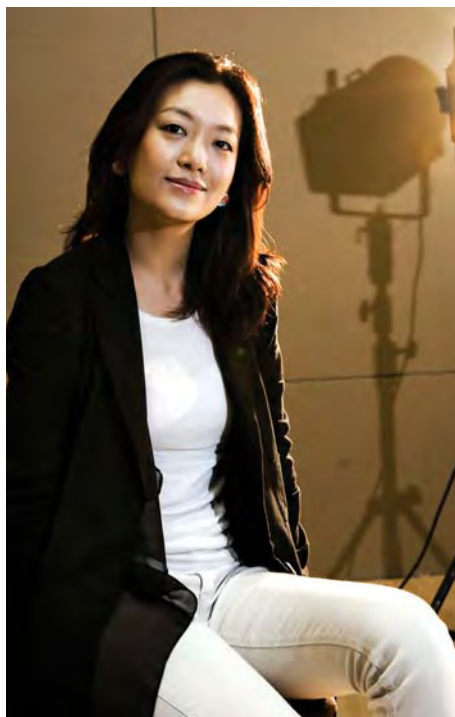
어린 시절 손님치레로 늘 집안은 붐볐고 그

런 분위기 속에서 만이인 정수영은 항상 눈치껏 행동해야 했다. 도움을 요청하거나 투정을 부리기에 어른들의 세계는 너무 가깝게 있었다. 일찍 어른이 되어 외로움을 알아버린 정수영은 많은 사람들 속에 혼자인 것 같을 때마다 집안에서 가장 흔했던 책을 집어들었다. 형제가 많아 재미있는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유치원에서 배운 율동이나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할아버지나 아버지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고, 동생들과 함께 인형극을 만들어 가족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도 놀하는 놀이 중에 하나였다. 왜 그랬는지 꿈이 형성될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예술을 하고 싶고 배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빨리 자신만의 세계를 찾아야 한다는 조금함이 있었다. 그 자기세계가 무엇인지 그땐 알지 못했지만 말이다. 지금은, 부모들이 간 길을 조심스레 짚어가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이건 꿈이야, 꿈!

안톤 제후의 희곡 〈갈매기〉에서 시골 아가씨 니나는 남자친구인 트레벨레프의 집에서 유명 배우와 소설가들의 세계를 엿보고는, 이건 꿈이야, 꿈! 이라고 말한다. 꿈같은 일이기도 하고 꿈꿔온 순간이기도 하다. 니나 역에 캐스팅 된 것은 그녀에게 꿈일까. 예술의전당 기획 공연으로 올리는 〈갈매기〉 오디션이 지난 봄에 있었다. 러시아 연출가 유리 부투소프가 나홀로 머물면서, 추천된 배우 리스트를 짚어가며 숨가쁘게 진행된 오디션이었다. 정수영은 그 자리가 오디션이 아니라 인터뷰 자리였다고 기억한다. 연출은 연기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고 몇 십분 동안 앉아 대화를 나눴다. 극중 인물인 마사는 왜 항상 상복을 입고 다닐까, 왜 술을 마실까 등 주로 캐릭터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이었다. 그리고 나왔는데 연출이 떠나는 날 다시 호출을 받았다. 극중에 나오는 1막 니나의





독백을 마음대로 해보라는 것이 연출의 주문이었다. 짧은 준비 시간 동안 정수영은 나나의 독백을 해석하고 준비했다. 정수영이 생각하기에, 나나의 독백은 그 시대로 말하자면 풋내기 행위예술가 정도 되었을 트레פל레프의 작품인 것이다. 평소 좋아하던 오노 요코를 모델로 마임과 소리를 섞어서 연출 앞에서 보여주었다. 그리고 캐스팅이 되었다. 정말 꿈같은 순간이었다.

나는 갈매기예요!

여배우라면, 누구나 한번쯤 〈갈매기〉의 나나가 되어 무대에 서고 싶은 은밀한 욕심이 있다. 극중 나나는 비록 삼류 공연, 삼류 무대일지라도 무대에 서는 힘으로 삶을 견뎌내는 강한 의지를 가진 배우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를 지킬 줄 아는, 배우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끈질긴 생명



력을 가진 인물. 평생 배우를 꿈꾸는 정수영도 나나를 꿈꿔 왔다.

〈갈매기〉 4막에서 나나는 과거의 연인 트레פל레프를 찾아가 ‘나는 갈매기예요. 아니, 난 배우예요.’라고 외친다. 이 대사를 매일 읊조리며, 정수영은 나는 누구일까를 생각한다. 난 정말 나나 일 수 있을까, 갈매기가 될 수 있을까. 예술의전당 연습실에서 자정이 넘도록 나나의 옷을 입고 나나의 목소리로 외쳐보는 건, 누군가 연기했던 나나를 연기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나나는 어떤 모습인지 찾아내고 싶다.

밤새 준비한 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러시아 말만 할 줄 아는 연출에게 다가가 묻고 또 묻는다. 통역을 통해 보다 간단하고 정확하게 표현으로 묻고 또 묻는다. 그럴 때마다 연출은 나나를 연기하지 말고 정수영을 보여달라고 한다. 그래도 그녀의 궁금증은 여전히 남는다. 그 미세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연습실을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제 무대에 오를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늘 존경해 오던 선배들과 한 자리에서는 행운이 너무 일찍 와 버린 건 아닐까 조심스럽기도 하다.

남의 옷을 입고도 자연스럽게,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반 발짝 앞서 가는 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스물일곱 해, 삶을 꼼꼼하게 수놓아온 정수영의 바람이고, 배우가 되고 싶어 자기 삶을 세상에 던졌던 나나의 모습이다. 

글 김민정 기자

‘서울을 말한다,’
영화 〈사과〉의 감독 강이관의



어느 날 갑자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제게 '서울'에 관한 글을 써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글을 써 본 적이 많지 않은 제가 용기를 내서 "네, 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단지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 여태 서울에서 자랐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아보고서도 아무런 할 말이 없다면 참으로 공허하던 생각이 들었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서 꼭 그곳을 다 좋아할 필요도 없고, 무슨 할 말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를 받았다는 으쓱한 마음에 그래도 하는 심정으로 서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쓸쓸하기만 한 개인적인 감정들이었죠. 그러다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아직도 커다란 책 같은 앨범을 정리하고 계시나요?

요즘엔 대세가 디지털인지라 모두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저장을 합니다. 모두들 아직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예전엔 필름을 카메라에 넣고, 많게는 서른여섯 장 정도 찍고는 그 필름을 들고 사진관을 찾았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은 모두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언제든 볼 수 있고 이것저것 바꿀 수도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친구들과 동시에 같은 사진을 볼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찍은 사진을 자주 보게 되지는 않더군요. 앨범을 펼치는 그 짧은 동작만으로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이젠 컴퓨터를 켜고 부팅을 하고 프로그램이 뜰 동안 기다리고 폴더를 열어 사진을 클릭해야만 하는, 간단해 보이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좋은 점이 생기면 나쁜 점도 생기더군요.

전 영화를 찍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사진 찍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찍는 것도 찍히는 것도 좋아하지 않죠. 하지만 어느 날 제 친한 친구가, 그 친구 또한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던 친구였습니다만, 대뜸 사진기를 들고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사진밖에 없더라.”

우리는 멀쩡한 대낮에, 아무 날도 아닌데 여기저기서 한 통의 필름을 다 찍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아직도 제 앨범에 고스라니 남아 있지요. 신기하게도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아무 이유 없이 찍던 그날의 느낌이 생각나더군요. 만약 그날 그런 사진을 찍지 않았더라면 잊혀 졌을 날이 이렇게 오랜 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사진을 찍어 둔 덕분이었죠. 그러곤 뒤늦게나마 남들은 다 아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된 이후, 전 사진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기억하고 싶으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잘 찍고 못 찍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죠. 그저 당시에 했던 생각과 내 모습을 기억할 수만 있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곤 조금 더 나아가서 영화를 찍고 보는 일도 다르지 않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영화를 보면 옛날 사람들이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스토리로 울고 웃기도 합니다만, 거기엔 예전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거기엔 과거의 서울이 있습니다. 하명중 감독님의 <바보들의 행진>이란 영화를 보면 예전의 이대 정문 앞이 나옵니다. 주인공들은 그곳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죠. 전 주인공들이 뛰어다니는 것도 재미있지만, “뭘야? 이거 영화 찍는 거야?” 하고 신기해하며 구경하던 거리의 사람들과 그 당시 이대 정문 앞의 모습을 보는 게 좋습니다. 영화를 찍는 이유도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그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된 거죠.

서울은 매일 변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하루 늙어 변해가듯이, 매일 매일의 하늘이 바뀌듯이, 아무도 한 번도 살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날들이 매일 우리 앞에 다가오듯이.

서울을 가꾸고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이 제가 살아온 날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기에 전 제가 사는 서울이 어느 도시보다 좋습니다. 

글 강이관(영화감독)

* 프로필 *

1971년 서울 출생

단편 영화 <나의 일기>, <소년의 시>

장편 영화 <사과>

2008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

상상마당과 함께하는 ‘홍대 앞 재발견’

실험, 도발, 에너지, 열정, 순수함.....

홍대 앞 문화를 설명하는 단어는 늘 강렬하고 젊다.

홍대를 찾는 사람들은 젊음과 열정이 담긴 이곳의 문화를 사랑한다.

젊은 예술가들의 터이자 늘 새로운 예술이 시도되는 홍대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그 독특한 색깔 때문에

낯가림이 심한 곳이기도 하다. 서울문화재단과 KT&G 상상마당은

‘2008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 시민과 홍대 앞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고자 한다.



홍대 앞,

그 젊음의 문화 한 가운데 서다





작업실 '술통'에서 캘리그래퍼 강병인 선생님



'홍대 앞 재발견' 8.24 프로그램 -상상마당 아트마켓에서

KT&G 상상마당은 신진작가들의 활동기회를 확대하고자 2007년 9월 개관하였다. '어떻게 해야 국내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보다 많이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차례 회의를 거듭한 결과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복합문화공간'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좀 더 많은 아티스트들과 시민들이 만나는 접점을 만들고자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냈으나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던 차나, 서울문화재단의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됐고 우리 국민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 만남 이후 지금까지

여타 탐방프로젝트와는 달리 우리의 목표는 하나였다. '좀 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아주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간과했던 다양한 문화생산자와 아이템들을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한가지의 매력으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게 바로 '홍대 앞' 문화다. 이런 홍대 앞 문화의 생생한 소리를 함께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이들, 홍대의 변화에 몸을 맡기고 이곳에서 어우러져 생활하며 작업하고 있는 인디밴드 뮤지션들을 프로그램의 친절한 안내자로 내세웠다.

선정했던 장소들 역시 우리가 쉽게 지나치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었다. 젊은 창작자들의 창작물들이 유통되는 '홍대 앞 놀이터 프리마켓, 희망시장', 거리와 예술가들의 작업이 하나가 되는 '거리미술전', 해외에 한국을 가장 잘 알리고 있는 비공식 문화대사 '비보이',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의 '대안공간 루프', '글쓰는 것 자체가 운명'이라

고 말씀하시는 캘리그래피 강병인 선생님의 작업실 '숯통', 한때는 젊은 작가들의 작업실로써 수많은 작품이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예전의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는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사라져갈 운명의 서교동 365번지, KT&G 상상마당에서의 인디 뮤지션들과의 만남, 젊은 예술가들의 오프 '헛', 개성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과거 '멀티컬처디자인 전시장 사보', 11년 동안 젊은 예술가들의 장을 만들어온 프린지페스티벌 등을 시기별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시민과 예술가의 공감 창구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참여한 시민들과 아티스트들의 만남이 일회적인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작가 본인의 작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먼저 물어본' 첫 번째 프로그램이 되었다는 지점이었다. 대안공간 루프에서 진행한 '정홍섭' 작가 개인전에서 작가는 본인의 작업에 대해 시민들과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 냈으며, 캘리그래피 강병인은 '한글'이라는 민족자산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본인의 작업세계를 선보여 많은 공감대를 얻어내는 등 아티스트와 시민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의 시간이기도 하였다.

3시간 30분이라는 짧은 도보 탐방시간, 한 달에 한번이라는 적은 횟수로 '홍대 앞'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색깔을 보여줄 수 없었던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다. 하지만 처음의 걱정과는 달리 매회 300명이 넘는 시민들의 프로그램 참가신청과 참여를 통해 유흥문화와 쇼핑공간 등 상업화된 지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안문화가 존재하고 자생하는 '홍대 앞'에서 펼쳐지는 활동과 작업에 감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 또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인식했던 문화들에 대해 좀 더 관심있게 지켜보게 됐다는 많은 참가자들을 만나면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술공간 헛



대안공간 루프



홍대 어린이 공원



비보이와의 만남 -리버스쿠루 연습실



벽화골목

문화 메카 '홍대앞' 과 친해지기

'홍대앞' 은 신촌지역을 중심으로 5개 종합대학이 몰려있는 지역 특성 탓에 매년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들은 '홍대앞' 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홍대는 자연스럽게 희망시장, 프리마켓, 거리미술전, 프린지페스티벌, 와우북페스티벌, 인디밴드, 클럽 등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문화양식들은 젊은 아티스트들의 자발적인 열정을 통해 만들어져왔다. 몇몇 프로그램은 홍대지역을 넘어서 서울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 차원의 개발정책 및 재건축사업 등은 홍대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급증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많은 아티스트들이 홍대지역을 떠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순수한 열정으로 새로운 창작활동을 만들어가는 아티스트들로 인해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홍대앞' 은 젊은 아티스트들의 주된 활동무대가 될 것이며, '다양한 문화' 를 체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지역으로써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문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KT&G 상상마당과 함께하는 홍대 앞 재발견 은 다양한 색채의 젊은 아티스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 대안문화공간으로써 '홍대앞' 문화가 시민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글 조용진(KT&G상상마당 콘텐츠 기획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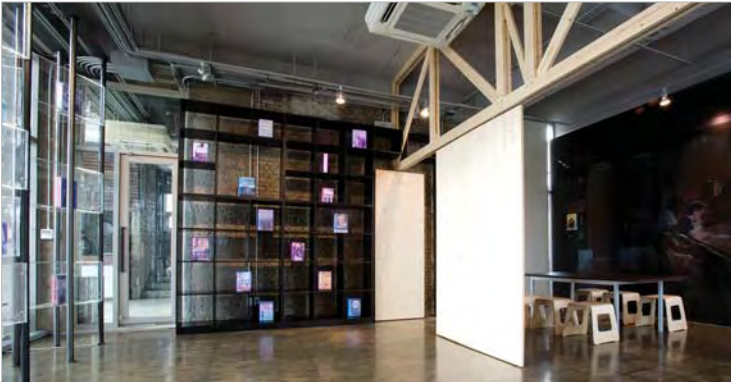


상상마당 아스트퀘어에서 참가자들

서울문화재단 11월의 문화 캘린더

	SUN	MON	TUE
11	시민문예지원사업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청계창작스튜디오 전시정보 서울열린극장창동 공연정보	젊은예술가지원사업 시각예술창작활성화지원사업 공연예술창작활성화지원사업 자치구문화공간활성화지원사업	
	2 실내악 목관5중주 I-Group 만남시리즈 III,IV	3 복합 삼청문화진흥원 삼청로문화축제(~11/18) 전통예술음악 우리소리와 함께하는 都市樂 Concert 평면 이페메탈 이페메라(~11/18)	4
	9 미디어 버블 톡 : BUBBLE TALK(9/3~11/9) 뮤지컬 어린이뮤지컬 <엄마는 안 가르쳐 줘> (10/31~11/9)	10	11
	16 창작연극 백사 이선생(10/30~11/16) 연극 리어(10/29~11/16)	17 희곡낭독공연 2008 희곡낭독공연 - 아프리카 희곡 시 시의날 기념 제6회 시와음악이 춤추는 밤	18 번역 고곤의 선물(~11/23) 실내악 화음첼버오케스트라 2008년 정기연주회 시리즈
	23 양화,영상,건축,미디어 City,Culture,Hybridity - Itaewon	24 음악 2008 서울 시민을 위한 국악연주회 "POP 국악과의 만남"	25
	30		

WED	THU	FRI	SAT
		전시 Sound Interaction 장독대와 소리의 그림자(8/27~12/20)	1 실내악 콰르텟엑스 <청소년을 위한 토요 프리젠테이션 콘서트>(11월~12월) 공예 장애우 및 위탁시설을 위한 우리의 전통염색 체험 양화,설치,영상,미디어 보이는 소리 part2 展 사진, 영상 방명주 개인전 '헬리오폴리스 Heliopolis 2008'(~11/19) 사진 She is ~ winter, she is -light(~11/14) 전통놀이 제8회 서울특별시장 대상 서울시민 연날리기대회 뮤지컬 한밤의 세레나데(10/22~09.1/3)
5 양화 산책-서울,거리를 거닐다(~11/11) 음악 서울 대감놀이 페스티벌 - 무대 100년	6	7 ■ 아름다운 인연 "人然"(11/1~11/07)	8 기타 한국에델바이스요델축제 (창립39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전통예술음악 감성적 타악 합주 "바람의 숲" 퍼포먼스 2008 경계없는예술프로젝트@서울도심 (10/31~11/8) ■ 춤의 고을, 固城(고성)사람들
12 한국화 조인호 제2회 개인전 '서울에서 만나는 자연'展(~11/23) 공연 2008 서울변방연극제(~11/23) 한국화 조인호 제2회 개인전 '해후(邂逅)전 (前 '서울에서 만나는 자연'展)(~11/23)	13 ■ '장애인을 위한 사진교실 - 포토스토리' 사진전시회(~11/21)	14 영상,미디어 방호장갑(~11/28) 창작초연 호야(~11/30)	15 관현악 서울 알투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외 양화,판화 국제 아트북메이킹 페스티벌(~11/22) 음악 은평구,서대문구민과 함께하는 "퓨전콘서트 공감21" 연극 연극 <민자씨의 황금시대> ■ 서울열린극장 창동 회원을 위한 천원의 행복 <오페라의 밤>
19 설치 임선이 개인전 <Trifocal sight II>(~12/2) 사진, 영상 방명주 개인전 '매운땅 Redscape'(10/31~11/19) 설치 임선이 개인전 <Trifocal sight II>(~12/2) 음악 콰르텟엑스와 함께하는 조운범의 파워클래식	20 전통 창작 한국생활연구회 네번째정기연주회 "만남"	21 사진 대동여지도 project 세 번째 "서해안"(~12/24) 경연대회 제16회 대한민국 청소년 차문화 대전 실내악 콰르텟엑스 히스토리 2008 평면 더더욱 신이 나서 과장하여 떠들 수 있었다. - 환상목욕탕 기행 #2(가제)(~12/7) 뮤지컬 뮤지컬 "즐거운 인생"(11/21~2/8)	22 현대무용 육식주의(~11/23) 실내악 아울로스 목관5중주 제 22회 정기연주회 실내악 제6회 한국아쟁연구회 정기연주회 퍼포먼스음악 초현실주의 판타지 쇼 '핑팡퐁'(~12/7) ■ 일동후디스 전국투어 태교콘서트
26 음악 배문경 아쟁 연주회 - 장월중선류 아쟁산조	27	28 서예, 문인화 제 1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12/7) 아동극 아빠는 권투선수(~12/28) 전통예술음악 상설무대 우리소리 명인무대 보이스퍼포먼스 보이스 퍼포먼스_ '두여자 이야기'(~11/2) ■ 특별기획공연 뮤지컬 <그리스>(~11/30)	29



CREATIVE SEOUL NEWS

서울문화재단, 2008서울아트마켓 참가 -10월8일,9일 양일간 부스전시 참여

지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명동아트센터, KT아트홀, 코리야나 호텔에서 열렸던 서울아트마켓에 서울문화재단이 부스를 설치, 적극적 홍보에 나섰다. 2008 서울아트마켓은 보다 다양한 한국공연을 선보이고, 활발한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과 실물교류를 위해 개최되었다. 서울문화재단은 8일, 9일 양일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진행된 부스전시에 참여했다. 이번 아트마켓에는 서울문화재단 외 78개 예술단체 및 관련기관들이 부스를 설치해 활발한 교류를 가졌다.

‘책 읽는 서울’, 2008 서울 북 페스티벌 참여 -부스설치, 책 문화 보급에 앞장서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렸던 2008 서울 북 페스티벌에 서울문화재단의 ‘책 읽는 서울’이 참여했다. 서울문화재단은 현장에 부스를 마련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책 문화 보급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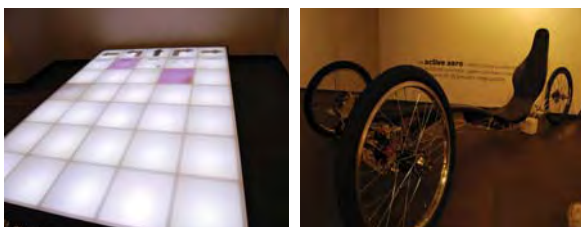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서 ‘책 읽는 서울’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참여 도서관 프로그램 자료 전시 및 63개 도서관이 선정한 우수도서, 시사편찬위원회 기부 도서 등을 선보여 가족들과 함께 독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책 읽는 빼어로 마임쇼, ‘동화나라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캐리커처 그리기, 동화 페이스 페인팅 등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31명의 작가가 말하는 'The Origin of all Design' -서울문화재단 청사에서 경원대 산업디자인과 졸업전시 진행

2008년도 경원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졸업전시, 'The Origin of all Design'이 지난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서울문화재단 청사에서 진행되었다. 강현석 외 총 30명의 작가들의 작품 31점을 선보인 이번 전시는 디자인이 디자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다른 예술의 자양분을 통해서 새롭게 개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작가 개개인은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Fine Artist를 선정한 후, 작품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하고, 그러한 과정을 자신의 작품에 담았다. 즉, 이번 전시는 'The Origin of Art'에서 작가를 통해 풀어낸 이야기를 'The Origin of all Design'에 대한 이야기로 확산시켜, 각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던 순수한 Origin을 개개인이 New Origin으로 풀어내는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 관점으로 접근했다.



눈과 귀로 만나는 책

- '책 읽는 서울'의 일환으로 '북콘서트' 개최해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부터 추진해온 독서캠페인 '책 읽는 서울'의 일환으로 '책 읽는 서울 북 콘서트'를 10월 21일 (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서울광장 무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북 콘서트는 지난 5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로, 올해는 영상세대를 겨냥해 눈과 귀를 모두 동원해 책과 만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연극배우 오지혜의 사회로, '책 읽는 서울'의 조직위원장인 소설가 박범신에게 듣는 '책 이야기', '비보이&발레리나' 팀의 시범 공연, 그룹 샤이니

의 '책 문화나눔 콘서트'가 진행되었으며, 인기 가수 손호영은 노래와 더불어 책 낭독을 통해 시민들을 만났다. 이 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만든 '책 읽는 서울- UCC 공모전' 수상작과 '책 읽는 서울' 홍보영상 등이 시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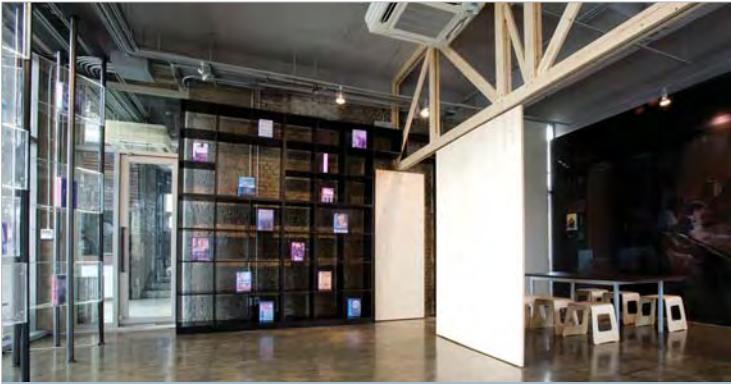
북카페 '책사랑' · '책차방', 11월에도 다양한 행사가 가득 - '책사랑'에서 시인 유홍준과의 만남

가을이 무르익는 11월 서울문화재단 1층 북카페 '책사랑'과 '책차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다. 오는 11월 12일 오후 7시, '책사랑'에서 시민문화예술강좌 '우리시대 작가들을 일곱 가지 빛깔로 만나보다'의 일곱 번째 주인공, 시인 유홍준과 만남의 시간이 마련된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 중인 이 프로그램은 그간 다양한 작가들과의 만남으로 시민들을 문학의 세계로 안내했다. 일곱 번째 작가인 유홍준은 「시인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시」라는 주제로 위반과 전복의 상상력으로 바라본 시의 매력, 일상적 시선을 경계하고 시의 장르가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찰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상적 시선 뒤집기'를 유쾌하게 강의할 예정이다. 강좌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또는 네이버카페(<http://cafe.naver.com/seoulbookcafe>)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이메일(jeungpill@sfac.or.kr)로 신청하면 된다.

- '책차방'에서 어린이창작프로그램 진행

책차방에서는 어린이 창작 프로그램 '개천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진행된다. 6월~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매월 다른 주제로 책과 함께 놀





CREATIVE SEOUL NEWS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11월 26일 창작 프로그램은 마장동 마장 어린이 집에서 참여하여 동화구연가가 들려주는 겨울이야기를 듣고 겨울에 하고 싶은 일을 책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책방'에서 청사대관 강좌, <나에게 반하다> 저자와의 만남

오는 11월 19일, 26일 7시에는 책방에서 청사대관 강좌의 일환으로, 책 <나에게 반하다>의 저자 안이영노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나에게 반하다>는 아버지이자 전직 언론학 교수 안병찬과 아들 안이영노가 함께 쓴 책이다.

자기 성장을 하는 라이프스타일,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몰입하는 삶은 이제 보편적이다. 이번 저자와의 이야기는 이렇듯 자신의 모습에 반하는 '나르키소스'의 삶에서 성공을 이룬 12인을 통해 건강한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길을 엿본다. 서울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름, 연락처, 신청 사연을 작성하여 이메일(peculiosa@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진영(018-688-9107)에게 문의바란다.

청계창작스튜디오 두 개의 대관전시

- '장애인을 위한 사진교실-포토스토리' 및 '아름다운 인연 "人然"'展

11월에도 청계창작스튜디오에서는 두 개의 대관전시가 있을 예정이다. 먼저 포토로와의 '아름다운 인연 "人然"'展이 오는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포토



로와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및 외국회원 사진이 70여 폭 전시되며, 이번 전시를 통해 아름다운 사람, 자연과 맺었던 인연(因緣)을 소재로 하여 감춰져 있던 아름다움을 나누고자 한다.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사진교실 -포토스토리' 전시가 열린다. '장애인을 위한 사진 교실 -포토스토리'는 푸르메재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2기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사진교실에서는 장애인들이 사진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사진교실의 전반적인 수업 장면과 참가자들의 작품들을 전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간의 소통의 즐거움과 포토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면을 보여줄 예정이다.

서울열린극장 창동, 11월에도 다양한 공연으로 찾아가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11월에도 다양한 공연으로 지역주민을 찾아가갈 예정이다. 11월 8일 오후 4시 반부터는 '춤의 고을,固城(고성)사람들'이 열린다. 고성오광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7호로, 전통예술계에서는 가장 알려진 탈춤 중 하나이다. 이번 무대에는 춤이 가장 많이 집약되어 있는 고성오광대의 갖가지 춤들을 명무전(名舞典) 형태로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11월 15일 저녁 7시에는 서울열린극장 창동 회원을 위한 천원의 행복 <오페라의 밤>이 열린다. 오페라 카페에 각자 사연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오페라의 아리아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내용이다. 이 공연은 기존 회원을 위한 공연으로 11월 2일까지 가입한 회원에 한해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티켓구매는 11월 7일(금)~8일(토) 10:00~18:00 서울열린극장 창동 매표소에서만 현장판매 된다.

11월 22일 7시에는 일동후디스와 함께하는 <태교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팝페라, 클래식, 재즈와 함께 아이와 엄마를 위한 특별한 밤을 선사한다. 티켓은 일동맘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특별기획공연 뮤지컬<그리스>가 무대에 오른다. 2003년 초연 당시 객석점유율 90% 이상을 기록, 각종 예매차트 1위를 휩쓸며 한국 뮤지컬에 새로운 바람

을 일으킨 뮤지컬 <그리스>를 문화의 날 기념 특별선물로 3일간 서울열린극장 창동에서 만나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열린극장창동(02-994-14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제 한 달에 두 번, 대학로와 만나세요!

-대학로연극투어 2회 확대 실시

특별한 체험으로 연극과 대학로, 연극 만드는 사람들과 나누는 기회를 제공했던 대학로 연극투어가 시민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매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된다. 이로써 11월 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로 연극투어는 서울연극센터와 만나기, 대학로 문화와 만나기, 대학로와 만나기, 연극과 만나기 등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11월 9일에는 소극장 연우무대의 <칠수와 만수>를 관람하며, 11월 30일에는 문화공간 이다 1관에서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를 관람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www.e-stc.or.kr)에서 확인 바란다.





내가 선택한 첫 뮤지컬
단 한순간이라도 지루하다면 그리스가 아니다!

No.1 뮤지컬 그리스

2008. 11.28(금)~11.30(일)

서울 열린극장 창동

VIP 30,000원 R 20,000원 S 10,000원

주최 **서울문화재단** • **서울 열린극장 창동** 제작 **CD** 오디뮤지컬컴퍼니 **CJ** Entertainment 후원 **서울특별시**

예매티켓 링크 1588-7890 공연문의 (02)994-146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남 · 여)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문화서울

130-823



"제주 해안서 죽은 고래 발견 2006.11.12",
에코저널, 160x120/100x76cm, 라이트젯 프린트, 2007

문화+서울

독자의견란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서울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서울문화예술총서 시리즈 중
1권을 보내드립니다.

1. 어떤 경로를 통해 문화+서울을 접하게 되었나요?
2. 이번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3. 문화+서울이 취재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는?
4. 문화+서울이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주소 변경 시 업서나 이메일(smlee@sfac.or.kr)
또는 전화(02-3290-7067)로 연락바랍니다.



www.sfac.or.kr

첫돌

서울연극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8년 11월 8일(토) ~ 11월 9일(일)
(혜화역 4번출구)
www.e-stc.or.kr / 02) 743- 9333

즐길거리

-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 맛보기 '뮤지컬 콘서트'
8일(토) 18:00 : 년센스, 억수로 좋은날 / 9일(일) 13:00 : 빨래, 총각네 야채가게
- 대학로와 친구되기 '대학로연극투어' / 9일(일) 12:30
- 읽어주는 연극 '미생-아내가 사라졌다' / 9일(일) 15:00
- 서울거리아티스트 '악살 마임쇼' / 8일(토) 13:00, 16:00 & 9일(일) 14:00, 16:30
- 영상으로 보는 연극 '양덕원 이야기' / 8일(토) 14:00

놀거리

- 시민 게시판 '대학로는 다'
- 포토존 '잃어버린 돌 사진을 찾아서'
- 개관 1주년 기념 돌잡이 이벤트
- 돌떡 돌리기! (한정수량 선착순 제공)

* 위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www.e-stc.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eoul Theater Center

서울연극센터

Seoul Theater Center
www.e-stc.or.kr

